

국립국어원 0000-00-00

발간등록번호
00-000000-0000-00

수어 기반 문화 정보 접근 환경 지원 기초 조사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수어 기반 문화 정보 접근 환경 지원 기초 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기간: 2014년 7월 ~ 2014년 12월

2014년 12월 10일

연구책임자: 변승일(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연구 기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연구책임자 변승일

공동연구원 안영희, 이미혜, 최상배, 허일, 홍성은

<주관 연구 기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연구진>	
책임 연구원	변승일(한국농아인협회 회장)
공동 연구원	안영희(나사렛대학교 수화통역학과 겸임교수)
	이미혜(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최상배(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허 일(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교수)
	홍성은(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언어학 박사)
연구 보조원	변강석(Max Planck Institute for Psycholinguistics, Research Assistant)
	오진영(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과장)
	이현화(나사렛 재활복지대학원 석사과정)

<국문 초록>

수어 기반 문화 정보 접근 환경 지원 기초 조사

본 연구는 수어 사용 농인들을 위한 수어 기반 문화 정보 접근 환경 지원을 위한 기초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문화정보 욕구를 조사하였고, 주요 문화시설 및 관광지, 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문화정보 접근 환경을 조사하였다. 또한 문화시설에서 앞으로 농인을 위한 문화 정보를 수어 동영상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수어 동영상 표본을 제작하고, 수어 동영상 제작 지침안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인을 위한 문화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문화정보 욕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지 조사와 초점 집단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질문지를 서면과 수어해설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응답자에게는 응답을 표시할 서면 설문지와 수어해설동영상을 CD로 제공하였다. 설문지 조사 대상은 총 407명이었으며,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전국 시도 지부 회원들과 문화시설 이용 욕구가 많은 젊은 농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초점 집단 인터뷰는 총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 과정을 녹화한 후 동영상을 전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농인을 위한 문화시설 정보 접근 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문화시설 정보접근 현황 조사와 농인 문화시설 체험단 문화시설 방문을 통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문화시설 정보접근 현황 조사는 먼저 조사 대상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방문기관의 특성과 농인 지원 현황,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였고,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한 후에 연구자는 전화로 조사표에 따라 문화시설 농인 정보접근 현황을 조사하였다. 기관에 따라 전화조사보다는 이메일을 통한 반응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인 문화시설 체험 방문단은 농인 3명과 연구자 1명 모두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주요 국립문화시설을 방문하여 농인 입장에서 문화시설 운영의 장·단점과 개선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과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의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현지 방문을 한 자료를 통해 독일의 농인 문화시설 정보 접근 환경을 소개하였다.

문화정보 수어 동영상 표본 제작 및 제작 지침 수립 위해 수어 해설 동영상 표본을 15개 제작하였고, 관련 문헌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어 해설 동영상 제작 지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제언에서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개선 사항, 문화시설 문화정보 접근 환경, 농인을 위한 수어 해설 동영상 제작 관련 연구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수어, 농인, 문화 정보 접근, 문화시설, 수어 해설

차 례

1. 서론	1
1.1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1.2 연구 내용	6
1.3 연구 기대효과	7
1.4 연구 추진 체계	9
2. 연구 방법	11
2.1 연구 대상	11
2.2 연구 도구	14
2.3 연구 절차	17
2.4 자료 처리	19
3. 연구 결과 및 논의	21
3.1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문화정보 욕구	21
3.2 농인 문화시설 정보 접근 환경	82
3.3 문화정보 수어 동영상 표본 제작 및 제작 지침 수립	95
4. 결론 및 제언	118
4.1 결론	118
4.2 정책 제언	128
4.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132
참고문헌	133
Abstract	135
부록	136

부록 목차

1. 설문지	136
2. 설문지 동영상(CD 수록)	143
3. 문화시설 수어기반 정보접근 환경 조사표	144
4. 농인 방문체험단 면담 질문지	146
5. 농인 문화시설 체험단 방문 체험 보고서	147
6. 자문회의 내용	155
7. 초점집단인터뷰(FGI) 전사 내용	163

표 목차

<표1-1> 참여연구원의 역할과 특성	10
<표2-1> 초점집단 인터뷰 참여자	11
<표2-2> 문화정보접근 현황 조사 기관	12
<표2-3> 1차 자문위원	14
<표2-4> 2차·3차 자문위원	14
<표2-5>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문화정보 욕구 FGI 질문 내용	15
<표2-6> 수어 동영상 표본 제작 및 제작 지침 수립 FGI 질문 내용	16
<표3-1> 응답자 연령	21
<표3-2> 응답자 성별	21
<표3-3> 응답자 현재 거주지	22
<표3-4> 응답자 최종 학력	22
<표3-5> 응답자 사용 언어	23
<표3-6> 최근 1년간 문화시설별 방문 빈도	23
<표3-7> 연별대별 최근 1년간 문화시설 방문 빈도	25
<표3-8> 성별 최근 1년간 문화시설 방문 빈도	29
<표3-9> 현재 거주지별 최근 1년간 문화시설 방문 빈도	32
<표3-10> 최종학력별 최근 1년간 문화시설 방문 빈도	36
<표3-11> 사용 언어별 최근 1년간 문화시설 방문 빈도	41
<표3-12> 문화시설별로 필요한 지원	44
<표3-13> 현재 문화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인을 위한 서비스 인지 정도	49
<표3-14> 농인을 위한 서비스 확인 방법	51
<표3-15> 농인에 필요한 정보의 적절한 제공 여부	53
<표3-16> 농인에게 필요한 정보접근기기의 적절한 제공 여부	55
<표3-17> 홈페이지 접근환경의 적절성 여부	56
<표3-18> 기본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58
<표3-19> 수화통역사 배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여부	60
<표3-20> 기존 문화시설 배치 수화통역 서비스의 불편 사항	61
<표3-21> 문화시설 해설 방법	64
<표3-22> 더 자주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	65
<표3-23>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1순위)	66
<표3-24>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3가지 다중선택 처리)	70
<표3-25> 가장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순위별 가중 처리 결과)	73
<표3-26> 문화시설 이용 지원 정보 얻는 방법	77

<표3-27>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문화정보 욕구 FGI 분석 결과	79
<표3-28> 문화시설 설립별 비상경보등 설치 여부	82
<표3-29> 비상경보등 미설치 이유	83
<표3-30> 문화시설 설립별 음성 정보 전광판 설치 여부	83
<표3-31> 전광판 미설치 이유	84
<표3-32> 의사소통 기기나 수어통역, 대체텍스트 제공 여부	84
<표3-33> 제공하는 편의 제공 유형	85
<표3-34> 보조인력 제공 여부	85
<표3-35> 장애인 전담직원 배치 여부	86
<표3-36> 홈페이지 장애인 시설 활용 정보 제공 여부	87
<표3-37> 홈페이지 장애인 시설 활용 정보 제공하지 않는 이유	87
<표3-38> 수어해설 동영상 제작 방식의 주요 내용	95
<표3-39> 수어 해설 동영상 표본 제작 지침	109
<표3-40> 수어 방식에 따른 동영상 제작	112
<표3-41> 편집 방법에 따른 동영상 제작	113
<표4-1> 농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	125

그림 목차

<그림1-1> 연구추진 체계	9
<그림2-1> 수어 해설 동영상 표본 제작 절차	19
<그림3-1> 오디오가이드 안내판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판	92
<그림3-2> 농인을 상징하는 마크와 독일수어통역을 뜻하는 DGS	92
<그림3-3> 수어 영상 해설 기기의 모습	92
<그림3-4> 독일 수어 해설 동영상 장면	92
<그림3-5> 연방의회 의사당 홈페이지의 독일수어메뉴	93
<그림3-6> 연방의회 의사당 홈페이지의 배리어프리 가이드 홍보영상	93
<그림3-7> 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	94
<그림3-8> 목록을 클릭하는 방식	94
<그림3-9>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서 수어 해설 서비스를 받는 모습1	94
<그림3-10>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서 수어 해설 서비스를 받는 모습2	94
<그림3-11>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홈페이지 수어 안내 서비스	95

1. 서론

1.1 연구의 의의와 목적

한국수어는 한국어 음성언어나 문자언어와 다른 언어 형식을 지닌 시각언어로 한국농인들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가장 선호하는 제1언어이다. 한국사회 대부분의 청인들과는 다른 언어와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농인들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이용할 때와 같은 경험을 하곤 한다. 즉,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와 방식으로 문화시설 이용에 필요한 핵심정보들과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해당 문화 시설을 물리적으로만 접근하고 배회할 뿐, 해당 문화시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청인들에 비해 문화시설 이용률이 낮고,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

농인들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청각기관의 손상과 듣기 기능 저하’ 그 자체보다 언어와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에 따른 정보 접근 및 이해의 어려움과 그로 인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주류 사회 구성원들과의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족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의 박탈은 일종의 ‘문화결손(cultural deficit)’을 야기하여 농인이 더 많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농인은 사회 참여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농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 및 평등을 위해서는 농인이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 이용 및 문화 정보 접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인의 정보접근과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근 국회에는 농인의 언어인 수어(手語)에 한국어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한국수어법’이 발의되어, 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어법이 통과되면, 농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언어권을 보장하고, 수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수어가 국어(한국어)와 동등한 위치에서 공용어로 인정받고, 한국수어를 통한 학습 및 정보 접근을 통해 농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문화시설 및 문화정보에 대한 수어 기반 접근 환경 구축은 ‘한국수어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농인의 기본권인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에 해당한다. 농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시설 이용 확대와 문화정보 접근 확대를 통해 농인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만족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농인들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농인들의 제1언어인 수어를 발전시키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농인들이 다양한 문화 정보에 접근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어 기반 문화정보 접근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서관법에는 장애인이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기관에서는 편의를 제공할 의무와 함께 문화 정보 접근을 위한 방안을 개발·보급할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조, 21조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와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조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한 조항으로 1항은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 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으며, 2항에는 “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21조 2항에는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3항은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6조의 2항에서는 농인 등이 공공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시설 이용 상의 편의 제공을 하여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도서관법』 제45조는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 운영할 것을 명시하면서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뿐 아니라, 장애인의 지식 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4조에는 장애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며,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국가가 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4조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법을 농인에게 적용을 하면, 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국가가 지원하여야 함을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문화정보 국어능력 정책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국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과 제도적 보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률들에 비추어보면 농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문화시설의 확보는 기본

적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언어소수자이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농인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거나 반대로 적절한 조치 없이 기존 문화시설에 적응하라고 하는 것은 농인의 문화시설 접근을 차별하고, 문화시설을 통한 양질의 정보를 획득하고, 문화를 향유할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

2011년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결과, 2011년 한 해 동안 농인이 1회라도 방문한 공공도서관은 80개관이며 이 기관의 평균 농인 이용자 수는 22.09명에 불과하였다. 2012년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12)에서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농인 성인의 경우 공공도서관 이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59.3%, 1-5회의 이용 경험이 있다가 24.2%였으며, 농학생의 경우도 공공도서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가 50.6%, 1-5회의 이용 경험이 있다가 36.7%로 공공도서관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농인들은 자신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농 친화적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도서관 이용 의사가 있음을 개진하고 있다. 2012년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모델 개발’(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12) 연구에서의 조사 결과, 농인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농 성인의 경우 67.9%, 농학생의 경우 61.3%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도서관, 서울농학교, 서울삼성학교 등에서 시범 운영된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참여 현상을 보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농인의 특성에 적합한 도서관 문화, 운영 체제, 시설, 자료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면 농인도 도서관 이용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농인의 장애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반영하느냐에 따라 농인도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질 높은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문화욕구를 실질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 및 문화정보 서비스 지침 등이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농인들을 위한 문화 접근 환경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현대와 같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인간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인은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접근은 어렵지 않지만 정보접근에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 따라서 농인에게 정보접근은 단순한 효율성의 측면이 아니라 인간생활의 생존과 자립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김선주(2008)는 농아인의 정보접근이 전체적으로 농아인의 자립 정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농아인이 다양한 경로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농아인의 자립 능력은 향상될 것이라고 하였다.

농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달리 신체적 활동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대체자료가 필요하듯 자막이나 수어가 삽입

된 영상물, 수어 영상도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 등 농인을 위한 다양한 대체자료도 필요하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이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어떠한 시설물과 제품에 대한 충분한 사용상의 물리적 가능함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작상의 적합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어떤 제품이 얼마나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설계되었는지 판단하는 사용편의성(usability)은 일단 접근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룰 수 있는 문제이다. 장애인에게 있어 접근권이란 권리의 주체로 하여금 권리의 목적이나 대상에 근접하여 그를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 부여된 권리로 설명할 수 있으며, 대상 범주로 보면 공원이나 건물, 대중교통, 각종 시설 등 유형의 공공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책, 신문, 방송, 통신, 컴퓨터 등을 통한 지식이나 정보의 취득을 위한 무형의 정보에 대한 접근도 포함하는 포괄적 내면으로 이해된다(김선주, 2008).

농인의 정보화 관련 연구는 수어통역서비스, 자막 방송과 수어통역 방송, 정보통신기기 활용 관련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류재옥, 2003), 농인의 도서관 활용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및 문화정보 접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도서관과 역사문화관광지를 중심으로 일부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2012)에서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자료실이 설치된 곳은 10.5%(81개관)이며, 장애인 코너가 설치된 기관은 23.4%(180기관)로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자료실 및 장애인코너 설치 비율이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농인의 도서관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청각장애인복지관 5개 기관이 있으며, 청각장애인복지관에 사회복지사(5개관), 수어통역사(4개관), 사무직(4개관), 농통역사(3개관)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영상자료 중 농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으며, 청각장애인복지관에 수어 영상물과 자막영상물이 일부 있지만 자료 편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농인의 공공도서관 이용률도 전체 공공도서관 중 80개 기관에 그쳐 10% 공공도서관만 이용하고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2012)에 농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34.7%가 1회~5회, 31.9%가 16회 이상, 17.3%가 이용하지 않음, 11.3%가 6회~10회, 4.0%가 11~15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37.2%가 도서관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30.2%가 도서관에 가면 의사소통 때문에 불편할 것 같아서, 25.6%가 기타, 8.0%가 도서관에 관심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성인 응답자 59.3%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24.2%가 1-5회를 이용했다고 응답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농학생이 학교 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보면 농인들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16회 이상 이용한 학생이 31.9%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낮은 도서관 이용률이 아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시사

점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도서관이 학교도서관과 연계협력 사업을 펼칠 경우 도서관 이용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공공도서관으로 농인을 오도록 하는 방법과 함께 거점 지역도서관과 농학교 도서관의 연계협력력을 통해 찾아가는 도서관으로서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농인의 역사문화관광 특성과 제약 요인을 분석한 김철현(2012)은 농인이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횟수는 1년에 1회 이상이 75.4%로 가장 많았고, 관광 정보는 복지관 등 장애인 단체(24.8%), 인터넷(21.8%), 신문·잡지(16.8%) 순으로 얻었으며, 역사에 대한 지식은 TV 방송(31.7%), 박물관 등 역사문화 현장(28.7%), 인터넷(27.7%) 순이었으며, 고령층일수록 TV 방송을 통한 관광 정보 획득이 높았다. 역사문화 관광의 제약 요인으로는 안내판, 리플릿에 수록된 문화유적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 직원과의 의사소통이 어렵다, 유적지에서의 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어렵다, 안내판, 리플릿 등 안내 매체가 부족하다, 관광할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하다 순으로 응답하여 역사문화 시설을 이용할 때 정보 접근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즉, 농인은 향후 지속적인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의향도 81%로 높게 나와 문화관광에 대한 욕구는 높은 반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어 정보의 부족 때문에 문화 관광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역사문화유적지에서의 관광 제약 요인을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3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는데, 그중 정보 및 프로그램 제약이 가장 높았고, 물리적 및 구조적 제약, 내재적 및 개인적 제약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농인은 다른 장애인의 관광활동의 제약요인과 다르게 교통의 불편 등 물리적·구조적 제약요인보다 역사문화유적지에서의 정보 및 프로그램 요인이 높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김철현(2012)은 농인의 역사문화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역사문화공간에서의 역사문화에 대한 해설 등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역사문화의 가치를 경험하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국의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도 외국의 박물관처럼 이미 외국인 이용자 등을 위한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해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인들의 관람의 편의를 위해 mp3 플레이어나 PDA,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시물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음성 해설을 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이용자들이 형식적인 문화 시설 방문에서 벗어나 보다 의미 있고 즐거운 문화생활 영위가 가능해지고 있다. 영어와 중국어 사용자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듯이,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을 위해서는 수어 해설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 시설에서 농인을 위한 문화 정보 접근 환경을 구축하고 문화 정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문화 시설을 이용할 때 농인을 포함한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인도 문화시설과 문화생활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농인의 정보 접근 환경을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농인의 정보 접근 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와 문화정보 요구와 주요 문화시설 이용에 필요한 문화정보 접근 환경을 조사하였다. 또한 농인의 수어 기반 문화 정보 접근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수어 동영상 제작 지침을 개발하고 농인을 위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자료는 향후에 농인의 문화시설 정보접근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 내용

1.2.1.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문화정보 욕구 조사

현재 농인들의 문화시설 이용 및 문화정보 접근에 관한 욕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다. 2007년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 조사(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07a)」,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 제정 연구(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07b)」, 2012년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델 개발(강남대학교, 2012)」, 2013년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모델 개발(국립장애인도서관, 2013)」 등 최근 도서관을 중심으로 농인의 시설 이용 현황 및 관련 서비스 욕구에 관한 조사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 시설 등에 관한 이용 실태와 관련 문화정보들 중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 및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지 조사(설문조사 및 초점집단 인터뷰)하여 농인들의 문화 시설 이용 활성화 및 문화 정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2. 주요 문화시설 및 관광지, 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문화정보 접근 환경 조사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인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4조). 또한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어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6조의 2)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문화시설 등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농인들이 이용할 때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시설(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고궁 등) 및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서 농인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시설 접근성, 적당한 편의 제공, 웹 정보 제공 등을 조사하여, 농인을 위한 문화 정보 제공 현황을 확인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3 농인을 위한 문화 정보 수어 동영상 표본 제작 및 제작 지침 수립

대부분의 문화시설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핵심 문화 정보를 한국어 텍스트 및 음성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1언어로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은 제2언어인 한국어 문자언어와 음성언어를 통해서는 충분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특히 농인들에게 불완전한 감각 채널인 청각채널을 통한 정보 제공은 정보 수용 단계에서부터 물리적 한계를 가진다. 또한 농인의 정보접근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는 농인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는 자료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 시설을 이용할 때 농인들이 요구하는 문화 정보를 그들의 제1언어로 제공할 때, 어떤 문화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여야 하는지 몇 가지 표본을 제작하여 농인들에게 제시하고, 농인들의 이용 경험 및 피드백을 수집하여 향후 농인을 위한 문화 정보 수어 동영상을 제작할 때 필요한 제작 지침을 제안하고자 한다.

1.2.4 농인을 위한 문화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UN 장애인권리협약 21조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장애인 자신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형태를 통하여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고 주고받을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표현·의견의 자유와 정보접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수어,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장애인이 선택하는 기타의 모든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방법·형태·형식들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시설 및 관련 문화 정보들을 농인들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농인이 선택한 언어와 의사소통 형태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언들을 중단기 계획을 포함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1.3 연구 기대효과

1.3.1.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및 문화정보 접근 환경 구축 기반 마련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문화정보 욕구 조사를 통하여 문화정보 활용에 대한 농인의 요구에 기반을 둔 문화정보 접근 환경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요구는 타 장애인과의 요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농인에게 적절한 맞춤형 문화정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요구 조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구에 따른 농

인의 문화시설 이용 및 문화정보 욕구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농인의 문화생활 증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문화시설의 장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정보 접근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접근 소외계층이었던 농인들을 위한 문화정보 접근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문화시설의 장은 농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2. 농인을 위한 문화 정보 수어 동영상 제작 지침 수립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인을 위한 문화시설 정보접근 서비스는 일부 박물관의 수어통역서비스와 수어 도서 제공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농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수어 동영상 제작 지침은 아직 존재하지 않다. 농문화 측면에서 볼 때 농인은 청력을 손실한 사람이라기 보다는 보는 사람(seeing person)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받아들이므로 동영상 자료를 제작할 때 농인의 특성과 매체의 특성, 문화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한 동영상 제작 지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수어 동영상 제작을 하여 보고 자문회의를 통해 동영상 수정 작업을 실시하여 농인에게 최적화화된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농인을 위한 수어 동영상 제작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1.3.3 실질적인 한국수어 선택권 보장 및 농인의 일자리 창출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농인 관련 학교나 기관에서만 아니라 일상적인 문화 생활 및 여가 생활에서 자신이 선택한 언어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정보 접근함으로써, 이 연구는 「한국수어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농인의 언어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농인들을 위한 문화정보 수어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청인 수어통역사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통역사 등이 참여하고, 농인 문화해설사, 농인을 위한 대체텍스트 번역사 등 문화정보 제공을 위해 많은 농인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문화정보 접근환경 구축에 참여한다면, 농인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농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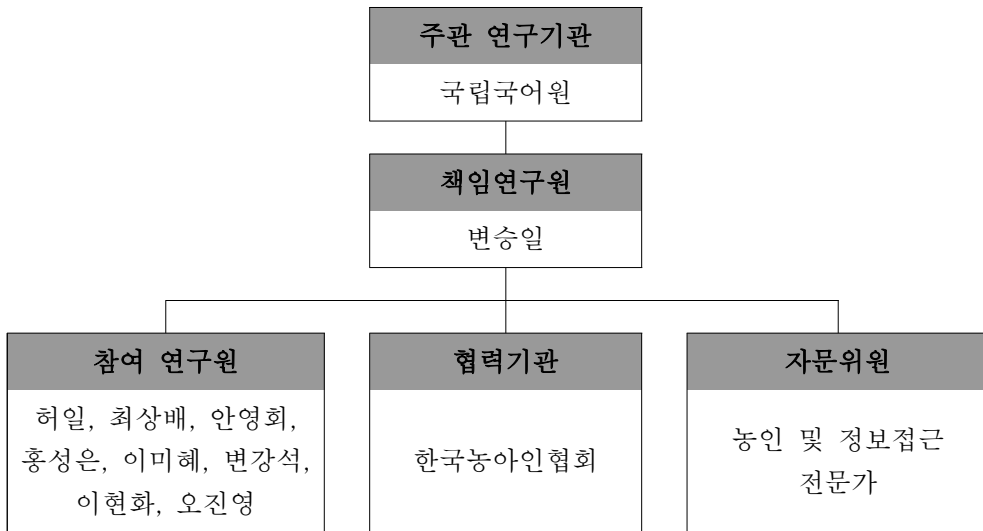
1.3.4 농인을 위한 문화 정보 접근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중장기 계획 마련

인구의 대다수가 청인인 사회 속에서 농인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쉽다. 농인은 소리와 단절 때문에 시각언어인 수어를 바탕으로 해서 시각에 의존하여 살아가게 되어 교육은 물론 문화적 측면에서도 정보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농인에게 문화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인의 소통 방식에 맞는 수어를 바탕으로 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농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어로 해설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인의 문화정보 접근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농인의 문화정보 요구와 문화시설 정보접근 환경 현황 실태 조사, 문화정보 수어 영상 표본 제작을 통하여 문화생활에서 소외 되어 있는 농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농인을 위한 문화 접근권리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고, 이러한 정책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문화 관련 서비스나 실제에서 비롯된 문제점과 효과를 분석하여 농인의 문화정보 접근환경 기반구축에 적합한 중장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4 연구 추진 체계

한국농아인협회장을 책임연구자로 하며, 수어 및 농인 관련 전문가와 농인 관련 학자들을 연구진으로 구성하며, 현장실무자, 농인 당사자들이 참여한 자문회의, 연구팀 워크숍 등을 통해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다.



<그림1-1> 연구추진 체계

참여연구원의 역할과 특성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참여연구원의 역할과 특성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책임연구원	변승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공동연구원	허 일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교수
”	최상배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안영희	나사렛대학교 수화통역학과 겸임교수
”	홍성은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언어학 박사
”	이미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보조연구원	변강석	Max Planck Institute for Psycholinguistics 직위 : Research Assistant
”	이현화	나사렛 재활복지대학원 석사과정
”	오진영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과장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2.1.1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문화정보 욕구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와 문화정보 욕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초점집단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2.1.1.1 설문조사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와 문화정보 욕구 조사를 위하여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0명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전국의 시도협회 회원이었으며, 그 외 200명은 농인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 농인 종교 시설, 문화적 욕구가 높은 자조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각 기관당 25명을 선정하였다. 각 기관은 나사렛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서울삼성학교,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대전농아인교회, 창원농아인교회, 대구농아인교회, 명성농아인교회이다.

2.1.1.2 초점집단 인터뷰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문화정보 욕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외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는 총 9명이었으며, 농인은 7명, 청인은 2명이었다. 그리고 남자는 4명, 여자는 5명이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농인 당사자 및 농사회 전문가로써 문화 시설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련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초점집단 인터뷰 참여자는 다음 <표2-1>와 같다.

<표2-1> 초점집단 인터뷰 참여자

참여자	성별	소속	비고
참여자1	남	농인교회 청년	농인
참여자2	남	교회 목회자	농인
참여자3	여	역사문화해설사	농인
참여자4	여	한국농아여성회	농인
참여자5	남	서울농아인협회 산하지부	농인
참여자6	남	대학원재학생	농인

참여자	성별	소속	비고
참여자7	여	수어전문교육원 강사	농인
참여자8	여	수어통역사	청인
참여자9	여	경기도농아인협회 산하지부	청인

2.1.2 농인 문화시설 정보 접근 환경

2.1.2.1 문화시설 정보접근 현황 조사

농인의 문화시설 정보접근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주요 문화시설 중에서 설립별(국립, 공립, 사립), 형태별(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고궁, 극장, 체육시설 등)로 51개 기관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문화시설은 전수조사가 바람직하겠으나, 농인들의 이용 빈도나 욕구가 많은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화시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농인을 위한 정보접근 서비스는 지방보다는 수도권 지역이 잘 구비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도권 지역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한 기관은 <표2-2>와 같다.

<표2-2> 문화정보접근 현황 조사 기관

	국립 (19개 기관)	공립 (22개 기관)	사립 (10개 기관)
서울소재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경찰박물관 청와대사랑채 한국은행화폐박물관 공연예술박물관 암사동선사유적지 관세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 허준박물관 서울상상나라 한국체육박물관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울특별시 수도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전쟁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 운동주문학관 서울교육박물관	한국자수박물관 호림아트센터 호림박물관 평강성서유물박물관 옹기민속박물관 한국영화박물관 한국가구박물관
서울소재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서울도서관 남산도서관	

	국립 (19개 기관)	공립 (22개 기관)	사립 (10개 기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양천도서관 강남도서관	
서울소재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서울미술관	남서울생활미술관 경희궁미술관	간송미술관 밀알미술관
서울소재 고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서울소재 극장/영화관			메가박스 강남
체육시설		서울월드컵경기장 잠실실내체육관 보라매공원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유명 관광지	송례문		

2.1.2.2 농인 문화시설 체험단 문화시설 방문을 통한 자료 조사

이 연구에서는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현황 조사를 위하여 전화와 홈페이지 조사 이외에 농인 문화시설 체험 방문단을 운영하였다. 농인 문화시설 체험 방문단은 농인 3명과 연구자 1명이 수행하였으며, 농인 참여자는 농인문화해설사로 근무하거나 문화해설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농인 문화시설 체험 방문단이 조사한 기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공주박물관, 경복궁 5개 기관이었다.

2.1.2.3 독일의 농인 문화시설 정보 접근 환경 조사

독일의 농인 문화시설 정보 접근은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과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2.1.3 문화정보 수어 동영상 표본 제작 및 제작 지침 수립

농인의 문화시설 정보 접근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수어 기반의 문화시설 해설 영상 제작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농인의 문화생활

과 문화정보 접근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초점집단 인터뷰 참여자는 <표2-1>과 동일하며, 1-3차 자문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는 이 연구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연관성이 있는 농인 당사자 5인과 농사회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2인 총 7인으로 아래 <표2-3>, <표2-4>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2-3> 1차 자문위원

성명	성별	소속	비고
자문위원1	남	대구농아인협회 수성구지부 지부장	농인
자문위원2	여	춘천계성학교 교사	농인
자문위원3	남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사원	농인
자문위원5	남	더 싸인 대표	청인
자문위원6	남	강원도농아인협회 사무국장	청인
자문위원7	남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과장	농인
자문위원9	여	서울농아교회 부목사	농인

<표2-4> 2차·3차 자문위원

성명	성별	소속	비고
자문위원1	남	대구농아인협회 수성구지부 지부장	농인
자문위원2	여	춘천계성학교 교사	농인
자문위원4	남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	농인
자문위원5	남	더 싸인 대표	청인
자문위원6	남	강원도농아인협회 사무국장	청인
자문위원8	여	서울시 역사문화해설사	농인
자문위원9	여	서울농아교회 부목사	농인

2.2 연구 도구

2.2.1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문화정보 욕구

2.2.1.1 설문조사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와 문화정보 욕구 조사를 위하여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응답자 특성 5문항, 문화시설 이용 현황과 개선 15문항 총 20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 특성은 나이, 성별, 현재 거주지, 최종학력, 청력 상태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화시설의 유형은 12개로 제시하였으며, 유형은 다음과 같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유적지, 체육시설, 유명 관광지, 공연장, 영화관(한국영화 상영, 외국영화 상영), 동물원·식물원, 청인 단체 종교 시설과 농인 단체 종교 시설. 영화관의 경우 자막제공 여부에 따라 시설 이용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영화상영과 외국영화상영으로 구분하였다. 종교시설의 경우 농인 종교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인 단체 종교시설과 농인 단체 종교 시설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는 농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정확성을 위하여 설문지를 종이에 출력된 글자뿐만 아니라 동영상 설문지도 제작하였다. 동영상 설문지의 예시는 <부록2>와 같다.

2.2.1.2 초점집단 인터뷰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사전에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표2-5>와 같다.

<표2-5>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문화정보 욕구 FGI 질문 내용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인들이 주로 어떠한 문화시설을 이용하십니까? 2. 농인들이 1년 동안 문화시설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3. 국내의 주요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4. 문화시설을 이용하신 후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5. 각 문화시설에 농인을 위한 수어해설동영상이 제공된다면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빈도가 증가할 것인가요? 6. 주요 문화시설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어디입니까? 7. 농인을 위한 문화시설 이용에 대해 수어해설동영상을 통한 안내가 꼭 필요합니까? 8. 수어해설동영상을 QR 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한다면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

2.2.2 농인 문화시설 정보 접근 환경

주요 문화시설의 농인 수어기반 정보접근 환경 조사를 위하여 연구자는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부록 3>과 같은 문화시설 수어기반 정보접근 환경 조사표를 제작하였다. 이 조사표는 크게 시설

접근성, 정당한 편의 제공, 웹 정보 제공 범주로 구성하였으며, 총 문항수는 11개이다. 시설접근성은 모두 4문항으로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여부, 비상경보등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 전광판을 활용하여 음성정보를 텍스트로 제공하는 여부, 전광판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로 구성하였다. 정당한 편의 제공은 모두 5문항으로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나 수어통역, 쉬운 글 등 대체 텍스트 제공 여부, 제공 기기의 실제 작동 여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 장애인 전담지원 배치 여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웹 정보 제공은 모두 2문항으로 홈페이지에 장애인 시설 활용 관련 정보 제공 여부, 홈페이지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농인의 문화시설 정보접근 현황 조사를 위하여 전화 또는 인터넷 조사 외에 농인 문화시설 체험단을 운영하여 농인이 직접 문화시설을 방문하여 체험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체험단은 <부록 4>의 면담 질문지로 방문한 문화시설의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2.2.3 문화정보 수어 동영상 표본 제작 및 제작 지침 수립

문화정보 수어 동영상 표본 제작과 제작 지침 수립을 위하여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질문한 내용은 <표2-6>과 같다. 수어 동영상 표본 제작 지침 마련을 위하여 초점집단 인터뷰 외에도 세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실시하였고 자문회의를 통해 동영상 제작에 필요한 중요 지침을 추출하였다.

<표2-6> 문화정보 수어 동영상 표본 제작 및 제작 지침 수립 FGI 질문 내용

1.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농인들을 위한 수어해설동영상을 제작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제작했으면 합니까?
2. 수어해설동영상을 제작할 경우 어떤 방식이 적절합니까?
 - 1) 기존 동영상에 수화통역을 삽입
 - 2) 필요한 배경을 넣고 수어해설가가 안내
 - 3) 전체 화면에 수어해설가가 안내하는 방법
 - 4) 전체 화면에 수어해설가의 안내와 자막 삽입
3. 수어해설동영상에 자막을 삽입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적절합니까?
4. 동영상에 수어해설가의 크기
5. 동영상 바탕화면 배경 색상으로 가장 좋은 색은 무엇입니까?
6. 배경과 수어해설가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 수어통역사 화면 크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7. 배경과 수어해설가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 수어해설가의 위치는 어디가 적절합니까? (오른쪽 / 왼쪽/ 화면 가운데 / 기타)
8. 배경과 수어해설가와 자막이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 자막의 크기와 수어해설가의 크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9.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수어해설가 화면 구성 방식
 - 1) 배경화면은 움직이면서 화면이 바뀌고 수어해설가는 계속 해설한다.
 - 2) 배경화면이 바뀌면 우선 정지시키고 수어해설가가 해설한다.
10. 수어해설가의 의상
 - 1) 의상의 색상
 - 2) 해당 문화시설의 분위기에 맞는 의상이 좋습니까?
11. 수어해설가의 기준
 - 1) 수어해설가는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 2) 수어해설가는 한국수어와 한국어 문해능력에 능통
 - 3) 수어해설가는 풍부한 표현력으로 시각적인 설명에 능통
 - 4) 기타

2.3 연구 절차

2.3.1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문화정보 욕구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문화정보 욕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방법을 선택했다. 기록된 질문에 대상자들이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농인들이 얼마나, 어떤 문화시설을 이용하는지 알아보고 문화 시설을 방문하면서 관련 정보를 구할 때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문지는 응답자 특성과 문화시설 이용현황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질문들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자의 답변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 선택이 가능한 질문도 포함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이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기 때문에 질문지를 서면과 수어해설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응답자에게는 응답을 표시할 서면 설문지와 수어해설동영상을 CD로 제공하였다.

설문지 조사 대상은 400명을 염두에서 두고, 회수율을 고려하여 210부를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에게 우편과 이메일 통해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나머지 200부는 문화시설 이용 욕구가 많은 젊은 농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 농학교 고등부와 농인 야학, 농대학생, 농인 종교단체 청년부 등에 설문지와 수화 CD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다시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설문 조사한 기관은 대학 두 곳(나사렛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농학교 한

곳(서울삼성학교), 농인 야학 한 곳(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농인 종교기관 다섯 곳(대전 농아인교회, 창원 농아인교회, 대구 농아인교회, 명성 농아인교회, 성요셉의집)이었다. 특정 지역이나 기관의 농인 응답자가 몰리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25부 정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총 410부를 배포하여 407부가 회수되었고, 회수율은 99.3%였다. 전국의 많은 농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설문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초점 집단 인터뷰는 2014년 9월 22일 실시하였고, 총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 과정을 녹화한 후 동영상을 전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문위원 회의는 총 3회 개최하였으며, 분석된 회의 결과는 문화정보 수어 동영상 제작 지침에 반영하였다.

2.3.2 농인 문화시설 정보 접근 환경

2.3.2.1 문화시설 정보접근 현황 조사

문화시설 정보접근 현황 조사를 위하여 연구자는 먼저 조사 대상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방문기관의 특성과 농인 지원 현황,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였다.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한 후에 연구자는 전화로 <부록 3>의 조사표에 따라 문화시설 농인 정보접근 현황을 조사하였다. 기관에 따라 전화조사보다는 이메일을 통한 반응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하였다.

2.3.2.2 농인 문화시설 체험단 문화시설 방문을 통한 자료 조사

농인 문화시설 체험 방문단은 농인 3명과 연구자 1명 모두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주요 국립문화시설을 방문하여 농인 입장에서의 문화시설 운영의 장·단점과 개선사항을 조사하였다. 농인 문화시설 체험 방문단에 참여한 농인은 현재 문화해설사로 근무하거나 문화해설 경험이 있는 농인으로 선정하였다. 농인 문화시설 체험단은 문화시설 방문 전에 연구자를 통해 체험단 운영 목적과 역할을 설명 받았으며, 주요 조사 내용을 전달 받았다. 농인 문화시설 체험 방문단이 집중적으로 체험한 내용은 방문 전 정보수집 방법, 이동방법, 관람 경비, 관람 편의 실태(문화시설 내 정보수집, 의사소통지원, 지원기기), 위급상황 발생시 안내 방법 등 5가지였다. 체험 방문단은 5가지를 집중 점검한 후 장애인 관람 담당자를 만나 <부록 4>에 따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체험 방문단이 기관을 방문한 날은 2014년 10월 10일, 11일, 17일 총 3일간이었다.

2.3.2.3 독일의 농인 문화시설 정보 접근 환경 조사

독일의 농인 문화시설 정보 접근은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과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의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현지 방문을 한 자료를 통해 소개하였다.

2.3.3 문화정보 수어 동영상 표본 제작 및 제작 지침 수립

2.3.3.1 초점집단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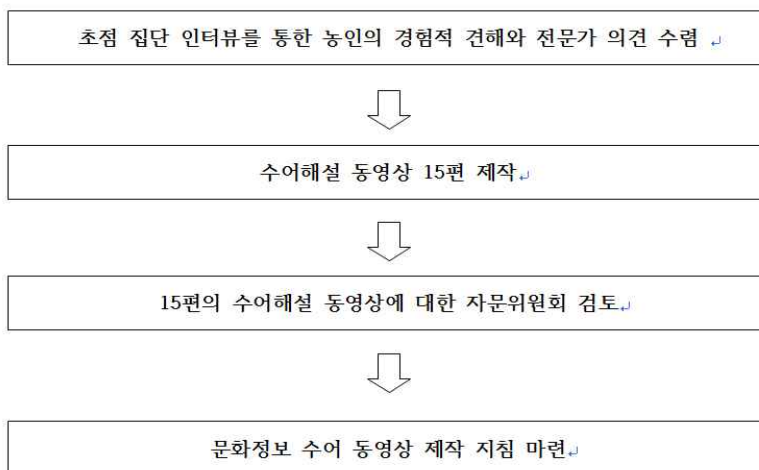
초점 집단 인터뷰는 2014년 9월 22일 실시하였고, 총 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 과정을 녹화한 후 동영상을 전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2.3.3.2 자문위원 회의

자문위원 회의는 총 3회 개최하였으며, 분석된 회의 결과는 문화정보 수어 동영상 제작 지침에 반영하였다.

2.3.3.3 수어 해설 동영상 표본 제작

자문위원회에 위와 같이 제작된 15편의 영상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자문을 받고 이를 통해 농인에게 가장 적합한 편집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림2-1> 수어 해설 동영상 표본 제작 절차

2.4 자료 처리

2.4.1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문화정보 욕구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문화정보 욕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나이, 성별, 현재 거주지, 최종 학력, 사용 언어에 따라 문항별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처리는 SPSS 20.0을 사용하였다.

초점집단 인터뷰 분석을 위하여 질문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였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구

어와 수어 인터뷰 내용을 캡코더로 녹화하였고, 녹화한 내용을 한국어로 전사하였다. 연구자는 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 참여자의 주요 용어와 개념을 추출하여 주요 의미 단위로 범주화 하였다.

2.4.2 농인 문화시설 정보 접근 환경

농인 주요 문화시설 정보접근 환경 조사를 위하여 연구자는 51개 문화시설을 조사한 후에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농인 문화시설 체험단 방문조사를 분석하기 위하여 체험 방문단은 체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보고서를 토대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일의 농인 문화시설 정보접근 현황 분석을 위하여 문헌 분석과 직접 방문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2.4.3 문화정보 수어 동영상 표본 제작 및 제작 지침 수립

문화정보 수어 동영상 표본 제작 및 제작 지침 수립을 위하여 초점집단 인터뷰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초점집단 인터뷰 분석을 위하여 질문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였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일부 참여자가 발언을 독점하지 않고 모든 인터뷰 참여자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구어와 수어 인터뷰 내용을 캡코더로 녹화하였고, 녹화한 내용을 한국어로 전사하였다. 연구자는 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 참여자의 주요 용어와 개념을 추출하여 주요 의미 단위로 범주화 하였다. 자문회의는 수어 기반 문화 정보 접근 환경을 조사하여 수어 기반 문화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 및 수어 해설 영상 제작 중장기 계획 및 제작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3회 실시하였다.

수어해설동영상 표본 제작을 위해 연구진이 회의를 거쳐 농인 이용 빈도 및 욕구가 높은 문화시설로 ‘경복궁’, ‘덕수궁’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립미술관’ 5곳의 문화시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전문 수어 강사, 농통역사, 역사문화해설사로 근무하고 있는 농인 3명을 선정하여 촬영하였다. 수어 모델의 인적 사항은 아래 <표2-7>과 같다.

<표2-7> 수어 모델 인적사항

성 별	연 령	소 속	비 고
여	40대	서울 수화 전문 교육원 강사	농인
남	30대	서울농아인협회 강서구지부	농인
여	40대	서울시 역사문화해설사	농인

3. 연구 결과 및 논의

3.1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문화정보 욕구

3.1.1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문화정보 욕구 설문조사 결과

3.1.1.1 응답자 특성

1) 연령

설문 응답자들 중 30대가 3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 40대 순으로 많았다.

<표3-1> 응답자 연령

	빈도	%
연령	19세 이하	23 5.7
	20-29세	111 27.3
	30-39세	124 30.5
	40-49세	86 21.1
	50세 이상	62 15.2
전체	406 99.8	
무응답	1 .2	
전체	407 100.0	

2) 성별

설문 응답자들 중 남성은 163명(40%)이었고, 여성은 171명(42%)였고, 무응답한 경우 73명(17.9%)였다.

<표3-2> 응답자 성별

	빈도	%
성별	남성	163 40.0
	여성	171 42.0
	전체	334 82.1
무응답	73 17.9	
전체	407 100.0	

3) 현재 거주지

설문 응답자들 중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46.7%로 제일 많았고, 중소도시와 읍·면·군에 거주하는 경우가 각각 31.4%, 20.4%였다.

<표3-3> 응답자 현재 거주지

		빈도	%
현재 거주지	특별시나 광역시	190	46.7
	중소도시	128	31.4
	읍면군	83	20.4
	전체	401	98.5
무응답		6	1.5
전체		407	100.0

4) 최종 학력

설문 응답자들 중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31.0%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 졸업인 경우와 대학 재학 중인 경우 각각 26.8%, 21.4% 였다.

<표3-4> 응답자 최종 학력

		빈도	%
최종학력	무학	9	2.2
	초등학교 졸업	22	5.4
	중학교 졸업	46	11.3
	고등학교 졸업	126	31.0
	대학 재학	87	21.4
	대학 졸업	109	26.8
	전체	399	98.0
무응답		8	2.0
전체		407	100.0

5) 사용 언어

설문 응답자들 중 수어 중심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 58.0%로 제일 많았고, 수어와 구어(한국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36.1%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구어 중심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3.4%였다.

<표3-5> 응답자 사용 언어

		빈도	%
사용 언어	수어 중심 사용	236	58.0
	구어 중심 사용	14	3.4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	147	36.1
전체		397	97.5
무응답		10	2.5
전체		407	100.0

3.1.1.2 문화시설 이용 현황 및 개선 요청 사항

1) 최근 1년간 문화시설 방문 빈도

최근 1년간 문화시설들을 어느 정도 방문하였는지 물어본 결과,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종교시설(청인)은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각각 38.8%, 50.3%, 55.3%, 56.6%), 박물관, 유적지, 체육시설, 유명 관광지, 영화관(한국영화 상영), 영화관(외국영화 상영), 동물원/식물원은 1-3회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각각 59.3%, 52.3%, 39.5%, 45.2%, 43.0%, 32.4%, 55.85). 종교시설(농인)의 경우, 10회 이상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37.4%).

<표3-6> 최근 1년간 문화시설별 방문 빈도

		방문 빈도					전체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박물관	빈도	87	197	33	6	9	332
	%	26.2%	59.3%	9.9%	1.8%	2.7%	100.0%
도서관	빈도	127	103	41	13	43	327
	%	38.8%	31.5%	12.5%	4.0%	13.1%	100.0%
미술관	빈도	165	132	15	9	7	328
	%	50.3%	40.2%	4.6%	2.7%	2.1%	100.0%
유적지	빈도	114	170	23	12	6	325

	%	35.1%	52.3%	7.1%	3.7%	1.8%	100.0%
체육시설	빈도	77	130	65	15	42	329
	%	23.4%	39.5%	19.8%	4.6%	12.8%	100.0%
유명 관광지	빈도	50	149	73	17	41	330
	%	15.2%	45.2%	22.1%	5.2%	12.4%	100.0%
공연장	빈도	182	118	24	3	2	329
	%	55.3%	35.9%	7.3%	.9%	.6%	100.0%
영화관: 한국영화	빈도	68	142	57	29	34	330
	%	20.6%	43.0%	17.3%	8.8%	10.3%	100.0%
영화관: 외국영화	빈도	43	107	57	35	88	330
	%	13.0%	32.4%	17.3%	10.6%	26.7%	100.0%
동물원/ 식물원	빈도	103	183	30	5	7	328
	%	31.4%	55.8%	9.1%	1.5%	2.1%	100.0%
종교시설: 청인	빈도	181	76	13	2	48	320
	%	56.6%	23.8%	4.1%	.6%	15.0%	100.0%
종교시설: 농인	빈도	92	83	24	5	122	326
	%	28.2%	25.5%	7.4%	1.5%	37.4%	100.0%

① 연령에 따른 문화시설별 방문 빈도

박물관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지난 1년간 1-3회 방문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도서관의 경우, 19세 이하의 경우 10회 이상 자주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0대의 경우 1-3회 정도 방문하였다고 가장 많이 대답하였으나, 30대 이상에서는 지난 1년간 전혀 방문한 적이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미술관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지난 1년간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유적지의 경우, 20대는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다른 연령대에서는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체육시설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유명 관광지의 경우 19세 이하는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다른 연령대에서는 1-3회 방문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연장의 경우, 10대의 경우 방문한 적이 없거나 1-3회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다른 연령대에서는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영화가 상영되는 영화관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

이 가장 많았다.

외국영화가 상영되는 영화관의 경우, 10대는 4-6회, 20대와 30대는 10회 이상 자주 방문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의 경우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동물원과 식물원의 경우, 10대는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청인 종교시설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농인 종교시설의 경우, 10대와 20대는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30대 이상의 경우 10회 이상 자주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3-7> 연별대별 최근 1년간 문화시설 방문 빈도

		박물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19세 이하	빈도	5	14	3	0	1
	%	21.7%	60.9%	13.0%	.0%	4.3%
20-29세	빈도	29	69	8	3	2
	%	26.1%	62.2%	7.2%	2.7%	1.8%
연령 30-39세	빈도	33	73	13	1	3
	%	26.8%	59.3%	10.6%	.8%	2.4%
40-49세	빈도	15	50	10	3	6
	%	17.9%	59.5%	11.9%	3.6%	7.1%
50세 이상	빈도	23	33	5	0	1
	%	37.1%	53.2%	8.1%	.0%	1.6%
전체	빈도	105	239	39	7	13
	%	26.1%	59.3%	9.7%	1.7%	3.2%
		도서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19세 이하	빈도	6	6	3	0	8
	%	26.1%	26.1%	13.0%	.0%	34.8%
20-29세	빈도	21	45	21	6	18
	%	18.9%	40.5%	18.9%	5.4%	16.2%
연령 30-39세	빈도	47	41	11	6	18
	%	38.2%	33.3%	8.9%	4.9%	14.6%
40-49세	빈도	42	25	8	1	4
	%	52.5%	31.2%	10.0%	1.2%	5.0%
50세 이상	빈도	43	12	3	0	2
	%	71.7%	20.0%	5.0%	.0%	3.3%
전체	빈도	159	129	46	13	50
	%	40.1%	32.5%	11.6%	3.3%	12.6%
		미술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연령	19세 이하	빈도	15	6	1	1	0
		%	65.2%	26.1%	4.3%	4.3%	.0%
	20-29세	빈도	51	47	6	5	2
		%	45.9%	42.3%	5.4%	4.5%	1.8%
	30-39세	빈도	65	46	7	1	3
		%	53.3%	37.7%	5.7%	.8%	2.5%
	40-49세	빈도	41	34	0	4	2
		%	50.6%	42.0%	.0%	4.9%	2.5%
	50세 이상	빈도	35	23	3	0	0
		%	57.4%	37.7%	4.9%	.0%	.0%
전체		빈도	207	156	17	11	7
		%	52.0%	39.2%	4.3%	2.8%	1.8%

		유적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연령	19세 이하	빈도	10	12	0	0	1
		%	43.5%	52.2%	.0%	.0%	4.3%
	20-29세	빈도	49	45	11	4	1
		%	44.5%	40.9%	10.0%	3.6%	.9%
	30-39세	빈도	35	68	7	8	2
		%	29.2%	56.7%	5.8%	6.7%	1.7%
	40-49세	빈도	15	53	5	3	4
		%	18.8%	66.2%	6.2%	3.8%	5.0%
	50세 이상	빈도	23	31	7	0	0
		%	37.7%	50.8%	11.5%	.0%	.0%
전체		빈도	132	209	30	15	8
		%	33.5%	53.0%	7.6%	3.8%	2.0%

		체육시설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연령	19세 이하	빈도	2	11	5	0	5
		%	8.7%	47.8%	21.7%	.0%	21.7%
	20-29세	빈도	28	37	27	6	13
		%	25.2%	33.3%	24.3%	5.4%	11.7%
	30-39세	빈도	26	52	19	3	21
		%	21.5%	43.0%	15.7%	2.5%	17.4%
	40-49세	빈도	18	33	15	6	11
		%	21.7%	39.8%	18.1%	7.2%	13.3%
	50세 이상	빈도	19	27	4	3	8
		%	31.1%	44.3%	6.6%	4.9%	13.1%
전체		빈도	93	160	70	18	58
		%	23.3%	40.1%	17.5%	4.5%	14.5%

		유명 관광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연령	19세 이하	빈도	8	7	6	0	2
		%	34.8%	30.4%	26.1%	.0%	8.7%

20-29세	빈도	18	55	22	6	10
	%	16.2%	49.5%	19.8%	5.4%	9.0%
30-39세	빈도	13	53	31	7	17
	%	10.7%	43.8%	25.6%	5.8%	14.0%
40-49세	빈도	8	41	17	7	12
	%	9.4%	48.2%	20.0%	8.2%	14.1%
50세 이상	빈도	13	25	14	2	8
	%	21.0%	40.3%	22.6%	3.2%	12.9%
전체	빈도	60	181	90	22	49
	%	14.9%	45.0%	22.4%	5.5%	12.2%

		공연장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19세 이하	빈도	10	10	1	1	1
	%	43.5%	43.5%	4.3%	4.3%	4.3%
20-29세	빈도	63	36	10	1	1
	%	56.8%	32.4%	9.0%	.9%	.9%
연령 30-39세	빈도	79	33	9	0	0
	%	65.3%	27.3%	7.4%	.0%	.0%
40-49세	빈도	41	36	5	2	0
	%	48.8%	42.9%	6.0%	2.4%	.0%
50세 이상	빈도	36	23	2	0	0
	%	59.0%	37.7%	3.3%	.0%	.0%
전체	빈도	229	138	27	4	2
	%	57.2%	34.5%	6.8%	1.0%	.5%

		영화관: 한국영화 상영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19세 이하	빈도	2	13	6	0	2
	%	8.7%	56.5%	26.1%	.0%	8.7%
20-29세	빈도	27	50	13	13	8
	%	24.3%	45.0%	11.7%	11.7%	7.2%
연령 30-39세	빈도	26	47	23	8	18
	%	21.3%	38.5%	18.9%	6.6%	14.8%
40-49세	빈도	9	33	20	9	12
	%	10.8%	39.8%	24.1%	10.8%	14.5%
50세 이상	빈도	18	26	5	7	6
	%	29.0%	41.9%	8.1%	11.3%	9.7%
전체	빈도	82	169	67	37	46
	%	20.4%	42.1%	16.7%	9.2%	11.5%

		영화관: 외국영화 상영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19세 이하	빈도	2	6	7	2	6
	%	8.7%	26.1%	30.4%	8.7%	26.1%
연령 20-29세	빈도	8	28	24	15	36
	%	7.2%	25.2%	21.6%	13.5%	32.4%

30-39세	빈도	11	36	19	7	49
	%	9.0%	29.5%	15.6%	5.7%	40.2%
40-49세	빈도	8	31	15	13	17
	%	9.5%	36.9%	17.9%	15.5%	20.2%
50세 이상	빈도	25	28	3	3	3
	%	40.3%	45.2%	4.8%	4.8%	4.8%
전체	빈도	54	129	68	40	111
	%	13.4%	32.1%	16.9%	10.0%	27.6%

동물원/식물원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19세 이하	빈도	14	8	0	0	1
	%	60.9%	34.8%	.0%	.0%	4.3%
20-29세	빈도	48	51	9	0	3
	%	43.2%	45.9%	8.1%	.0%	2.7%
연령 30-39세	빈도	28	80	10	2	2
	%	23.0%	65.6%	8.2%	1.6%	1.6%
40-49세	빈도	10	52	15	3	2
	%	12.2%	63.4%	18.3%	3.7%	2.4%
50세 이상	빈도	21	36	3	2	0
	%	33.9%	58.1%	4.8%	3.2%	.0%
전체	빈도	121	227	37	7	8
	%	30.2%	56.8%	9.2%	1.8%	2.0%

종교시설: 청인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19세 이하	빈도	13	6	3	0	1
	%	56.5%	26.1%	13.0%	.0%	4.3%
20-29세	빈도	59	24	5	0	23
	%	53.2%	21.6%	4.5%	.0%	20.7%
연령 30-39세	빈도	78	28	4	1	5
	%	67.2%	24.1%	3.4%	.9%	4.3%
40-49세	빈도	42	22	1	1	12
	%	53.8%	28.2%	1.3%	1.3%	15.4%
50세 이상	빈도	34	10	1	1	14
	%	56.7%	16.7%	1.7%	1.7%	23.3%
전체	빈도	226	90	14	3	55
	%	58.2%	23.2%	3.6%	.8%	14.2%

종교시설: 농인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19세 이하	빈도	8	5	3	1	6
	%	34.8%	21.7%	13.0%	4.3%	26.1%
연령 20-29세	빈도	40	30	4	1	36
	%	36.0%	27.0%	3.6%	.9%	32.4%
30-39세	빈도	30	34	11	2	43
	%	25.0%	28.3%	9.2%	1.7%	35.8%

40-49세	빈도	23	18	7	1	33
	%	28.0%	22.0%	8.5%	1.2%	40.2%
50세 이상	빈도	10	11	6	1	33
	%	16.4%	18.0%	9.8%	1.6%	54.1%
전체	빈도	111	98	31	6	151
	%	28.0%	24.7%	7.8%	1.5%	38.0%

② 성별에 따른 문화시설별 방문 빈도

- 박물관의 경우, 남녀 모두 1-3회 방문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도서관의 경우, 남녀 모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미술관의 경우, 남녀 모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유적지의 경우, 남녀 모두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체육시설의 경우, 남녀 모두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유명 관광지의 경우, 남녀 모두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공연장의 경우, 남녀 모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의 경우, 남녀 모두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의 경우, 남녀 모두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동물원과 식물원의 경우, 남녀 모두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청인 종교시설의 경우, 남녀 모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농인 종교시설의 경우, 남녀 모두 10회 이상 자주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3-8> 성별 최근 1년간 문화시설 방문 빈도

		박물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성별	남성	빈도	46	88	19	3	6
		%	28.4%	54.3%	11.7%	1.9%	3.7%
	여성	빈도	41	109	14	3	3
		%	24.1%	64.1%	8.2%	1.8%	1.8%
전체	빈도	87	197	33	6	9	
	%	26.2%	59.3%	9.9%	1.8%	2.7%	
		도서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성별	남성	빈도	67	50	12	8	23
		%	41.9%	31.2%	7.5%	5.0%	14.4%
	여성	빈도	60	53	29	5	20
		%	35.9%	31.7%	17.4%	3.0%	12.0%

전체		빈도	127	103	41	13	43
		%	38.8%	31.5%	12.5%	4.0%	13.1%
미술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성별	남성	빈도	84	61	6	6	4
		%	52.2%	37.9%	3.7%	3.7%	2.5%
성별	여성	빈도	81	71	9	3	3
		%	48.5%	42.5%	5.4%	1.8%	1.8%
전체		빈도	165	132	15	9	7
		%	50.3%	40.2%	4.6%	2.7%	2.1%
유적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성별	남성	빈도	58	80	10	10	3
		%	36.0%	49.7%	6.2%	6.2%	1.9%
성별	여성	빈도	56	90	13	2	3
		%	34.1%	54.9%	7.9%	1.2%	1.8%
전체		빈도	114	170	23	12	6
		%	35.1%	52.3%	7.1%	3.7%	1.8%
체육시설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성별	남성	빈도	23	60	42	9	28
		%	14.2%	37.0%	25.9%	5.6%	17.3%
성별	여성	빈도	54	70	23	6	14
		%	32.3%	41.9%	13.8%	3.6%	8.4%
전체		빈도	77	130	65	15	42
		%	23.4%	39.5%	19.8%	4.6%	12.8%
유명 관광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성별	남성	빈도	19	71	38	6	28
		%	11.7%	43.8%	23.5%	3.7%	17.3%
성별	여성	빈도	31	78	35	11	13
		%	18.5%	46.4%	20.8%	6.5%	7.7%
전체		빈도	50	149	73	17	41
		%	15.2%	45.2%	22.1%	5.2%	12.4%
공연장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성별	남성	빈도	92	57	11	1	1
		%	56.8%	35.2%	6.8%	.6%	.6%
성별	여성	빈도	90	61	13	2	1
		%	53.9%	36.5%	7.8%	1.2%	.6%
전체		빈도	182	118	24	3	2
		%	55.3%	35.9%	7.3%	.9%	.6%
영화관: 한국영화 상영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성별	남성	빈도	28	71	30	16	17
		%	17.3%	43.8%	18.5%	9.9%	10.5%
성별	여성	빈도	40	71	27	13	17
		%	23.8%	42.3%	16.1%	7.7%	10.1%
전체		빈도	68	142	57	29	34
		%	20.6%	43.0%	17.3%	8.8%	10.3%
영화관: 외국영화 상영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성별	남성	빈도	15	54	26	21	46
		%	9.3%	33.3%	16.0%	13.0%	28.4%
성별	여성	빈도	28	53	31	14	42
		%	16.7%	31.5%	18.5%	8.3%	25.0%
전체		빈도	43	107	57	35	88
		%	13.0%	32.4%	17.3%	10.6%	26.7%
동물원/식물원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성별	남성	빈도	53	86	12	5	5
		%	32.9%	53.4%	7.5%	3.1%	3.1%
성별	여성	빈도	50	97	18	0	2
		%	29.9%	58.1%	10.8%	.0%	1.2%
전체		빈도	103	183	30	5	7
		%	31.4%	55.8%	9.1%	1.5%	2.1%
종교시설: 청인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성별	남성	빈도	88	41	9	2	18
		%	55.7%	25.9%	5.7%	1.3%	11.4%
성별	여성	빈도	93	35	4	0	30
		%	57.4%	21.6%	2.5%	.0%	18.5%
전체		빈도	181	76	13	2	48
		%	56.6%	23.8%	4.1%	.6%	15.0%
종교시설: 농인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성별	남성	빈도	44	37	14	3	62
		%	27.5%	23.1%	8.8%	1.9%	38.8%
성별	여성	빈도	48	46	10	2	60
		%	28.9%	27.7%	6.0%	1.2%	36.1%
전체		빈도	92	83	24	5	122
		%	28.2%	25.5%	7.4%	1.5%	37.4%

③ 현재 거주지에 따른 문화시설별 방문 빈도

박물관의 경우, 현재 거주지에 관계 없이 모두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도서관의 경우, 특별시나 광역시는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지역의 경우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미술관의 경우, 모든 지역이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유적지의 경우, 모든 지역이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체육시설의 경우, 모든 지역이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유명 관광지의 경우, 모든 지역이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연장의 경우, 모든 지역이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의 경우, 모든 지역이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외국영화 상영 영화관의 경우, 모든 지역이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동물원과 식물원의 경우, 모든 지역이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청인 종교시설의 경우, 모든 지역이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농인 종교시설의 경우, 모든 지역이 10회 이상 자주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3-9> 현재 거주지별 최근 1년간 문화시설 방문 빈도

			박물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현재 거주지	특별시나 광역시	빈도	54	110	19	3	3	
		%	28.6%	58.2%	10.1%	1.6%	1.6%	
	중소도시	빈도	26	81	12	2	5	
		%	20.6%	64.3%	9.5%	1.6%	4.0%	
	읍면군	빈도	23	46	8	1	5	
		%	27.7%	55.4%	9.6%	1.2%	6.0%	
	전체	빈도	103	237	39	6	13	
		%	25.9%	59.5%	9.8%	1.5%	3.3%	
				도서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현재 거주지	특별시나 광역시	빈도	63	65	24	6	31	
		%	33.3%	34.4%	12.7%	3.2%	16.4%	
	중소도시	빈도	48	37	15	7	15	
		%	39.3%	30.3%	12.3%	5.7%	12.3%	
	읍면군	빈도	46	26	5	0	4	
		%	56.8%	32.1%	6.2%	.0%	4.9%	
	전체	빈도	157	128	44	13	50	
		%	40.1%	32.7%	11.2%	3.3%	12.8%	
				미술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현재 거주지	특별시나 광역시	빈도	99	72	9	5	3
		%	52.7%	38.3%	4.8%	2.7%	1.6%
	중소도시	빈도	64	51	7	2	0
		%	51.6%	41.1%	5.6%	1.6%	.0%
	읍면군	빈도	42	30	1	4	4
		%	51.9%	37.0%	1.2%	4.9%	4.9%
전체	빈도	205	153	17	11	7	
	%	52.2%	38.9%	4.3%	2.8%	1.8%	
유적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현재 거주지	특별시나 광역시	빈도	70	100	10	5	2
		%	37.4%	53.5%	5.3%	2.7%	1.1%
	중소도시	빈도	35	63	17	5	2
		%	28.7%	51.6%	13.9%	4.1%	1.6%
	읍면군	빈도	26	43	3	4	4
		%	32.5%	53.8%	3.8%	5.0%	5.0%
전체	빈도	131	206	30	14	8	
	%	33.7%	53.0%	7.7%	3.6%	2.1%	
체육시설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현재 거주지	특별시나 광역시	빈도	50	76	32	8	22
		%	26.6%	40.4%	17.0%	4.3%	11.7%
	중소도시	빈도	20	56	22	4	22
		%	16.1%	45.2%	17.7%	3.2%	17.7%
	읍면군	빈도	21	27	15	6	13
		%	25.6%	32.9%	18.3%	7.3%	15.9%
전체	빈도	91	159	69	18	57	
	%	23.1%	40.4%	17.5%	4.6%	14.5%	
유명 관광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현재 거주지	특별시나 광역시	빈도	41	77	42	9	18
		%	21.9%	41.2%	22.5%	4.8%	9.6%
	중소도시	빈도	6	64	29	8	21
		%	4.7%	50.0%	22.7%	6.2%	16.4%
	읍면군	빈도	13	37	17	5	10
		%	15.9%	45.1%	20.7%	6.1%	12.2%
전체	빈도	60	178	88	22	49	
	%	15.1%	44.8%	22.2%	5.5%	12.3%	
공연장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현재 거주지	특별시나 광역시	빈도	102	69	13	2	1
		%	54.5%	36.9%	7.0%	1.1%	.5%
	중소도시	빈도	75	43	6	1	1
		%	59.5%	34.1%	4.8%	.8%	.8%

	읍면군	빈도	48	25	8	1	0
		%	58.5%	30.5%	9.8%	1.2%	.0%
	전체	빈도	225	137	27	4	2
		%	57.0%	34.7%	6.8%	1.0%	.5%
영화관: 한국영화 상영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특별시나	빈도	38	78	38	15	18
	광역시	%	20.3%	41.7%	20.3%	8.0%	9.6%
현재 거주지	중소도시	빈도	26	49	19	16	17
		%	20.5%	38.6%	15.0%	12.6%	13.4%
	읍면군	빈도	17	39	9	6	11
		%	20.7%	47.6%	11.0%	7.3%	13.4%
	전체	빈도	81	166	66	37	46
		%	20.5%	41.9%	16.7%	9.3%	11.6%
영화관: 외국영화 상영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특별시나	빈도	26	57	32	21	51
	광역시	%	13.9%	30.5%	17.1%	11.2%	27.3%
현재 거주지	중소도시	빈도	10	43	22	11	41
		%	7.9%	33.9%	17.3%	8.7%	32.3%
	읍면군	빈도	17	28	13	7	18
		%	20.5%	33.7%	15.7%	8.4%	21.7%
	전체	빈도	53	128	67	39	110
		%	13.4%	32.2%	16.9%	9.8%	27.7%
동물원/식물원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특별시나	빈도	70	98	14	2	3
	광역시	%	37.4%	52.4%	7.5%	1.1%	1.6%
현재 거주지	중소도시	빈도	27	81	13	3	3
		%	21.3%	63.8%	10.2%	2.4%	2.4%
	읍면군	빈도	22	46	9	2	2
		%	27.2%	56.8%	11.1%	2.5%	2.5%
	전체	빈도	119	225	36	7	8
		%	30.1%	57.0%	9.1%	1.8%	2.0%
종교시설: 청인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특별시나	빈도	109	38	10	2	23
	광역시	%	59.9%	20.9%	5.5%	1.1%	12.6%
현재 거주지	중소도시	빈도	74	27	4	0	15
		%	61.7%	22.5%	3.3%	.0%	12.5%
	읍면군	빈도	39	24	0	1	17
		%	48.1%	29.6%	.0%	1.2%	21.0%
	전체	빈도	222	89	14	3	55
		%	58.0%	23.2%	3.7%	.8%	14.4%

		종교시설: 농인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현재 거주지	특별시나 광역시	빈도	54	47	11	3	69
		%	29.3%	25.5%	6.0%	1.6%	37.5%
	중소도시	빈도	32	32	13	1	48
		%	25.4%	25.4%	10.3%	.8%	38.1%
	읍면군	빈도	24	17	6	2	33
		%	29.3%	20.7%	7.3%	2.4%	40.2%
전체		빈도	110	96	30	6	150
		%	28.1%	24.5%	7.7%	1.5%	38.3%

④ 최종학력에 따른 문화시설별 방문 빈도

박물관의 경우, 무학 응답자는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응답자들은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도서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응답자는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응답자는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미술관의 경우, 대학 재학 중인 응답자는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경우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유적지의 경우, 무학 응답자는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른 응답자들은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체육시설의 경우, 무학 응답자는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른 응답자들은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유명 관광지의 경우, 무학 응답자는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른 응답자들은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연장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의 경우, 모든 응답자들이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외국영화 상영 영화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응답자들은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응답자들은 10회 이상 자주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동물원과 식물원의 경우, 무학 응답자는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른 응답자들은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청인 종교시설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농인 종교시설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10회 이상 자주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3-10> 최종학력별 최근 1년간 문화시설 방문 빈도

		박물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최종 학력	무학	빈도	5	3	1	0	0
		%	55.6%	33.3%	11.1%	.0%	.0%
	초등학교 졸업	빈도	6	16	0	0	0
		%	27.3%	72.7%	.0%	.0%	.0%
	중학교 졸업	빈도	12	28	4	0	2
		%	26.1%	60.9%	8.7%	.0%	4.3%
	고등학교 졸업	빈도	37	72	9	2	6
		%	29.4%	57.1%	7.1%	1.6%	4.8%
	대학 재학	빈도	18	54	10	3	1
		%	20.9%	62.8%	11.6%	3.5%	1.2%
	대학 졸업	빈도	25	64	14	1	4
	%	23.1%	59.3%	13.0%	.9%	3.7%	
	Total	빈도	103	237	38	6	13
	%	25.9%	59.7%	9.6%	1.5%	3.3%	
		도서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최종 학력	무학	빈도	7	1	0	0	0
		%	87.5%	12.5%	.0%	.0%	.0%
	초등학교 졸업	빈도	17	5	0	0	0
		%	77.3%	22.7%	.0%	.0%	.0%
	중학교 졸업	빈도	21	9	5	1	9
		%	46.7%	20.0%	11.1%	2.2%	20.0%
	고등학교 졸업	빈도	47	39	18	5	15
		%	37.9%	31.5%	14.5%	4.0%	12.1%
	대학 재학	빈도	27	36	7	2	14
		%	31.4%	41.9%	8.1%	2.3%	16.3%
	대학 졸업	빈도	37	38	14	5	12
	%	34.9%	35.8%	13.2%	4.7%	11.3%	
	Total	빈도	156	128	44	13	50
	%	39.9%	32.7%	11.3%	3.3%	12.8%	
		미술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최종 학력	무학	빈도	4	4	0	0	0
		%	50.0%	50.0%	.0%	.0%	.0%
	초등학교 졸업	빈도	14	8	0	0	0
		%	63.6%	36.4%	.0%	.0%	.0%
	중학교 졸업	빈도	23	16	5	1	0
		%	51.1%	35.6%	11.1%	2.2%	.0%
	고등학교 졸업	빈도	71	44	5	5	0
		%	56.8%	35.2%	4.0%	4.0%	.0%
	대학 재학	빈도	38	40	2	3	3
		%					

		%	44.2%	46.5%	2.3%	3.5%	3.5%
	대학 졸업	빈도	53	42	5	2	4
		%	50.0%	39.6%	4.7%	1.9%	3.8%
	Total	빈도	203	154	17	11	7
		%	51.8%	39.3%	4.3%	2.8%	1.8%

		유적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최종 학력	무학	빈도	7	1	0	0	0
		%	87.5%	12.5%	.0%	.0%	.0%
	초등학교 졸업	빈도	8	11	3	0	0
		%	36.4%	50.0%	13.6%	.0%	.0%
	중학교 졸업	빈도	18	24	1	1	1
		%	40.0%	53.3%	2.2%	2.2%	2.2%
	고등학교 졸업	빈도	49	57	10	2	2
		%	40.8%	47.5%	8.3%	1.7%	1.7%
	대학 재학	빈도	25	49	6	5	2
		%	28.7%	56.3%	6.9%	5.7%	2.3%
	대학 졸업	빈도	23	64	10	6	3
		%	21.7%	60.4%	9.4%	5.7%	2.8%
	Total	빈도	130	206	30	14	8
		%	33.5%	53.1%	7.7%	3.6%	2.1%

		체육시설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최종 학력	무학	빈도	6	2	0	0	0
		%	75.0%	25.0%	.0%	.0%	.0%
	초등학교 졸업	빈도	4	14	0	3	1
		%	18.2%	63.6%	.0%	13.6%	4.5%
	중학교 졸업	빈도	10	18	7	1	9
		%	22.2%	40.0%	15.6%	2.2%	20.0%
	고등학교 졸업	빈도	32	48	26	3	15
		%	25.8%	38.7%	21.0%	2.4%	12.1%
	대학 재학	빈도	18	29	21	6	12
		%	20.9%	33.7%	24.4%	7.0%	14.0%
	대학 졸업	빈도	21	49	16	5	17
		%	19.4%	45.4%	14.8%	4.6%	15.7%
	Total	빈도	91	160	70	18	54
		%	23.2%	40.7%	17.8%	4.6%	13.7%

		유명 관광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최종 학력	무학	빈도	4	2	2	0	1
		%	44.4%	22.2%	22.2%	.0%	11.1%
	초등학교 졸업	빈도	4	9	5	2	2
		%	18.2%	40.9%	22.7%	9.1%	9.1%
	중학교 졸업	빈도	11	19	12	0	3

	%	24.4%	42.2%	26.7%	.0%	6.7%
고등학교 졸업	빈도	27	60	18	4	15
	%	21.8%	48.4%	14.5%	3.2%	12.1%
대학 재학	빈도	7	38	23	5	14
	%	8.0%	43.7%	26.4%	5.7%	16.1%
대학 졸업	빈도	5	50	30	10	13
	%	4.6%	46.3%	27.8%	9.3%	12.0%
Total	빈도	58	178	90	21	48
	%	14.7%	45.1%	22.8%	5.3%	12.2%

			공연장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무학	빈도	7	1	0	0	0	
	%	87.5%	12.5%	.0%	.0%	.0%	
초등학교 졸업	빈도	14	8	0	0	0	
	%	63.6%	36.4%	.0%	.0%	.0%	
중학교 졸업	빈도	23	17	3	1	1	
	%	51.1%	37.8%	6.7%	2.2%	2.2%	
고등학교 졸업	빈도	63	53	8	1	1	
	%	50.0%	42.1%	6.3%	.8%	.8%	
대학 재학	빈도	51	27	8	0	0	
	%	59.3%	31.4%	9.3%	.0%	.0%	
대학 졸업	빈도	66	31	8	2	0	
	%	61.7%	29.0%	7.5%	1.9%	.0%	
Total	빈도	224	137	27	4	2	
	%	56.9%	34.8%	6.9%	1.0%	.5%	

			영화관: 한국영화 상영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무학	빈도	4	4	1	0	0	
	%	44.4%	44.4%	11.1%	.0%	.0%	
초등학교 졸업	빈도	8	8	1	1	4	
	%	36.4%	36.4%	4.5%	4.5%	18.2%	
중학교 졸업	빈도	6	28	4	3	4	
	%	13.3%	62.2%	8.9%	6.7%	8.9%	
고등학교 졸업	빈도	27	50	18	10	20	
	%	21.6%	40.0%	14.4%	8.0%	16.0%	
대학 재학	빈도	12	38	18	12	6	
	%	14.0%	44.2%	20.9%	14.0%	7.0%	
대학 졸업	빈도	24	37	23	11	12	
	%	22.4%	34.6%	21.5%	10.3%	11.2%	
Total	빈도	81	165	65	37	46	
	%	20.6%	41.9%	16.5%	9.4%	11.7%	

			영화관: 외국영화 상영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최종	무학	빈도	6	3	0	0	0

학력	초등학교 졸업	%	66.7%	33.3%	.0%	.0%	.0%
		빈도	8	8	0	1	5
	중학교 졸업	%	36.4%	36.4%	.0%	4.5%	22.7%
		빈도	8	22	8	2	6
	고등학교 졸업	%	17.4%	47.8%	17.4%	4.3%	13.0%
		빈도	20	41	22	11	31
	대학 재학	%	16.0%	32.8%	17.6%	8.8%	24.8%
		빈도	4	24	17	10	31
	대학 졸업	%	4.7%	27.9%	19.8%	11.6%	36.0%
		빈도	7	30	19	14	37
Total	%	6.5%	28.0%	17.8%	13.1%	34.6%	
	빈도	53	128	66	38	110	
		%	13.4%	32.4%	16.7%	9.6%	27.8%

		동물원/식물원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최종 학력	무학	빈도	5	4	0	0	0
		%	55.6%	44.4%	.0%	.0%	.0%
	초등학교 졸업	빈도	8	10	3	1	0
		%	36.4%	45.5%	13.6%	4.5%	.0%
	중학교 졸업	빈도	17	24	1	1	2
		%	37.8%	53.3%	2.2%	2.2%	4.4%
	고등학교 졸업	빈도	29	75	15	1	2
		%	23.8%	61.5%	12.3%	.8%	1.6%
	대학 재학	빈도	30	46	8	1	1
		%	34.9%	53.5%	9.3%	1.2%	1.2%
대학 졸업	빈도	30	63	10	3	3	
	%	27.5%	57.8%	9.2%	2.8%	2.8%	
Total	빈도	119	222	37	7	8	
	%	30.3%	56.5%	9.4%	1.8%	2.0%	

		종교시설: 청인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최종 학력	무학	빈도	5	0	0	0	3
		%	62.5%	.0%	.0%	.0%	37.5%
	초등학교 졸업	빈도	10	6	1	0	5
		%	45.5%	27.3%	4.5%	.0%	22.7%
	중학교 졸업	빈도	28	6	2	1	6
		%	65.1%	14.0%	4.7%	2.3%	14.0%
	고등학교 졸업	빈도	68	37	3	0	13
		%	56.2%	30.6%	2.5%	.0%	10.7%
	대학 재학	빈도	47	21	4	0	13
		%	55.3%	24.7%	4.7%	.0%	15.3%
대학 졸업	빈도	64	20	3	2	14	
	%	62.1%	19.4%	2.9%	1.9%	13.6%	
Total	빈도	222	90	13	3	54	

		%	58.1%	23.6%	3.4%	.8%	14.1%
		종교시설: 농인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최종 학력	무학	빈도	3	1	0	0	4
		%	37.5%	12.5%	.0%	.0%	50.0%
	초등학교 졸업	빈도	4	3	2	0	13
		%	18.2%	13.6%	9.1%	.0%	59.1%
	중학교 졸업	빈도	12	10	4	1	17
		%	27.3%	22.7%	9.1%	2.3%	38.6%
	고등학교 졸업	빈도	36	36	11	1	40
		%	29.0%	29.0%	8.9%	.8%	32.3%
	대학 재학	빈도	31	15	5	2	33
		%	36.0%	17.4%	5.8%	2.3%	38.4%
	대학 졸업	빈도	24	31	9	2	42
		%	22.2%	28.7%	8.3%	1.9%	38.9%
	Total	빈도	110	96	31	6	149
		%	28.1%	24.5%	7.9%	1.5%	38.0%

⑤ 사용 언어에 따른 문화시설별 방문 빈도

박물관의 경우,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도서관의 경우,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하는 경우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경우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미술관의 경우,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유적지의 경우, 구어 중심인 경우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경우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세육시설의 경우 구어 중심인 경우 4-6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경우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유명 관광지의 경우, 구어 중심인 경우 4-6회 혹은 10회 이상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경우 10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연장의 경우,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의 경우,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외국영화 상영 영화관의 경우, 수화와 구어 모두 사용하는 경우 1-3회 혹은 10회 이상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경우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동물원과 식물원의 경우, 구어 중심인 경우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경우 1-3회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청인 종교시설의 경우,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청인 종교시설의 경우, 수어 중심인 경우 10회 이상 자주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경우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3-11> 사용 언어별 최근 1년간 문화시설 방문 빈도

			박물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사용 언어	수어 중심 사용	빈도	57	140	28	3	6	
		%	24.4%	59.8%	12.0%	1.3%	2.6%	
	구어 중심 사용	빈도	4	7	1	2	0	
		%	28.6%	50.0%	7.1%	14.3%	.0%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	빈도	40	87	10	2	7	
		%	27.4%	59.6%	6.8%	1.4%	4.8%	
	전체		빈도	101	234	39	7	13
			%	25.6%	59.4%	9.9%	1.8%	3.3%
				도서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사용 언어	수어 중심 사용	빈도	109	62	21	9	28	
		%	47.6%	27.1%	9.2%	3.9%	12.2%	
	구어 중심 사용	빈도	5	4	2	0	3	
		%	35.7%	28.6%	14.3%	.0%	21.4%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	빈도	40	60	22	4	19	
		%	27.6%	41.4%	15.2%	2.8%	13.1%	
	전체		빈도	154	126	45	13	50
			%	39.7%	32.5%	11.6%	3.4%	12.9%
				미술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사용 언어	수어 중심 사용	빈도	121	94	8	5	3	
		%	52.4%	40.7%	3.5%	2.2%	1.3%	
	구어 중심 사용	빈도	9	3	1	1	0	
		%	64.3%	21.4%	7.1%	7.1%	.0%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	빈도	72	55	8	5	4	
		%	50.0%	38.2%	5.6%	3.5%	2.8%	
	전체		빈도	202	152	17	11	7
			%	51.9%	39.1%	4.4%	2.8%	1.8%
				유적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사용 언어	수어 중심 사용	빈도	73	127	12	11	4	
		%	32.2%	55.9%	5.3%	4.8%	1.8%	
	구어 중심 사용	빈도	8	4	1	1	0	
		%	57.1%	28.6%	7.1%	7.1%	.0%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	빈도	47	75	15	3	4	
		%	32.6%	52.1%	10.4%	2.1%	2.8%	

전체		빈도	128	206	28	15	8
		%	33.2%	53.5%	7.3%	3.9%	2.1%
체육시설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사용 언어	수어 중심 사용	빈도	56	93	35	13	34
		%	24.2%	40.3%	15.2%	5.6%	14.7%
	구어 중심 사용	빈도	3	2	5	1	3
		%	21.4%	14.3%	35.7%	7.1%	21.4%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	빈도	31	61	29	4	20
		%	21.4%	42.1%	20.0%	2.8%	13.8%
전체	빈도	90	156	69	18	57	
	%	23.1%	40.0%	17.7%	4.6%	14.6%	
유명 관광지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사용 언어	수어 중심 사용	빈도	35	107	52	11	29
		%	15.0%	45.7%	22.2%	4.7%	12.4%
	구어 중심 사용	빈도	3	3	4	0	4
		%	21.4%	21.4%	28.6%	.0%	28.6%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	빈도	21	66	33	10	15
		%	14.5%	45.5%	22.8%	6.9%	10.3%
전체	빈도	59	176	89	21	48	
	%	15.0%	44.8%	22.6%	5.3%	12.2%	
공연장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사용 언어	수어 중심 사용	빈도	138	80	14	0	0
		%	59.5%	34.5%	6.0%	.0%	.0%
	구어 중심 사용	빈도	10	2	1	1	0
		%	71.4%	14.3%	7.1%	7.1%	.0%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	빈도	77	51	12	3	2
		%	53.1%	35.2%	8.3%	2.1%	1.4%
전체	빈도	225	133	27	4	2	
	%	57.5%	34.0%	6.9%	1.0%	.5%	
영화관: 한국영화 상영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사용 언어	수어 중심 사용	빈도	53	94	38	22	27
		%	22.6%	40.2%	16.2%	9.4%	11.5%
	구어 중심 사용	빈도	2	5	1	2	4
		%	14.3%	35.7%	7.1%	14.3%	28.6%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	빈도	26	63	27	13	15
		%	18.1%	43.8%	18.8%	9.0%	10.4%
전체	빈도	81	162	66	37	46	
	%	20.7%	41.3%	16.8%	9.4%	11.7%	
영화관: 외국영화 상영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사용 언어	수어 중심 사용	빈도	37	77	35	20	65
		%	15.8%	32.9%	15.0%	8.5%	27.8%
	구어 중심 사용	빈도	2	5	0	4	3
		%	14.3%	35.7%	.0%	28.6%	21.4%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	빈도	14	42	32	15	42
		%	9.7%	29.0%	22.1%	10.3%	29.0%
전체	빈도	53	124	67	39	110	
	%	13.5%	31.6%	17.0%	9.9%	28.0%	
동물원/식물원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사용 언어	수어 중심 사용	빈도	62	137	25	4	4
		%	26.7%	59.1%	10.8%	1.7%	1.7%
	구어 중심 사용	빈도	6	5	2	0	1
		%	42.9%	35.7%	14.3%	.0%	7.1%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	빈도	51	79	9	3	3
		%	35.2%	54.5%	6.2%	2.1%	2.1%
전체	빈도	119	221	36	7	8	
	%	30.4%	56.5%	9.2%	1.8%	2.0%	
종교시설: 청인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사용 언어	수어 중심 사용	빈도	144	41	7	2	28
		%	64.9%	18.5%	3.2%	.9%	12.6%
	구어 중심 사용	빈도	7	5	0	0	2
		%	50.0%	35.7%	.0%	.0%	14.3%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	빈도	72	39	7	1	24
		%	50.3%	27.3%	4.9%	.7%	16.8%
전체	빈도	223	85	14	3	54	
	%	58.8%	22.4%	3.7%	.8%	14.2%	
종교시설: 농인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사용 언어	수어 중심 사용	빈도	50	51	22	4	103
		%	21.7%	22.2%	9.6%	1.7%	44.8%
	구어 중심 사용	빈도	11	2	0	0	1
		%	78.6%	14.3%	.0%	.0%	7.1%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	빈도	49	39	9	2	46
		%	33.8%	26.9%	6.2%	1.4%	31.7%
전체	빈도	110	92	31	6	150	
	%	28.3%	23.7%	8.0%	1.5%	38.6%	

2) 문화시설별 필요한 지원(지원들 중 2가지에만 표시)

문화시설마다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은지 시설별로 2가지 지원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박물관과 미술관, 유적지, 체육시설, 유명 관광지, 공연장, 동물원/식물원, 청인 종교시설, 농인 종교시설에는 농인 수어해설가(통역사) 배치와 수화 통역사 배치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도서관의 경우, 수화 통역사 배치와 수어 동영상 제공을 많이 선택하였고, 한국 영화 상영 영화관의 경우 수화 통역사 배치와 문자 전광판 제공을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외국영화 상영 영화관의 경우, 쉬운 글 등 대체텍스트 제공과 문자 전광판 제공을 많이 선택하였다.

<표3-12> 문화시설별로 필요한 지원

		지원 방안								
		(a)	(b)	(c)	(d)	(e)	(f)	(g)	(h)	(i)
박물관	빈도	149	159	74	50	56	29	10	27	27
	%	45.2%	48.0%	22.4%	15.1%	16.9%	8.8%	3.0%	8.2%	8.2%
도서관	빈도	88	120	120	57	60	62	18	37	39
	%	26.7%	36.4%	36.4%	17.3%	18.2%	18.8%	5.5%	11.2%	11.8%
미술관	빈도	123	151	72	52	53	36	9	21	28
	%	37.3%	45.8%	21.8%	15.8%	16.1%	10.9%	2.7%	6.4%	8.5%
유적지	빈도	133	161	49	43	56	38	5	21	28
	%	40.3%	48.9%	14.9%	13.0%	17.0%	11.5%	1.5%	6.4%	8.5%
체육시설	빈도	81	189	29	30	72	45	21	42	55
	%	24.5%	57.3%	8.8%	9.1%	21.8%	13.6%	6.4%	12.7%	16.7%
유명 관광지	빈도	138	176	46	48	47	43	16	34	25
	%	41.8%	53.3%	13.9%	14.5%	14.2%	13.0%	4.9%	10.3%	7.6%
공연장	빈도	83	200	46	48	81	37	9	25	26
	%	25.2%	60.6%	13.9%	14.5%	24.5%	11.2%	2.7%	7.6%	7.9%
영화관: 한국영화	빈도	59	110	56	101	109	50	14	37	27
	%	17.8%	33.2%	16.9%	30.5%	32.9%	15.1%	4.2%	11.2%	8.2%
영화관: 외국영화	빈도	54	84	45	90	109	57	18	36	28
	%	16.4%	25.5%	13.7%	27.4%	33.1%	17.3%	5.5%	10.9%	8.5%
동물원/ 식물원	빈도	111	162	42	50	62	38	11	24	36
	%	33.7%	49.2%	12.8%	15.2%	18.8%	11.6%	3.3%	7.3%	10.9%
종교시설: 청인	빈도	77	212	40	40	59	22	22	21	21
	%	23.4%	64.4%	12.2%	12.2%	17.9%	6.7%	6.7%	6.4%	6.4%
종교시설: 농인	빈도	110	152	33	36	51	33	30	46	14
	%	33.4%	46.2%	10.0%	10.9%	15.5%	10.0%	9.1%	14.0%	4.3%

① 농인 수어 해설가 배치

② 수화통역사 배치

③ 수어 동영상 제공

- ㉔ 쉬운 글 등 대체텍스트 제공
- ㉕ 문자 전광판 제공
- ㉖ 홈페이지에 필요 정보 제공
- ㉗ 영상 전화기 등 정보접근기기 제공
- ㉘ 농인 전용 연락처(예, 문자, 카카오톡 아이디 등)
- ㉙ 장애인 전담 직원 배치

◎ 기타 의견

- 지원은 아니지만 가게나 커피숍에 가면 간단하게 주문할 수 있는 제스처를 동일하게 해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스타벅스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확장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 농인을 위한 모든 시설에서 더많은 시스템이 필요함
- 이동식 대필(한정된 곳뿐만 아니라 어딜가든 자막 및 대필 제공 받으면 편하게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음
- 영상 자막 제공
- 수시나 면접을 볼 때 필요한 자료나 문자수화통역사를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인 대상으로 농인 인식개선
- 영화 홈페이지에 자막 있는 한국영화를 단문받는 것을 원해요
- 여행지에 농인을 위한 시설 표시(예, 수통사, 해설사, 수화가능한 사람 유무 표시)
- 놀이기구에 수화통역사 필요해요
- 외국어일 때 수화통역할 때 영어->수어로 통역 지원했으면 좋겠다.
- 학교나 회사에도 수화통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병원 갈 때 수화통역사 있으면 좋겠다.
- 여러 사람(농인)이 10명 이상 참여하는 곳에 자막을 써 주거나 수화통역사 있으면 한다.
- 미술관, 박물관 경우 작품 밑에 반복적인 영상 같이 붙였으면 좋겠다.
- 방송국
- 공공기관에서 농인수어 해설가 확대함.
- 수어 동영상 - 체육시설 많이 필요함.
- 방송국
- 공연장에서 자막(대사, 가사 등)
- 문화교육
- 대형서점의 이벤트(팬사인회, 특강)

- 대중교통 이용 시 문화 전광판 제공했으면
- 학원(유도, 검도, 태권도 등)에서 수화통역사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 병원, 법정에 통역사 배치
- 각 기관마다 상주하는 통역사(청인)가 있었으면 합니다.
- 수화통역사(농, 청인)배치
- 한국영화는 꼭 자막지원하고, 배경음악, 소등 지원
- 속기사 지원이 필요합니다
- 스마트앱을 이용해서 문화시설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이 좋지만, 직원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기에 인식교육을 해야 한다. 사소한 일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다.
- 해당시설 비상상황시 필요한 시각경보기, 안내방송을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
- 병원, 은행, 일상에서 가장 많은 활동 공간에 통역사 배치
- 세미나, 수업, 학원 등 모두 수화통역사 배치
- 공중전화에 영상전화기 설치
- 특히 박람회 및 각 축전 때 농인 지원 서비스 지원 확대 필요
- KT 올레TV에서 제공하는 VOD 중 한국 드라마, 영화 등에 자막 제공이 필요합니다.
- 법원, 공공기관, 대형병원 등 수화통역사 배치
- 엑스포 등 큰 행사장소에 안내 겸 가이드가 있었으면 합니다.
- 전문적인 수화통역 제공이 필요함
- 문화 관람 1시간전 알리(LED)이 필요합니다.
- 정기적인 이메일 알림 서비스(정보)
- 문맹들은 수어나 그림 표현으로 제공해주시면 좋겠어요.
- TV에 전 화면 채널 모두 자막 및 통역제공
- 문화관광, 수화통역 필요함
- 한국영화에도 자막이 포함되면 좋겠음
- 비행기 항공이나 인천공항 수화통역사 필요함
- 전문적인 수화통역사 배치
- 태블릿을 통해 수화통역 및 잉하기 쉬운 자막 제공
- 직접적인 이해에 도움될 정보 및 콘텐츠 부족
- 농아인을 위해서 수화통역사 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반자 도우미
- 버스나 지하철, 기차, 비행기에 도착지를 알려주는 자막 전광판이 있었으면 합니다
- 농인과 청인 서로 수어와 수화가 좋아서 미래가 되었습니다.33
- 취미생활이나 교양문화단체에 화통역 필요
-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

- 뮤지컬 공연장 보러 갈 때 지원해 준 것 없어서 농인들이 많이 안 가봤다고 이야기들 많아졌다.
- 수화통역사 배치, 스마트폰에서 소리를 인식해서 문자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것
- 수화통역이 필요하다. 농인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필요해야 농인이 편안하다.
- 핸드폰 전화 문자통역
- 현재에 만족하는 중이고 한국영화 자막영상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영화(한국영화)에 대한 자막(이나 수어) 지원
- 문자 통역사-속기사지만 용도는 청각장애를 위한 속기사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 음식점에서 음식 주문 시
- 수화통역사와 문자통역사 두 명이 배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
- 양상 볼 때 밑에 자막이 있었으면 좋겠다(외국영화 볼 때 밑에 자막이 있는 것처럼)
- 공연, 영화, 등 문자이거나 수화 통역 필요하다.
- 필담. 위해서 펜 종이 필요
- 공항, 비행기 내에 수화통역, 자막(전광판) 안내 방송 서비스
- 수화통역사와 문장통역 꼭 필요하다.
- 영화관 : 한국영화 경우 자막지원 또는 전시회에 수화통역사 배치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음
- 한국영화 상영할 때 필수적으로 자막 나왔으면 합니다.
- 영화 온라인 예약할 때 장애인 고른 거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가능하면 장애인도 고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다.
- 스마트폰에 수화통역사 배치 앱을 설치하면 좋겠다.
- 불가능은 없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 자신이 참가하고 싶은 대회 할 때 수화통역지원 꼭 필요합니다.
- 상담수어통역사
- 글자막과 직접 수화통역자를 지원이 필요하다.
- 각각 든 시설에 수화 통역자를 있으면 좋겠어요.
- 세미나, 토론회, 북클럽 등 지식관련 인문학 강의를 하는 곳에서 문자통역이 있으면 좋겠다.
- 전문적이 속기사가 필요
- 지원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배움, 등
- 쉬운 단어가(이해하기 쉬운 책)들어가 있는 도서를 출판하면 좋겠다.
- 통역자 수화 잘해 주세요.
- 다양한 문화전달 해설. 수어자가 필요함
- 우체국 지원 필요함.
- 동호회

- 행사나 축제 때마다 수화통역사 배치 했으면 한다.
- 무학 농인을 위한 농인 통역사 필요
- 버스, 시간지연일 때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초조하다. 문자 전광판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 각 병원에 수화통역사 전문 필요하다.
- 버스, 지하철 안에서 정거장 이름 안내 전광판
- 국어(문장)이해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 한국영화 자막 제공 필요.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유적지 체육시설 등 모든 곳에 자막해설 필요
- 버스 안에 다음 버스 정류장을 알려주는 자막전광판을 만들어 주세요.
- 영상동영사 잘 봤는데
- 사진, 그림으로 된 설명
- 농인부부/농인자녀들이 관광지, 박물관, 동물원, 역사 등등 (체험:치즈체험, 키즈 직업체험 통역 없어 의사소통 불편 심각함. 문화, 체험, 정보 차이 큼)
- 홈페이지에 농인수어 해설가 배치 필요하다.
- 속기서비스 제공

3) 문화시설 이용 시 농인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50대의 경우 모르는 편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남녀 성별에 관계 없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거주지에 관계 없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모르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 언어가 구어 중심인 경우 모르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3-13> 현재 문화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인을 위한 서비스 인지 정도

		알고 있는 정도				
		아주 잘 알고 있다	아는 편이다	보통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연령	19세 이하	빈도 0	6	12	3	1
	%	.0%	27.3%	54.5%	13.6%	4.5%
	20-29세	빈도 3	31	46	24	6
	%	2.7%	28.2%	41.8%	21.8%	5.5%
	30-39세	빈도 4	15	61	33	10
	%	3.3%	12.2%	49.6%	26.8%	8.1%
	40-49세	빈도 2	22	37	18	6
	%	2.4%	25.9%	43.5%	21.2%	7.1%
	50세 이상	빈도 2	12	18	24	6
	%	3.2%	19.4%	29.0%	38.7%	9.7%
전체	빈도	11	86	174	102	29
	%	2.7%	21.4%	43.3%	25.4%	7.2%
성별	남성	빈도 7	34	68	38	14
	%	4.3%	21.1%	42.2%	23.6%	8.7%
	여성	빈도 2	39	71	50	8
	%	1.2%	22.9%	41.8%	29.4%	4.7%
전체	빈도	9	73	139	88	22
	%	2.7%	22.1%	42.0%	26.6%	6.6%
현재 거주지	특별시나 광역시	빈도 4	39	83	46	15
	%	2.1%	20.9%	44.4%	24.6%	8.0%
	중소도시	빈도 4	28	59	26	10
	%	3.1%	22.0%	46.5%	20.5%	7.9%
	읍면군	빈도 3	18	32	29	1
	%	3.6%	21.7%	38.6%	34.9%	1.2%
전체	빈도	11	85	174	101	26
	%	2.8%	21.4%	43.8%	25.4%	6.5%
최종	무학	빈도 0	1	2	5	1

		%	.0%	11.1%	22.2%	55.6%	11.1%
	초등학교	빈도	0	4	7	10	1
	졸업	%	.0%	18.2%	31.8%	45.5%	4.5%
	중학교	빈도	2	12	13	13	5
	졸업	%	4.4%	26.7%	28.9%	28.9%	11.1%
학력	고등학교	빈도	0	26	68	22	9
	졸업	%	.0%	20.8%	54.4%	17.6%	7.2%
	대학	빈도	4	16	39	20	6
	재학	%	4.7%	18.8%	45.9%	23.5%	7.1%
	대학	빈도	5	26	43	28	7
	졸업	%	4.6%	23.9%	39.4%	25.7%	6.4%
	전체	빈도	11	85	172	98	29
		%	2.8%	21.5%	43.5%	24.8%	7.3%
	수어 중심	빈도	6	50	105	56	
	사용	%	2.6%	21.5%	45.1%	24.0%	
	구어 중심	빈도	0	2	4	6	
	사용	%	.0%	14.3%	28.6%	42.9%	
사용 언어	수어와	빈도	5	31	61	38	
	구어 모두	%	3.4%	21.2%	41.8%	26.0%	
	사용	빈도	11	83	170	100	
	전체	%	2.8%	21.1%	43.3%	25.4%	

4)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전 농인을 위한 서비스 있는지 여부 확인 방법

10대는 가족, 친구, 지인을 통해 알아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은 알아보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녀 모두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읍면군이 현재 거주지인 경우, 알아보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지역인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농아인협회에 문의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 언어에 관계 없이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3-14> 농인을 위한 서비스 확인 방법

		확인 방법					
		(a)	(b)	(c)	(d)	(e)	
19세 이하	빈도	2	6	4	11	0	
	%	8.7%	26.1%	17.4%	47.8%	.0%	
20-29세	빈도	30	49	7	22	1	
	%	27.5%	45.0%	6.4%	20.2%	.9%	
연령 30-39세	빈도	29	46	24	22	2	
	%	23.6%	37.4%	19.5%	17.9%	1.6%	
40-49세	빈도	13	33	21	17	0	
	%	15.5%	39.3%	25.0%	20.2%	.0%	
50세 이상	빈도	20	12	17	10	2	
	%	32.8%	19.7%	27.9%	16.4%	3.3%	
전체	빈도	94	146	73	82	5	
	%	23.5%	36.5%	18.2%	20.5%	1.2%	
성별	남성	빈도	33	57	33	35	2
		%	20.6%	35.6%	20.6%	21.9%	1.2%
	여성	빈도	47	65	21	34	2
		%	27.8%	38.5%	12.4%	20.1%	1.2%
전체	빈도	80	122	54	69	4	
	%	24.3%	37.1%	16.4%	21.0%	1.2%	
현재 거주지	특별시나	빈도	37	79	29	40	2
	광역시	%	19.8%	42.2%	15.5%	21.4%	1.1%
	중소도시	빈도	29	44	24	28	1

		%	23.0%	34.9%	19.0%	22.2%	.8%
	읍면군	빈도	25	22	19	14	2
		%	30.5%	26.8%	23.2%	17.1%	2.4%
	전체	빈도	91	145	72	82	5
		%	23.0%	36.7%	18.2%	20.8%	1.3%
	무학	빈도	3	0	4	0	1
		%	37.5%	.0%	50.0%	.0%	12.5%
	초등학교	빈도	8	3	8	3	0
	졸업	%	36.4%	13.6%	36.4%	13.6%	.0%
	중학교	빈도	9	12	12	12	1
최종	졸업	%	19.6%	26.1%	26.1%	26.1%	2.2%
학력	고등학교	빈도	25	47	17	32	2
	졸업	%	20.3%	38.2%	13.8%	26.0%	1.6%
	대학 재학	빈도	21	37	10	17	1
		%	24.4%	43.0%	11.6%	19.8%	1.2%
	대학 졸업	빈도	27	46	19	16	0
		%	25.0%	42.6%	17.6%	14.8%	.0%
	전체	빈도	93	145	70	80	5
		%	23.7%	36.9%	17.8%	20.4%	1.3%
	수어 중심	빈도	58	70	47	53	3
	사용	%	25.1%	30.3%	20.3%	22.9%	1.3%
	구어 중심	빈도	3	5	1	4	1
	사용	%	21.4%	35.7%	7.1%	28.6%	7.1%
사용	수어와	빈도	30	69	21	25	1
언어	구어 모두	%	20.5%	47.3%	14.4%	17.1%	.7%
	사용	빈도	91	144	69	82	5
	전체	%	23.3%	36.8%	17.6%	21.0%	1.3%

- ㉠ 알아보지 않고 그냥 간다
 ㉡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본다
 ㉢ 농아인협회에 문의한다
 ㉣ 가족, 친구, 지인을 통해 알아본다
 ㉤ 기타 _____

◎ 기타 의견

- 광고
- 우연히

5) 농인에게 필요한 정보(예, 수화통역, 쉬운 글, 문자 통역/속기 등)의 적절한 제공 여부

대부분의 연령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0대의 경우 보통이다, 40대의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성은 그렇지 않다, 남성은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별시나 광역시, 읍면군이 현재 거주지인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학력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언어에 관계없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3-15> 농인에 필요한 정보의 적절한 제공 여부

		필요한 정보의 적절한 제공 여부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연령	19세	빈도	5	4	8	2	4
	이하	%	21.7%	17.4%	34.8%	8.7%	17.4%
	20-29세	빈도	13	23	25	31	19
		%	11.7%	20.7%	22.5%	27.9%	17.1%
	30-39세	빈도	20	22	31	32	19
		%	16.1%	17.7%	25.0%	25.8%	15.3%
	40-49세	빈도	9	28	20	22	6
		%	10.6%	32.9%	23.5%	25.9%	7.1%
	50세	빈도	3	12	8	23	15
	이상	%	4.9%	19.7%	13.1%	37.7%	24.6%
	전체	빈도	50	89	92	110	63
		%	12.4%	22.0%	22.8%	27.2%	15.6%
성별	남성	빈도	24	38	43	36	21
		%	14.8%	23.5%	26.5%	22.2%	13.0%
	여성	빈도	16	28	33	58	36
		%	9.4%	16.4%	19.3%	33.9%	21.1%
전체	빈도	40	66	76	94	57	
	%	12.0%	19.8%	22.8%	28.2%	17.1%	
현재 거주지	특별시나	빈도	21	35	47	58	28
	광역시	%	11.1%	18.5%	24.9%	30.7%	14.8%
	중소도시	빈도	19	36	27	31	14
		%	15.0%	28.3%	21.3%	24.4%	11.0%
	읍면군	빈도	9	17	18	21	18
		%	10.8%	20.5%	21.7%	25.3%	21.7%
전체	빈도	49	88	92	110	60	

		%	12.3%	22.1%	23.1%	27.6%	15.0%
	무학	빈도	0	2	1	3	3
		%	.0%	22.2%	11.1%	33.3%	33.3%
	초등학교	빈도	0	3	3	9	6
		%	.0%	14.3%	14.3%	42.9%	28.6%
	중학교	빈도	5	11	12	9	9
최종	졸업	%	10.9%	23.9%	26.1%	19.6%	19.6%
학력	고등학교	빈도	15	33	36	26	16
	졸업	%	11.9%	26.2%	28.6%	20.6%	12.7%
	대학	빈도	11	13	18	28	16
	재학	%	12.8%	15.1%	20.9%	32.6%	18.6%
	대학	빈도	17	24	21	34	13
	졸업	%	15.6%	22.0%	19.3%	31.2%	11.9%
	전체	빈도	48	86	91	109	63
		%	12.1%	21.7%	22.9%	27.5%	15.9%
	수어 중심	빈도	40	55	46	57	37
	사용	%	17.0%	23.4%	19.6%	24.3%	15.7%
사용	구어 중심	빈도	1	5	3	3	2
언어	사용	%	7.1%	35.7%	21.4%	21.4%	14.3%
	수어와	빈도	7	26	40	49	24
	구어 모두	%	4.8%	17.8%	27.4%	33.6%	16.4%
	사용						
	전체	빈도	48	86	89	109	63
		%	12.2%	21.8%	22.5%	27.6%	15.9%

6) 농인에게 필요한 정보접근기기(예, 영상전화기, 문자 전광판 등)의 적절한 제공 여부

농인에게 필요한 정보접근기기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10대의 경우 그렇다, 40대의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성의 경우 보통이다,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소도시의 경우 그렇다, 다른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력에 따라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 언어가 수어 중심이거나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구어 중심인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3-16> 농인에게 필요한 정보접근기기의 적절한 제공 여부

		필요한 정보접근기기의 적절한 제공 여부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연령	19세 이하	빈도 2 % 8.7%	8 34.8%	6 26.1%	3 13.0%	4 17.4%
	20-29세	빈도 11 % 9.9%	20 18.0%	29 26.1%	32 28.8%	19 17.1%
	30-39세	빈도 20 % 16.1%	22 17.7%	31 25.0%	32 25.8%	19 15.3%
	40-49세	빈도 6 % 7.1%	25 29.4%	26 30.6%	18 21.2%	10 11.8%
	50세 이상	빈도 6 % 10.0%	8 13.3%	10 16.7%	23 38.3%	13 21.7%
	전체	빈도 45 % 11.2%	83 20.6%	102 25.3%	108 26.8%	65 16.1%
성별	남성	빈도 22 % 13.6%	34 21.0%	49 30.2%	33 20.4%	24 14.8%
	여성	빈도 13 % 7.6%	28 16.5%	34 20.0%	64 37.6%	31 18.2%
	전체	빈도 35 % 10.5%	62 18.7%	83 25.0%	97 29.2%	55 16.6%
현재 거주지	특별시나 광역시	빈도 18 % 9.5%	29 15.3%	51 27.0%	55 29.1%	36 19.0%
	중소도시	빈도 20 % 15.7%	33 26.0%	28 22.0%	30 23.6%	16 12.6%
	읍면군	빈도 7 % 8.5%	21 25.6%	21 25.6%	23 28.0%	10 12.2%
	전체	빈도 45 % 11.3%	83 20.9%	100 25.1%	108 27.1%	62 15.6%
	무학	빈도 0 % .0%	1 11.1%	1 11.1%	4 44.4%	3 33.3%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빈도 2 % 9.5%	3 14.3%	3 14.3%	10 47.6%	3 14.3%
	중학교 졸업	빈도 7 % 15.6%	8 17.8%	10 22.2%	10 22.2%	10 22.2%
	고등학교 졸업	빈도 12 % 9.5%	34 27.0%	37 29.4%	25 19.8%	18 14.3%
	대학 재학	빈도 11 % 12.8%	13 15.1%	19 22.1%	28 32.6%	15 17.4%
	대학 졸업	빈도 12 % 11.0%	20 18.3%	30 27.5%	31 28.4%	16 14.7%
	전체	빈도 44 % 11.1%	79 19.9%	100 25.3%	108 27.3%	65 16.4%

사용 언어	수어 중심 빈도	34	53	54	58	35
	사용 %	14.5%	22.6%	23.1%	24.8%	15.0%
	구어 중심 빈도	0	4	6	2	2
	사용 %	.0%	28.6%	42.9%	14.3%	14.3%
	수어와 빈도	8	23	40	47	28
	구어 모두 사용 %	5.5%	15.8%	27.4%	32.2%	19.2%
전체	빈도	42	80	100	107	65
	%	10.7%	20.3%	25.4%	27.2%	16.5%

7) 문화시설의 홈페이지가 농인을 위한 온라인 정보접근 환경(예, 수어동영상, 쉬운 글 등) 제공 여부

문화시설 홈페이지에서 농인을 위한 온라인 정보접근 환경이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가 묻은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연령별로는 10대의 경우 그렇다, 20대는 그렇지 않다, 30-40대는 보통이다, 50대 이상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성은 보통이다 여성은 그렇지 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거주지가 특별시나 광역시인 경우 보통이다, 중소도시는 그렇다, 읍면군인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경우, 그렇다,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 언어가 구어 중심인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3-17> 홈페이지 접근환경의 적절성 여부

		홈페이지 온라인 접근환경의 적절성 여부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9세 이하	빈도	4	9	5	1	4
	%	17.4%	39.1%	21.7%	4.3%	17.4%
20-29세	빈도	14	23	25	30	19
	%	12.6%	20.7%	22.5%	27.0%	17.1%
연령 30-39세	빈도	14	26	34	28	22
	%	11.3%	21.0%	27.4%	22.6%	17.7%
40-49세	빈도	8	21	25	18	13
	%	9.4%	24.7%	29.4%	21.2%	15.3%
50세 이상	빈도	2	11	9	29	9
	%	3.3%	18.3%	15.0%	48.3%	15.0%

	전체	빈도	42	90	98	106	67	
		%	10.4%	22.3%	24.3%	26.3%	16.6%	
성별	남성	빈도	21	41	43	35	22	
		%	13.0%	25.3%	26.5%	21.6%	13.6%	
	여성	빈도	10	31	38	58	33	
		%	5.9%	18.2%	22.4%	34.1%	19.4%	
	전체	빈도	31	72	81	93	55	
		%	9.3%	21.7%	24.4%	28.0%	16.6%	
현재 거주지	특별시나 광역시	빈도	19	34	50	48	38	
		%	10.1%	18.0%	26.5%	25.4%	20.1%	
	중소도시	빈도	17	39	30	24	17	
		%	13.4%	30.7%	23.6%	18.9%	13.4%	
	읍면군	빈도	5	16	18	34	9	
		%	6.1%	19.5%	22.0%	41.5%	11.0%	
	전체	빈도	41	89	98	106	64	
		%	10.3%	22.4%	24.6%	26.6%	16.1%	
최종 학력	무학	빈도	0	0	1	6	2	
		%	.0%	.0%	11.1%	66.7%	22.2%	
	초등학교 졸업	빈도	0	3	4	12	2	
		%	.0%	14.3%	19.0%	57.1%	9.5%	
	중학교 졸업	빈도	4	14	9	11	8	
		%	8.7%	30.4%	19.6%	23.9%	17.4%	
	고등학교 졸업	빈도	14	33	36	23	19	
		%	11.2%	26.4%	28.8%	18.4%	15.2%	
	대학 재학	빈도	9	14	22	22	19	
		%	10.5%	16.3%	25.6%	25.6%	22.1%	
	대학 졸업	빈도	14	22	25	31	17	
		%	12.8%	20.2%	22.9%	28.4%	15.6%	
		전체	빈도	41	86	97	105	67
			%	10.4%	21.7%	24.5%	26.5%	16.9%
사용 언어	수어 중심 사용	빈도	34	56	50	57	37	
		%	14.5%	23.9%	21.4%	24.4%	15.8%	
	구어 중심 사용	빈도	1	2	5	4	2	
		%	7.1%	14.3%	35.7%	28.6%	14.3%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	빈도	5	28	41	44	28	
		%	3.4%	19.2%	28.1%	30.1%	19.2%	
	전체	빈도	40	86	96	105	67	
		%	10.2%	21.8%	24.4%	26.6%	17.0%	

8) 기존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기존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만족도를 어떠한지 물어본 결과, 대체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는 만족한다, 20-40대는 보통이다, 50대 이상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녀 모두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거주지가 읍면군인 경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지역의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 언어에 관계 없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3-18> 기본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기존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아주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연령	19세 이하	빈도 2 % 8.7%	10 43.5%	8 34.8%	3 13.0%	0 .0%	
	20-29세	빈도 9 % 8.1%	14 12.6%	53 47.7%	26 23.4%	9 8.1%	
	30-39세	빈도 7 % 5.7%	17 13.8%	50 40.7%	30 24.4%	19 15.4%	
	40-49세	빈도 1 % 1.2%	13 15.5%	42 50.0%	20 23.8%	8 9.5%	
	50세 이상	빈도 1 % 1.7%	9 15.0%	18 30.0%	28 46.7%	4 6.7%	
	전체	빈도 20 % 5.0%	63 15.7%	171 42.6%	107 26.7%	40 10.0%	
	성별	남성	빈도 13 % 8.0%	29 17.9%	65 40.1%	41 25.3%	14 8.6%
여성		빈도 5 % 3.0%	25 14.8%	71 42.0%	49 29.0%	19 11.2%	
전체		빈도 18 % 5.4%	54 16.3%	136 41.1%	90 27.2%	33 10.0%	
현재 거주지		특별시나 광역시	빈도 10 % 5.3%	28 14.9%	80 42.6%	50 26.6%	20 10.6%
	중소도시	빈도 7 % 5.6%	22 17.6%	59 47.2%	25 20.0%	12 9.6%	
	읍면군	빈도 2	12	31	32	6	

		%	2.4%	14.5%	37.3%	38.6%	7.2%
	전체	빈도	19	62	170	107	38
		%	4.8%	15.7%	42.9%	27.0%	9.6%
	무학	빈도	0	0	1	6	1
		%	.0%	.0%	12.5%	75.0%	12.5%
	초등학교	빈도	0	2	9	10	0
	졸업	%	.0%	9.5%	42.9%	47.6%	.0%
	중학교	빈도	1	14	17	11	3
최종	졸업	%	2.2%	30.4%	37.0%	23.9%	6.5%
학력	고등학교	빈도	7	22	52	30	14
	졸업	%	5.6%	17.6%	41.6%	24.0%	11.2%
	대학	빈도	6	6	43	18	13
	재학	%	7.0%	7.0%	50.0%	20.9%	15.1%
	대학	빈도	5	17	45	32	9
	졸업	%	4.6%	15.7%	41.7%	29.6%	8.3%
	전체	빈도	19	61	167	107	40
		%	4.8%	15.5%	42.4%	27.2%	10.2%
	수어 중심	빈도	16	41	87	63	26
	사용	%	6.9%	17.6%	37.3%	27.0%	11.2%
	구어 중심	빈도	1	2	9	2	0
	사용	%	7.1%	14.3%	64.3%	14.3%	.0%
사용	수어와	빈도	3	18	70	40	14
언어	구어 모두	%	2.1%	12.4%	48.3%	27.6%	9.7%
	사용						
	전체	빈도	20	61	166	105	40
		%	5.1%	15.6%	42.3%	26.8%	10.2%

9) 수화통역사가 배치된 문화시설 이용 경험 여부

수화통역사가 배치된 문화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58.4%).

연령별로는 10대와 40대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다른 연령대는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성별과 현재 거주지에 관계없이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최종 학력에 따라서는 무학, 중학교 졸업, 대학 재학인 경우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다른 경우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표3-19> 수화통역사 배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여부

			수화통역사 배치 문화시설 이용 경험 여부	
			예(있음)	아니오(없음)
연령	19세 이하	빈도	15	8
		%	65.2%	34.8%
	20-29세	빈도	43	68
		%	38.7%	61.3%
	30-39세	빈도	37	86
		%	30.1%	69.9%
40-49세	빈도	43	38	
	%	53.1%	46.9%	
	50세 이상	빈도	27	32
	%	45.8%	54.2%	
전체	빈도	165	232	
	%	41.6%	58.4%	
성별	남성	빈도	72	89
		%	44.7%	55.3%
	여성	빈도	66	103
		%	39.1%	60.9%
전체	빈도	138	192	
	%	41.8%	58.2%	
현재 거주지	특별시나 광역시	빈도	83	104
		%	44.4%	55.6%
	중소도시	빈도	47	78
		%	37.6%	62.4%
	읍면군	빈도	33	48
	%	40.7%	59.3%	
전체	빈도	163	230	
	%	41.5%	58.5%	
최종 학력	무학	빈도	6	3
		%	66.7%	33.3%
	초등학교 졸업	빈도	10	10
		%	50.0%	50.0%
	중학교 졸업	빈도	25	20
		%	55.6%	44.4%
	고등학교 졸업	빈도	48	74
		%	39.3%	60.7%
	대학 재학	빈도	43	42
		%	50.6%	49.4%
대학 졸업	빈도	28	81	
	%	25.7%	74.3%	
전체	빈도	160	230	
	%	41.0%	59.0%	
사용	수어 중심	빈도	97	131

	사용	%	42.5%	57.5%
	구어 중심	빈도	3	11
언어	사용	%	21.4%	78.6%
	수어와	빈도	60	86
	구어 모두	%	41.1%	58.9%
	사용	빈도	160	228
전체		%	41.2%	58.8%

10) 문화시설 배치 수화통역사 서비스의 불편한 점(다중응답)

문화시설에 배치된 수화통역사를 통해 정보접근 서비스를 제공 받았을 때, 대체로 사람이 많아 수어를 잘 보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사람이 많아 수어를 잘 보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40대의 경우, 수화통역사가 하는 수어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성별에 관계없이 사람이 많아 수어를 잘 보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거주지가 특별시나 광역시, 중소도시인 경우, 사람이 많아 수어를 잘 보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읍면군의 경우 수화통역사가 하는 수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많아 수어를 잘 보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무학 응답자들의 경우, 수화통역사가 하는 수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수어 중심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사람이 많아 수어를 잘 보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구어 중심으로 의사소통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수화통역사가 하는 수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3-20> 기존 문화시설 배치 수화통역 서비스의 불편 사항

		㉠	㉡	㉢	㉣
19세 이하	빈도	10	1	7	3
	%	43.5%	4.3%	30.4%	13.0%
20-29세	빈도	46	16	33	16
	%	43.8%	15.2%	31.4%	15.2%
30-39세	빈도	47	11	38	15
	%	40.5%	9.5%	32.8%	12.9%
40-49세	빈도	25	13	30	13
	%	29.8%	15.5%	35.7%	15.5%

	50세 이상	빈도	23	7	13	5
		%	44.2%	13.5%	25.0%	9.6%
	전체	빈도	151	48	121	52
		%	39.7%	12.6%	31.8%	13.7%
성별	남성	빈도	57	23	50	19
		%	36.3%	14.6%	31.8%	12.1%
	여성	빈도	70	20	47	21
		%	44.6%	12.7%	29.9%	13.4%
전체	빈도	127	43	97	40	
		%	40.4%	13.7%	30.9%	12.7%
현재 거주지	특별시나 광역시	빈도	78	23	60	23
		%	42.9%	12.6%	33.0%	12.6%
	중소도시	빈도	47	17	32	19
		%	39.2%	14.2%	26.7%	15.8%
	읍면군	빈도	25	6	28	9
		%	34.2%	8.2%	38.4%	12.3%
전체	빈도	150	46	120	51	
		%	40.0%	12.3%	32.0%	13.6%
최종 학력	무학	빈도	2	2	3	0
		%	25.0%	25.0%	37.5%	.0%
	초등학교 졸업	빈도	7	1	5	1
		%	43.8%	6.2%	31.2%	6.2%
	중학교 졸업	빈도	16	6	15	6
		%	36.4%	13.6%	34.1%	13.6%
	고등학교 졸업	빈도	50	22	48	8
		%	40.7%	17.9%	39.0%	6.5%
	대학 재학	빈도	34	8	27	13
		%	43.6%	10.3%	34.6%	16.7%
	대학 졸업	빈도	40	8	22	23
%		38.1%	7.6%	21.0%	21.9%	
전체	빈도	149	47	120	51	
		%	39.8%	12.6%	32.1%	13.6%
사용 언어	수어 중심 사용	빈도	92	25	75	30
		%	41.1%	11.2%	33.5%	13.4%
	구어 중심 사용	빈도	1	3	8	0
		%	7.7%	23.1%	61.5%	.0%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	빈도	54	18	35	22
		%	40.3%	13.4%	26.1%	16.4%
	전체	빈도	147	46	118	52
		%	39.6%	12.4%	31.8%	14.0%

- ㉔ 사람이 많아 수어를 잘 보기 어렵다
 ㉕ 설명이 너무 빠르다
 ㉖ 수화통역사가 하는 수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㉗ 기타 _____

◎ 기타 의견

- 집중이 좀 안된다
- 상황에 따라 수어가 안통할 때
- 수어라는 자체가 급수(초급, 중급, 상급)에 따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 사투리 수어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 설명 중 생략된 내용이 많다.
- 수화통역사가 부족하다. 시간 조절 어려움에 있음
- 수화통역사 배치 날짜가 제한되어있다
- 수화통역사가 통역 중일 때 조명이 꺼지면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음
-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통역서비스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
- 문화시설에 배치 없음.
- 24시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
- 잘 안 보여서 맨 앞자리 배치
- 말과 수어를 사용치 말고, 수어를 빠르지 말고, 농인처럼 수어마다 확정 후에 수어 사용함
- 배치되어 있는지 몰랐음
- 수화실력이 형편없어서 보기 답답하다.
- 수화통역사 잘 못하는 수화인으로 이해 안하고 수화통역사 잘 하는 수화로 이해함
- 수화통역사가 배치하지 않아서 그냥 보니까 불편해요.
- 수화통역사가 수화조금 못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
- 수화통역사 능력에 따라 다름 1과 같이 적절한 장소에 정해서 통역했으면
- 수화통역사 배치가 없기 때문
- 농아인 전당 직원 배치를 못봤다.
- 공공시설마다 수화통역 배치 및 원격 영상필요

11) 농인 수어해설가가 문화시설을 수어로 설명할 때 해설 방법

농인 수어해설가 문화시설을 수어로 설명할 때는 연령, 성별, 현재 거주지, 최종 학력,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한국수어로 해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3-21> 문화시설 해설 방법

			설명 방법		
			한국수어로 해설	유사수어체계 (문장식 수어)로 해설	기타
연령	19세 이하	빈도	20	3	0
		%	87.0%	13.0%	.0%
	20-29세	빈도	89	15	3
		%	83.2%	14.0%	2.8%
	30-39세	빈도	97	10	8
		%	84.3%	8.7%	7.0%
	40-49세	빈도	63	17	4
		%	75.0%	20.2%	4.8%
	50세 이상	빈도	43	10	2
		%	78.2%	18.2%	3.6%
	전체	빈도	312	55	17
		%	81.2%	14.3%	4.4%
성별	남성	빈도	136	18	3
		%	86.6%	11.5%	1.9%
	여성	빈도	122	26	10
		%	77.2%	16.5%	6.3%
	전체	빈도	258	44	13
		%	81.9%	14.0%	4.1%
현재 거주지	특별시나 광역시	빈도	149	23	9
		%	82.3%	12.7%	5.0%
	중소도시	빈도	99	17	5
		%	81.8%	14.0%	4.1%
	읍면군	빈도	59	15	3
		%	76.6%	19.5%	3.9%
	전체	빈도	307	55	17
		%	81.0%	14.5%	4.5%
최종 학력	무학	빈도	5	3	0
		%	62.5%	37.5%	.0%
	초등학교 졸업	빈도	17	3	0
		%	85.0%	15.0%	.0%
	중학교 졸업	빈도	35	8	1
		%	79.5%	18.2%	2.3%
	고등학교 졸업	빈도	105	10	6
		%	86.8%	8.3%	5.0%

	대학 재학	빈도	63	13	4
		%	78.8%	16.2%	5.0%
	대학 졸업	빈도	81	17	6
		%	77.9%	16.3%	5.8%
	전체	빈도	306	54	17
		%	81.2%	14.3%	4.5%
	수어 중심	빈도	190	25	10
	사용	%	84.4%	11.1%	4.4%
사용	구어 중심	빈도	10	2	1
언어	사용	%	76.9%	15.4%	7.7%
	수어와 구어	빈도	106	25	6
	모두 사용	%	77.4%	18.2%	4.4%
	전체	빈도	306	52	17
		%	81.6%	13.9%	4.5%

◎ 기타 의견

- 농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식 수화로 해주었으면 좋겠다.(53)
- 한국수어와 문장식 수어로 모두 해설
- 두 가지 모두
- 대상에 따라, 수준별로, 눈높이 맞춰 해설
- 사진을 제시 수어로 자세한 설명을 원함
- 두 가지 모두

12) 농인을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더 자주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

응답자들은 문화시설에서 농인을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아래 문화시설 모두 앞으로 더 자주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앞으로 더 자주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높은 문화시설은 유명 관광지,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박물관, 체육시설, 유적지,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공연장, 동물원/식물원, 미술관, 농인을 위한 종교시설, 도서관, 청인 종교시설 순이었다.

<표3-22> 더 자주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

		이용 의사	
		앞으로 더 자주 이용	이용하지 않겠음
박물관	빈도	273	42
	%	86.7%	13.3%
도서관	빈도	223	84

	%	72.6%	27.4%
미술관	빈도	243	71
	%	77.4%	22.6%
유적지	빈도	264	49
	%	84.3%	15.7%
체육시설	빈도	263	48
	%	84.6%	15.4%
유명 관광지	빈도	300	21
	%	93.5%	6.5%
공연장	빈도	254	57
	%	81.7%	18.3%
영화관: 한국영화 상영	빈도	293	25
	%	92.1%	7.9%
영화관: 외국영화 상영	빈도	255	51
	%	83.3%	16.7%
동물원/식물원	빈도	238	69
	%	77.5%	22.5%
종교시설: 청인	빈도	193	109
	%	63.9%	36.1%
종교시설: 농인	빈도	237	71
	%	76.9%	23.1%

◎ 기타 의견

- 강연
- 각종 축제

13)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

① 1순위로 응답한 문화시설만을 가지고 처리한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을 3개만 고르도록 했을 때, 1순위로 선택한 문화시설은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유명 관광지, 체육시설,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유적지, 도서관,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기타문화시설, 청인 종교시설, 동물원/식물원, 농인 종교시설 순이었다.

<표3-23>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1순위)

박 물	도 서	미 술	유 적	유 체 육	유 명 관 광	공 연 관(한 관(외	영 화 관(외 원	영 화 관(외 원	동 물 원	종 교 시 설	종 교 시 설	기 타 문 화
--------	--------	--------	--------	-------------	------------------	----------------------	--------------------	--------------------	-------------	------------------	------------------	------------------

		관 관 관 지						지 장		국영 (화)	국영 (화)	(청 물원)	(농 인)	시설
연령	19 빈도	1	1	0	0	6	1	2	7	4	0	0	0	0
	이 %	4.5%	4.5%	.0%	.0%	27.3%	4.5%	9.1%	31.8%	18.2%	.0%	.0%	.0%	.0%
	하 빈도	6	4	8	3	15	16	15	35	1	1	2	0	0
	대 %	5.7%	3.8%	7.5%	2.8%	14.2%	15.1%	14.2%	33.0%	.9%	.9%	1.9%	.0%	.0%
	30 빈도	29	5	6	7	17	14	14	20	2	1	1	0	3
	대 %	24.4%	4.2%	5.0%	5.9%	14.3%	11.8%	11.8%	16.8%	1.7%	.8%	.8%	.0%	2.5%
	40 빈도	11	3	4	3	8	19	4	15	3	1	1	2	1
	대 %	14.7%	4.0%	5.3%	4.0%	10.7%	25.3%	5.3%	20.0%	4.0%	1.3%	1.3%	2.7%	1.3%
	50 빈도	4	4	1	9	7	13	5	4	0	0	0	1	0
	세 이 상 %	8.3%	8.3%	2.1%	18.8%	14.6%	27.1%	10.4%	8.3%	.0%	.0%	.0%	2.1%	.0%
전체 빈도	51	17	19	22	53	63	40	81	10	3	4	3	4	
%	13.8%	4.6%	5.1%	5.9%	14.3%	17.0%	10.8%	21.9%	2.7%	.8%	1.1%	.8%	1.1%	
성별	남 빈도	18	9	5	6	30	25	11	29	3	2	3	1	1
	%	12.6%	6.3%	3.5%	4.2%	21.0%	17.5%	7.7%	20.3%	2.1%	1.4%	2.1%	.7%	.7%
	여 빈도	22	5	13	9	15	29	22	41	3	0	0	1	3
%	13.5%	3.1%	8.0%	5.5%	9.2%	17.8%	13.5%	25.2%	1.8%	.0%	.0%	.6%	1.8%	
전체 빈도	40	14	18	15	45	54	33	70	6	2	3	2	4	
%	13.1%	4.6%	5.9%	4.9%	14.7%	17.6%	10.8%	22.9%	2.0%	.7%	1.0%	.7%	1.3%	
현재 거주지	특별시 빈도	22	12	13	6	22	25	20	43	7	1	2	3	4
	나 광역시 %	12.2%	6.7%	7.2%	3.3%	12.2%	13.9%	11.1%	23.9%	3.9%	.6%	1.1%	1.7%	2.2%
	중 소도시 빈도	17	4	2	8	20	24	9	24	3	2	1	0	0
	%	14.9%	3.5%	1.8%	7.0%	17.5%	21.1%	7.9%	21.1%	2.6%	1.8%	.9%	.0%	.0%
	읍면군 빈도	11	1	3	8	11	14	9	14	0	0	1	0	0
%	15.3%	1.4%	4.2%	11.1%	15.3%	19.4%	12.5%	19.4%	.0%	.0%	1.4%	.0%	.0%	

전체	빈도	50	17	18	22	53	63	38	81	10	3	4	3	4
	%	13.7%	4.6%	4.9%	6.0%	14.5%	17.2%	10.4%	22.1%	2.7%	.8%	1.1%	.8%	1.1%
무학	빈도	1	1	0	0	0	4	0	1	0	0	0	0	0
	%	14.3%	14.3%	.0%	.0%	.0%	57.1%	.0%	14.3%	.0%	.0%	.0%	.0%	.0%
초등학교졸업	빈도	0	0	0	5	1	4	4	4	0	0	0	0	0
	%	.0%	.0%	.0%	27.8%	5.6%	22.2%	22.2%	22.2%	.0%	.0%	.0%	.0%	.0%
중학교졸업	빈도	5	2	0	4	11	3	3	9	3	0	0	3	0
	%	11.6%	4.7%	.0%	9.3%	25.6%	7.0%	7.0%	20.9%	7.0%	.0%	.0%	7.0%	.0%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	빈도	15	9	4	6	8	14	13	33	4	1	2	0	0
	%	13.8%	8.3%	3.7%	5.5%	7.3%	12.8%	11.9%	30.3%	3.7%	.9%	1.8%	.0%	.0%
대학재학	빈도	7	3	6	2	16	16	13	14	2	2	0	0	1
	%	8.5%	3.7%	7.3%	2.4%	19.5%	19.5%	15.9%	17.1%	2.4%	2.4%	.0%	.0%	1.2%
대학졸업	빈도	23	2	8	5	16	20	7	18	1	0	2	0	3
	%	21.9%	1.9%	7.6%	4.8%	15.2%	19.0%	6.7%	17.1%	1.0%	.0%	1.9%	.0%	2.9%
전체	빈도	51	17	18	22	52	61	40	79	10	3	4	3	4
	%	14.0%	4.7%	4.9%	6.0%	14.3%	16.8%	11.0%	21.7%	2.7%	.8%	1.1%	.8%	1.1%
수업 사용언어	빈도	31	8	8	18	34	37	16	46	6	2	1	2	1
	%	14.8%	3.8%	3.8%	8.6%	16.2%	17.6%	7.6%	21.9%	2.9%	1.0%	.5%	1.0%	.5%
구	빈	0	1	0	0	2	2	4	2	0	0	1	0	0

어 중 심 사 용 수 어 와 구 어 모 두 사 용	도													
	%	.0%	8.3%	.0%	.0%	16.7%	16.7%	33.3%	16.7%	.0%	.0%	8.3%	.0%	.0%
빈 도	빈도	18	8	11	3	16	23	20	32	3	1	2	0	3
	%	12.9%	5.7%	7.9%	2.1%	11.4%	16.4%	14.3%	22.9%	2.1%	.7%	1.4%	.0%	2.1%
전 체	빈도	49	17	19	21	52	62	40	80	9	3	4	2	4
	%	13.5%	4.7%	5.2%	5.8%	14.4%	17.1%	11.0%	22.1%	2.5%	.8%	1.1%	.6%	1.1%

② 2순위로 선택한 문화시설만을 처리한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을 3개만 고르도록 했을 때, 2순위로 선택한 문화시설은 유명 관광지, 박물관,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 유적지, 체육시설, 공연장, 미술관, 도서관, 외국영화 상영 영화관, 동물원/식물원, 청인 종교시설, 농인 종교시설 순이었다.

③ 3순위로 선택한 문화시설만을 처리한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을 3개만 고르도록 했을 때, 3순위로 선택한 문화시설은 유명 관광지, 박물관, 공연장, 유적지,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 미술관, 체육시설, 도서관, 동물원/식물원, 외국영화 상영 영화관, 청인 종교시설, 농인 종교시설 순이었다.

④ 문화시설들 중 3가지를 선택한 결과를 다중선택으로 처리한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고른 결과를 3가지 선택한 다중선택 결과로 처리한 결과, 유명 관광지, 박물관,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유적지, 미술관, 도서관, 외국영화 상영 영화관, 동물원/식물원,

청인 종교시설, 농인 종교시설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 성별, 현재 거주지별, 최종 학력, 사용 학력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연령의 경우, 10대는 체육시설, 20대는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 30대는 박물관, 40대와 50대 이상은 유명 관광지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녀 모두 성별에 관계없이 유명 관광지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거주지의 경우,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 중소도시와 읍면군의 경우 유명 관광지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유명 관광지,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 대학 재학 중인 경우 유명 관광지, 대학 졸업인 경우 박물관과 유명 관광지를 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 언어에 딸서는 수어 중심인 경우 유명 관광지, 구어 중심인 경우 공연장,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하는 경우 유명 관광지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3-24>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3가지 다중선택 처리)

		박 물 관	도 서 관	미 술 관	유 적 지	유 체 육 시 설	유 명 관 광 지	공 공 장	영화	영화	종교 시설 (청 인)	종교 시설 (농 인)	기타 문화 시설	
									관(한 국영 화)	관(외 국영 화)				
연 령	19 세 이 하	빈도 9	4	3	1	10	6	9	13	5	0	1	0	2
	%	40.9%	18.2%	13.6%	4.5%	45.5%	27.3%	40.9%	59.1%	22.7%	.0%	4.5%	.0%	9.1%
	20 대	빈도 40	17	30	25	26	42	48	61	5	5	7	5	2
	%	37.7%	16.0%	28.3%	23.6%	24.5%	39.6%	45.3%	57.5%	4.7%	4.7%	6.6%	4.7%	1.9%
	30 대	빈도 65	15	22	32	41	64	33	44	9	11	2	3	6
	%	54.2%	12.5%	18.3%	26.7%	34.2%	53.3%	27.5%	36.7%	7.5%	9.2%	1.7%	2.5%	5.0%
40 대	빈도 36	10	12	23	24	46	16	29	6	9	4	3	3	
%	48.0%	13.3%	16.0%	30.7%	32.0%	61.3%	21.3%	38.7%	8.0%	12.0%	5.3%	4.0%	4.0%	
50 세 이 상	빈도 15	8	4	20	17	31	17	12	4	2	4	6	0	
%	31.2%	16.7%	8.3%	41.7%	35.4%	64.6%	35.4%	25.0%	8.3%	4.2%	8.3%	12.5%	.0%	
전 체	빈도 165	54	71	101	118	189	123	159	29	27	18	17	13	
성 별	남 성	빈도 64	26	24	35	57	71	33	70	15	8	8	7	6
	%	44.4%	18.1%	16.7%	24.3%	39.6%	49.3%	22.9%	48.6%	10.4%	5.6%	5.6%	4.9%	4.2%

여성	빈도	71	15	40	44	39	90	77	66	8	12	5	2	7	
	%	43.6%	9.2%	24.5%	27.0%	23.9%	55.2%	47.2%	40.5%	4.9%	7.4%	3.1%	1.2%	4.3%	
전체	빈도	135	41	64	79	96	161	110	136	23	20	13	9	13	
현재거주지	특별시	빈도	78	31	42	36	53	81	62	87	19	12	7	10	8
	나광역시	%	43.1%	17.1%	23.2%	19.9%	29.3%	44.8%	34.3%	48.1%	10.5%	6.6%	3.9%	5.5%	4.4%
	중소도시	빈도	54	15	16	31	43	62	31	48	4	9	7	6	4
	읍면군	%	47.4%	13.2%	14.0%	27.2%	37.7%	54.4%	27.2%	42.1%	3.5%	7.9%	6.1%	5.3%	3.5%
	전체	빈도	164	54	69	99	118	187	120	158	29	27	17	17	13
	무학	빈도	1	2	1	3	2	4	2	3	0	1	1	1	0
	초등학교	%	14.3%	28.6%	14.3%	42.9%	28.6%	57.1%	28.6%	42.9%	.0%	14.3%	14.3%	14.3%	.0%
	중학교	빈도	5	1	1	7	5	13	9	4	1	1	1	2	1
	고등학교	%	27.8%	5.6%	5.6%	38.9%	27.8%	72.2%	50.0%	22.2%	5.6%	5.6%	5.6%	11.1%	5.6%
	대학재	빈도	17	7	3	9	19	22	13	20	7	0	2	5	1
최종학력	%	39.5%	16.3%	7.0%	20.9%	44.2%	51.2%	30.2%	46.5%	16.3%	.0%	4.7%	11.6%	2.3%	
고졸	빈도	44	21	22	18	30	47	35	58	13	12	9	6	5	
고졸	%	40.4%	19.3%	20.2%	16.5%	27.5%	43.1%	32.1%	53.2%	11.9%	11.0%	8.3%	5.5%	4.6%	
대학재	빈도	35	11	17	28	27	40	34	36	4	4	1	1	1	
대학재	%	42.7%	13.4%	20.7%	34.1%	32.9%	48.8%	41.5%	43.9%	4.9%	4.9%	1.2%	1.2%	1.2%	

학 대 학 졸 업	빈도	60	12	26	34	32	60	30	35	4	8	4	2	3
	%	56.6%	11.3%	24.5%	32.1%	30.2%	56.6%	28.3%	33.0%	3.8%	7.5%	3.8%	1.9%	2.8%
전체	빈도	162	54	70	99	115	186	123	156	29	26	18	17	11
수어 중심 사용	빈도	98	29	29	66	72	114	61	90	15	19	11	10	5
	%	46.4%	13.7%	13.7%	31.3%	34.1%	54.0%	28.9%	42.7%	7.1%	9.0%	5.2%	4.7%	2.4%
사 용 언 어	빈도	3	1	2	4	4	4	6	5	2	1	1	1	2
	%	25.0%	8.3%	16.7%	33.3%	33.3%	33.3%	50.0%	41.7%	16.7%	8.3%	8.3%	8.3%	16.7%
수어 와 구어 모두 사용	빈도	59	23	40	28	39	66	55	63	10	7	6	4	5
	%	42.1%	16.4%	28.6%	20.0%	27.9%	47.1%	39.1%	45.0%	7.1%	5.0%	4.3%	2.9%	3.6%
전체	빈도	160	53	71	98	115	184	122	158	27	27	18	15	12

⑤ 3순위까지 선택한 결과에 순위별 가중치를 두어 처리한 결과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다고 우선순위를 두어 답한 응답들 중 1순위 응답 빈도에 3배, 2순위 응답 빈도에 2배, 3순위 응답 빈도에 1배의 가중치를 두어 합산하고 다중응답 처리한 결과,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어하는 문화시설은 유명 관광지,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 박물관, 체육시설, 공연장, 유적지, 미술관, 도서관, 외국영화 상영 영화관, 동물원/식물원, 청인 종교시설, 농인 종교시설 순이었다.

이를 연령별, 성별, 현재 거주지별, 최종 학력, 사용 학력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10대와 20대의 경우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을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30대는 박물관, 40대와 50대 이상은 유명 관광지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을, 여성의 경우 유명 관광지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거주지에 따라, 특별시나 광역시는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을, 다른 지역의 경우 유명 관광지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는 유명 관광지를, 중학교 졸업의 경우 체육시설,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을, 대학 재학 중인 경우 유명 관광지를, 대학 졸업인 경우 박물관을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 언어에 따라서는 구어 중심인 경우 공연장, 수어 중심이거나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하는 경우 유명 관광지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3-25> 가장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순위별 가중 처리 결과)

	박 물 관	도 서 관	미 술 관	유 적 지	체 육 시 설	유 명 관 광 지	공 연 장	영 화 관(한 국영 화)	영 화 관(외 국영 화)	동 물 원 식 물 원	종 교 시 설(청 인)	종 교 시 설(농 인)	기 타 문 화 시 설
연령													
19 세 이 하	14	7	4	1	24	10	19	31	13	0	2	0	3
빈 도	10.9%	5.5%	3.1%	.8%	18.8%	7.8%	14.8%	24.2%	10.2%	.0%	1.6%	.0%	2.3%
20 대	68	30	62	43	62	82	94	148	10	8	13	7	3
빈 도	10.8%	4.8%	9.8%	6.8%	9.8%	13.0%	14.9%	23.5%	1.6%	1.3%	2.1%	1.1%	.5%
30 대	143	30	43	58	91	115	71	94	18	16	4	4	15

도	대	20.4	4.3	6.1	8.3	13.0	16.4	10.1	13.4	2.6%	2.3	.6%	.6%	2.1%
	%	%	%	%	%	%	%	%	%	%	%	%	%	%
40	빈	69	21	21	40	48	103	28	65	15	15	7	8	5
	대	15.5	4.7	4.7	9.0	10.8	23.1	6.3	14.6	3.4%	3.4	1.6%	1.8%	1.1%
50	빈	29	18	8	45	38	70	28	25	5	3	6	8	0
	세	10.2	6.4	2.8	15.9	13.4	24.7	9.9	8.8%	1.8%	1.1	2.1%	2.8%	.0%
이	상	10.2	6.4	2.8	15.9	13.4	24.7	9.9	8.8%	1.8%	1.1	2.1%	2.8%	.0%
	%	%	%	%	%	%	%	%	%	%	%	%	%	%
전	빈	323	106	138	187	263	380	240	363	61	42	32	27	26
	체													
성	빈	122	51	41	63	136	142	68	151	27	15	16	11	9
	남	14.3	6.0	4.8	7.4	16.0	16.7	8.0	17.7	3.2%	1.8	1.9%	1.3%	1.1%
성	빈	141	30	85	79	83	180	140	161	18	16	8	4	17
	여	14.7	3.1	8.8	8.2	8.6	18.7	14.6	16.7	1.9%	1.7	.8%	.4%	1.8%
전	빈	263	81	126	142	219	322	208	312	45	31	24	15	26
	체													
현	빈	152	66	84	63	120	153	123	198	40	18	12	17	17
	특	14.3	6.2	7.9	5.9	11.3	14.4	11.6	18.6	3.8%	1.7	1.1%	1.6%	1.6%
재	빈	102	28	28	61	94	132	62	107	11	16	12	9	7
	거	15.2	4.2	4.2	9.1	14.1	19.7	9.3	16.0	1.6%	2.4	1.8%	1.3%	1.0%
주	빈	66	12	22	61	49	91	48	56	10	8	6	1	2
	지	15.3	2.8	5.1	14.1	11.3	21.1	11.1	13.0	2.3%	1.9	1.4%	.2%	.5%
읍	빈	66	12	22	61	49	91	48	56	10	8	6	1	2
	면	15.3	2.8	5.1	14.1	11.3	21.1	11.1	13.0	2.3%	1.9	1.4%	.2%	.5%
전	빈	320	106	134	185	263	376	233	361	61	42	30	27	26
	체													

최종학력	빈도	3	5	2	6	2	12	2	7	0	1	1	1	0
	무학 %	7.1 %	11.9 %	4.8 %	14.3 %	4.8 %	28.6 %	4.8 %	16.7 %	.0%	2.4 %	2.4%	2.4%	.0%
	빈도	6	1	1	19	11	28	18	12	1	2	2	2	1
	초등교육졸업 %	5.8 %	1.0 %	1.0 %	18.3 %	10.6 %	26.9 %	17.3 %	11.5 %	1.0%	1.9 %	1.9%	1.9%	1.0%
	빈도	34	14	5	18	46	38	23	44	15	0	4	11	1
	중등교육졸업 %	13.4 %	5.5 %	2.0 %	7.1 %	18.2 %	15.0 %	9.1 %	17.4 %	5.9%	.0%	1.6%	4.3%	.4%
	빈도	91	45	37	33	58	92	72	140	28	17	14	8	9
	고등교육졸업 %	14.1 %	7.0 %	5.7 %	5.1 %	9.0 %	14.3 %	11.2 %	21.7 %	4.3%	2.6 %	2.2%	1.2%	1.4%
	빈도	63	21	36	46	68	84	69	74	9	9	2	1	3
	대학재학 %	13.0 %	4.3 %	7.4 %	9.5 %	14.0 %	17.3 %	14.2 %	15.3 %	1.9%	1.9 %	.4%	.2%	.6%
	빈도	121	20	54	62	72	118	56	79	8	12	9	4	9
	대학졸업 %	19.4 %	3.2 %	8.7 %	9.9 %	11.5 %	18.9 %	9.0 %	12.7 %	1.3%	1.9 %	1.4%	.6%	1.4%
	전체 빈도	318	106	135	184	257	372	240	356	61	41	32	27	23
	사용언어	수어 빈도	191	55	54	127	161	236	112	205	33	30	17	16
중심사용언어 %		15.3 %	4.4 %	4.3 %	10.2 %	12.9 %	18.9 %	9.0 %	16.4 %	2.6%	2.4 %	1.4%	1.3%	.8%
구어 빈도		5	3	3	6	9	8	15	12	3	1	3	2	2
중 %	6.9 %	4.2 %	4.2 %	8.3 %	12.5 %	11.1 %	20.8 %	16.7 %	4.2%	1.4 %	4.2%	2.8%	2.8%	

심사 용수 빈도	%	%	%	%	%	%	%	%	%	%	%	%	%
어도	117	46	81	48	87	126	112	143	21	11	12	4	13
와 구 어 모 두 사 용 빈도	14.3 %	5.6 %	9.9 %	5.8 %	10.6 %	15.3 %	13.6 %	17.4 %	2.6%	1.3 %	1.5%	.5%	1.6%
전체 빈도	313	104	138	181	257	370	239	360	57	42	32	22	25

14)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지원 정보 얻는 방법(다중응답)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원 정보를 어떻게 얻기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체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0-30대는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은 농아인협회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녀 모두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거주지 관계없이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농아인협회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는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3-26> 문화시설 이용 지원 정보 얻는 방법

			(a)	(b)	(c)	(d)
19세 이하	빈도		10	7	7	0
	%		43.5%	30.4%	30.4%	.0%
20-29세	빈도		63	28	26	3
	%		57.8%	25.7%	23.9%	2.8%
연령 30-39세	빈도		73	38	18	4
	%		58.9%	30.6%	14.5%	3.3%
40-49세	빈도		30	38	13	1
	%		35.7%	45.2%	15.5%	1.2%
50세 이상	빈도		15	26	18	1
	%		25.4%	44.1%	30.5%	1.7%
전체	빈도		191	137	82	9
	%		47.9%	34.3%	20.6%	2.3%
성별	남성	빈도	70	48	43	4
		%	43.8%	30.0%	26.9%	2.5%
	여성	빈도	92	55	28	4
		%	54.8%	32.7%	16.7%	2.4%
전체	빈도	162	103	71	8	
	%	49.4%	31.4%	21.6%	2.4%	
현재 거주지	특별시나 광역시	빈도	94	56	39	7
		%	50.3%	29.9%	20.9%	3.7%
	중소도시	빈도	59	53	21	1
		%	46.8%	42.1%	16.7%	.8%
	읍면군	빈도	34	27	22	1
		%	42.0%	33.3%	27.2%	1.2%
	전체	빈도	187	136	82	9
		%	47.5%	34.5%	20.8%	2.3%
최종 학력	무학	빈도	0	5	4	0
		%	.0%	55.6%	44.4%	.0%
	초등학교 졸업	빈도	6	9	8	0
		%	30.0%	45.0%	40.0%	.0%
	중학교 졸업	빈도	13	17	14	1
		%	28.9%	37.8%	31.1%	2.2%
	고등학교 졸업	빈도	52	52	28	2
		%	42.3%	42.3%	22.8%	1.6%
	대학 재학	빈도	50	22	14	5
		%	58.1%	25.6%	16.3%	5.8%
	대학 졸업	빈도	66	30	13	1
		%	60.6%	27.5%	11.9%	.9%
	전체	빈도	187	135	81	9
		%	47.7%	34.4%	20.7%	2.3%
사용	수어 중심	빈도	89	87	54	6

언어	사용	%	38.5%	37.7%	23.4%	2.6%
	구어 중심	빈도	12	0	2	0
	사용	%	85.7%	.0%	14.3%	.0%
	수어와	빈도	89	41	26	3
	구어 모두	%	61.4%	28.3%	17.9%	2.1%
	사용					
전체	빈도		190	128	82	9
	%		48.7%	32.8%	21.0%	2.3%

- ④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⑤ 농아인협회를 통해
 ⑥ 수화통역사나 통신중계서비스(TRS)를 통해
 ⑦ 기타 _____

◎ 기타 의견

- 다 받고 싶음
- 다 받고 싶음
- 문자나 SNS를 통해 제공 받기 원함
- 농인을 위한 문화시설 관련 앱을 개발해서 농인을 위한 시설현황 파악, 수화통역 유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면(관광지, 유적지 등 카테고리 구별)
- 스마트폰 어플로
- 농인들이 자주 애용하는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톡스토리 통해 정보가 늦지 않게 받았으면 합니다.
- 문화시설에 배치되는 수화통역사로부터
- 문자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

3.1.2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문화정보 욕구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문화정보 욕구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를 범주로 분류하고 각 범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3-27>과 같다.

<표3-27>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문화정보 욕구 FGI 분석 결과

범주	주요 내용
농인이 주로 사용하는 문화시설	영화관, 비디오방(DVD 방), 보드게임방,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연극, 뮤지컬)
농인의 도서관 이용 및 필요성	국립중앙도서관 농인 서비스, 도서관 접근성, 농인전용 도서관의 필요성
농인의 영화 감상 및 자막	자막제공, 외국 영화와 한국영화
농인을 위한 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 농인들에게는 불편함,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영화와 농인을 위한 한글 자막영화 별도 제공
미국 개인자막시스템	미국에 사용되는 개인자막 서비스는 국내 도입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서비스되지 않음
농인을 위한 수어해설 서비스	수어해설 서비스 수어통역사의 서비스 차이, QR코드 활용 수어해설 서비스, 노년층은 QR-Code 사용이 어려움.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료 문제, 수어해설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3.1.2.1 농인이 주로 사용하는 문화시설

FGI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문화시설은 영화관, DVD방/비디오방, 보드게임방,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으로 나타났다. 그 중 영화관이 농사회에서 제일 많이 이용되는 문화시설로 파악되었다. DVD방과 비디오방은 주로 20~30대 농인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었으며 보드게임방은 농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해당한다고 한다. 박물관은 농인들이 자주 이용하지 않는 문화시설로 단체로 가면 수화통역사가 동행하여 수화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방문하게 될 경우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미술관은 작품의 해설이 상세하게 글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농인은 보는 것만으로 미술작품을 이해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미술관은 농인의 정서, 미적 감각을 자극하고 농예술의 발달을 위한 관련 문화시설이므로 수어 해설이 꼭 배치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연극과 뮤지컬은 농인들이 제일 이용하기 힘든 문화시설이

라는 결과가 나왔다. 공연장에서 수화통역사와 자막 제공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농인에게는 난타, 점프, 비빔밥과 같은 비언어적인 공연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경복궁, 생태공원과 같은 관광시설에는 농인의 정보 접근이 어려워져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어 기반의 정보 접근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농사회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무엇보다 수어 기반 환경이 구축 됐을 때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었다. 또한 농인의 방문 횟수와 상관없이 문화시설에 수어 기반의 정보접근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3.1.2.2 농인의 도서관 이용 및 필요성

연구진은 농인을 대상으로 수어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5곳의 도서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안내하였다. 그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 본 참여자의 설명을 듣고 농인 중 소수만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너무 멀어서 농인들이 자주 이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및 시도협회 내에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농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서관의 접근성이 좋아야 더 많은 농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농인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놓은 농인전용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도서관에서 농인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3.1.2.3 농인을 위한 자막과 시각장애이용 화면해설 서비스

농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화생활은 영화관람으로 나타났다. 한국영화는 자막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외국영화를 관람한다고 하였다. 한국영화 관람에 대한 욕구가 있다 해도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한국영화 관람이 어렵기 때문이다. 자막 제공 없이 한국영화를 보는 경우 내용의 이해가 어려워 관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참여자들이 나타냈다. 또한 한국영화가 해외에서도 호응이 좋아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 자막 삽입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국내 농인에게는 자막제공이 예산 지원에 따라 한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국영화 자막제공이 더 늘어난다면 농인들의 한국영화 관람이 많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농인들은 외국영화, 한국영화 모두 보고 싶은 영화를 접근할 수 있도록 자막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3.1.2.4 시각장애이용 화면해설 서비스

농인들 중 잔존 청력이 있는 농인들은 배경음악과 같이 나오는 화면해설 때문에 영화관람 중 집중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영화 자막제공 영화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영화 화면해설 제공영화

상영이 분리되어 상영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3.1.2.5 미국 개인자막시스템

해외에서는 농인의 영화관람을 위해서 한국과 같은 오픈 자막이 아니라 개인 좌석에 제공되는 유리로 된 화면에 자막이 제공되는 방식의 서비스가 있다. 유리로 된 화면은 관람자의 좌석에 설치하여 영화 화면과 맞출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 자막이 필요한 당사자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청인에게 불편함이나 거부감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개인용 자막 시스템의 구축 비용이 현재의 한국영화 자막제공 방식보다 저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개인용 자막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의 농인들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제한된 한국영화 관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영화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영화 상영 전에 제공되는 광고에도 자막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과 개인용 자막을 한국영화 관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역에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3.1.2.6 농인을 위한 수어해설 서비스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의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수어해설 동영상이나 QR코드로 제공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스마트폰 활용은 젊은 층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노년층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논의도 있었다. 노년층을 위해 수화통역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노년층에게 QR코드 사용법을 교육하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화통역사 배치가 예산 문제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화통역사를 선호하는 참여자들의 의견이 많았다. 수어해설 동영상이 제공되는 QR코드와 수화통역사 배치 모두 제공이 되면 농인들의 정보접근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결론이 있었다.

QR코드를 통한 수어해설동영상 제공방식이 아니어도 문화시설 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작은 화면에 수어 해설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수어해설 동영상만 제공될 경우 농인들이 질문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수어해설사나 수화통역사의 직접적인 해설이나 통역이 생생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어해설가 배치가 농인들한테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모델을 하는 농인의 역량에 따라서 영상에 대한 이해정도의 편차가 크다. 심한 경우에는 약 20%밖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수어해설사나 수화통역사가 직접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화통역사 (또는 수어해설가) 와 수어해설동영상의 역할이 달라서 두개 다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어영상 서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구진이 밝혔다. 수어해설동영상 제작시 연대별로, 해당 연도의 시각적 자료를 활용한다면 농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어해설동영상을 만들 경우 수어해설 능력이 뛰어난 농통

<표3-29> 비상정보등 미설치 이유

단위: 빈도(백분율)

지금까지 요청받은 적이 없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제공방법을 몰라서	기타	전체
5(21.7%)	0(0.0%)	11(47.8)	4(17.4%)	3(13.05)	23(100.0%)

점멸형태의 비상정보등을 설치하지 않은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상정보등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가장 높았고 지금까지 요청 받은 적이 없기 때문, 제공방법을 몰라서, 기타 순으로 응답하였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기타 의견에는 문화시설이 문화재 또는 보물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다.

점멸형태의 비상정보등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요청 받은 적이 없거나 제공 방법을 모른다는 의견이 많아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시설접근성 향상을 위한 관계 기관의 시설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2.1.3 음성 정보 전광판 활용 텍스트 제공 여부

음성 정보를 전광판을 활용하여 텍스트로 정보를 제공하는 여부를 설립별(국·공·사립)로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3-30>와 같다.

<표3-30> 문화시설 설립별 음성 정보 전광판 설치 여부

단위: 빈도(백분율)

설립별	음성 정보 전광판 설치		전체
	있음	없음	
국립	8(15.7%)	11(21.6%)	19(37.3%)
공립	3(5.9%)	19(37.3%)	22(43.1%)
사립	1(2.0%)	9(17.6%)	10(19.6%)
전체	12(23.5%)	39(76.5%)	51(100.0%)

음성 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 활용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전광판이 설치된 문화시설은 약 24%였지만 설치하지 않은 문화시설은 약 76%로 나타나 조사 기관 중 약 1/4만 전광판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별로 살펴본 결과, 공립과 사립 기관은 대부분 전광판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3.2.1.4 음성 정보 전광판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

음성 정보를 텍스트로 전달하는 전광판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전광판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빈도분석한 결과는 <표3-31>와 같다.

<표3-31> 전광판 미설치 이유

단위: 빈도(백분율)

지금까지 요청받은 적이 없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제공방법을 몰라서	기타	전체
7(17.9%)	0(0.0%)	28(71.85)	1(2.6%)	3(7.7%)	39(100.0%)

전광판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약 7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요청 받은 적이 없어서’가 약 18%를 차지하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의 의견이 있었다.

3.2.1.5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나 수어통역, 대체텍스트 제공 여부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보청기, 화상전화기 등)나 수어통역, 쉬운 글 등 대체텍스트 제공 여부를 설립별(국·공·사립)로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3-32>과 같다.

<표3-32> 의사소통 기기나 수어통역, 대체텍스트 제공 여부단위: 빈도(백분율)

설립별	의사소통기기, 수어통역, 대체텍스트 제공		전체
	있음	없음	
국립	9(17.6%)	10(19.6%)	19(37.3%)
공립	2(3.9%)	20(39.2%)	22(43.1%)
사립	0(0.0%)	10(19.6%)	10(19.6%)
전체	11(21.6%)	40(78.4%)	51(100.0%)

보청기나 화상전화기와 같이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나 수어통역사 또는 수어해설사 배치, 그리고 쉬운 글과 같은 대체텍스트 제공 여부를 알아본 결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시설은 약 78%였고, 제공하는 문화시설은 약 22%에 불과했다. 설립별로 알아본 결과 공립과 사립 기관은 대부분 기기나 수어통역,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110콜센터 서비스를 통해 화상전화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사립 문화시설은 이러한 정부민원 서비스인 화상전화도 활용하

지 않고 있었다.

3.2.1.6 제공하는 편의 제공 유형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서비스의 유형을 빈도분석한 결과는 <표3-33>과 같다.

<표3-33> 제공하는 편의 제공 유형

단위: 빈도(백분율)

화상전화 기 활용	수어통역 사 근무	인근 수어통역 센터에 수어통역 사 요청	수어해설 영상 제공	쉬운 글 등 대체텍스트 제공	문자통역, 속기지원	전체
2(18.1%)	3(27.2%)	6(54.5)	0(0.0%)	0(0.0%)	0(0.0%)	11(100.0%)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편의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인근 수어통역센터에 수어통역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일부 국립박물관과 도서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여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를 활용하는 문화시설은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수어해설 영상을 제공하거나 쉬운 글 등 대체텍스트를 제공하는 경우, 문자통역이나 속기지원을 제공하는 문화시설은 없었다.

3.2.1.7 기기, 통역,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의사소통 기기와 수어통역서비스, 쉬운 글 등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필담 등과 같은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여부를 설립별(국·공·사립)로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3-34>과 같다.

<표3-34> 기기, 통역,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제공 여부

단위: 빈도(백분율)

설립별	보조인력 제공 여부		전체
	있음	없음	
국립	3(7.5%)	7(17.5%)	10(25.0%)
공립	9(22.5%)	11(27.5%)	20(50.0%)
사립	2(5.0%)	8(20.0%)	10(25.0%)
전체	14(21.6%)	26(78.4%)	40(100.0%)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중에서 필담과 같은 보조인력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설립별에 상관없이 보조인력을 제공하지 않는 기관이 더 많았다. 보조인력을 제공하는 기관은 약 22%에 머물렀고, 보조인력을 제공하지 않는 기관은 약 78%에 달했다.

3.2.1.8 장애인 전담직원 배치 여부

농인을 포함하여 장애인 방문자를 위한 전담직원 배치 여부를 설립별(국·공·사립)로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3-35>와 같다.

<표3-35> 장애인 전담직원 배치 여부 단위: 빈도(백분율)

설립별	장애인 전담직원 배치 여부		전체
	있음	없음	
국립	4(7.8%)	15(29.4%)	19(37.3%)
공립	3(5.9%)	19(37.3%)	22(43.1%)
사립	1(2.0%)	9(17.6%)	10(19.6%)
전체	8(15.7%)	43(84.3%)	51(100.0%)

문화시설 중에서 장애인 전담직원을 배치한 기관은 15.7%에 불과하였고, 약 84%는 전담직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국·공·사립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3.2.1.9 홈페이지에 장애인 시설 활용 관련 정보 제공 여부

문화시설 홈페이지에 장애인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여부를 설립별(국·공·사립)로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3-36>과 같다.

<표3-36> 홈페이지 장애인 시설 활용 정보 제공 여부

단위: 빈도(백분율)

설립별	홈페이지 정보 제공 여부		전체
	있음	없음	
국립	6(11.8%)	13(25.5%)	19(37.3%)
공립	8(15.7%)	14(27.5%)	22(43.1%)
사립	2(3.9%)	8(15.7%)	10(19.6%)
전체	16(31.4%)	35(68.6%)	51(100.0%)

홈페이지에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약31%, 제공하지 않는 기관은 69%를 보였다. 설립별 모든 기관에서도 홈페이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보다 제공하지 않는 기관이 많았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홈페이지 정보 접근은 홈페이지 접근에 대한 홈페이지 설계와 관련된 분석이 많았으며, 홈페이지 내용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았다. 홈페이지 내용 수정은 홈페이지 형식보다도 중요하고 비용도 덜 드는 일이다. 그러나 이처럼 홈페이지에 장애인 시설 이용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것은 문화시설에서 홈페이지를 설계할 때 장애인을 고려한 설계를 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 앞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3.2.1.10 홈페이지에 장애인 시설 활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

홈페이지에 장애인 시설 활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빈도분석한 결과는 <표3-37>과 같다.

<표3-37> 홈페이지 장애인 시설 활용 정보 제공하지 않는 이유

단위: 빈도(백분율)

지금까지 요청받은 적이 없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제공 방법을 몰라서	기타	전체
12(34.3%)	0(0.0%)	20(57.1)	1(2.9%)	2(5.7%)	35(100.0%)

홈페이지에 장애인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가장 많았고, ‘요청 받은 적이 없어서’ 순이었다. 농인을 포함한 장애인 문화시설을 방문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문화시설 운영자는 장

에인을 위한 홈페이지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후 문화시설의 홈페이지를 평가할 때 장애인을 위한 형식적인 접근성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접근성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3.2.2 농인 문화시설 체험단 문화시설 방문

우리나라 주요 문화시설을 농인이 직접 방문 체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항목은 모두 5가지로 방문 전 정보수집 방법, 이동방법, 관람(이용) 경비, 위급상황 발생시 대피 안내, 만족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이었다.

3.2.2.1 방문 전 정보수집 방법

-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홍보의 필요성 - 경북궁뿐만 아니라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종묘. 북촌. 정동돌담길에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으며, 늦어도 3일전 예약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알고 있는 농인이 많지 않아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실정임.
-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신청의 불편함 - 예약하려면 종로구청홈페이지 방문해서 가입하고 또 농문화 해설 신청방법을 찾아서 신청해야 되는데, 종로구청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절차 복잡해서 농인의 문화해설 신청이 많지 않음. 젊은 농인이라면 신청이 쉽겠지만 50, 60대 이상 농인들은 컴퓨터 사용이 쉽지 않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겠는데 보통 신청이 귀찮고 복잡해서 잘 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문화해설 서비스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음.
- 농인문화해설사 문화시설 상주의 필요성 - 농인문화해설사가 상주하여 수시로 문화해설을 하면 사전 신청 없이도 농인에게 문화재 해설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문화시설은 상주 농인 문화해설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에서 정규직이나 계약직 농인문화해설사를 채용하면 경북궁뿐만 아니라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종묘. 북촌. 정동돌담길 등을 농인문화해설사가 다니면서 통역을 할 수 있음. 청인처럼 예약 없이 농인들도 바로 문화해설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음. 이전에 제주도에서 농인 관광해설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는데 농인 관광객이 별로 없어 불과 몇 달 만에 폐지되었음. 서울시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5대 궁궐이 있어 앞으로 농인 관광객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립중앙박물관 - 홈페이지에 수어로 전시 해설에 대한 안내가 있음. 전화예약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수어로 전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 홈페이지에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가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안내되어 있음.

- 국립공주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 홈페이지에 장애인을 위한 관람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3.2.2.2 이동 방법

- 청각장애인은 신체적 불편이 없어 거리이동에 문제없습니다.

3.2.2.3 관람(이용) 경비

- 고궁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 입장료는 무료임.
- 문화시설 입구에 지하철 매표소처럼 장애인복지카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으면 관리인 확인 없이 자유롭게 입장을 할 수 있어 편리할 것 같음.

3.2.2.4 관람(이용) 편의-문화시설 내 정보수집, 의사소통지원, 지원 기기

- 경북궁 - 종로구청에서 운영하는 농인 문화해설사 제도를 통해 미리 신청하면 문화해설을 받아볼 수 있으며, 농인을 위한 별도의 관람 편의기기는 구비되어 있지 않음.
- 국립중앙박물관 - 우리나라 대표 박물관답게 청인 수어통역사가 상주하고 있어 농인이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해도 언제든지 문화해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농인을 위한 별도의 관람 편의기기는 구비되어 있지 않음. 수어통역사의 통역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국립공주박물관 - 농인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나 관련 편의기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 공주처럼 작은 규모의 도시의 경우 수어통역사나 농문화해설사가 상주하여 근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 사진처럼 앱 또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영상 또는 문자로 된 설명을 제공해 주면 좋겠음. 청각장애들이 더 좋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면 좋겠음.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청인수어통역사와 농인수어통역사가 상주해 있어 농인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 아직까지도 홍보 부족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서비스를 모르는 농인이 많음. 수어대면낭독 독서프로그램과 청각장애인 읽기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국립현대미술관 - 청각장애인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회화나 조형물에 관심이 많아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함.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의 의도나 의미를 설명해 주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작품설명은 없었음. 대구미술관은 현재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전시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어 수어통역사가 청각장애 관람객들에게 전시된 작품을 수어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앱이나 QR코드를 이용하여 영상 또는 문자로 된 설명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앱이나 QR코드를 사용할 줄 모르는 청각장애인에게 수어영상 등 수어안내표시판을 설치하면 좋겠음.

3.2.2.5 위급상황 발생시 대피 안내

-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궁궐에는 관람하기 전 위급상황을 인지하는 법, 대피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음.
-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도 해설사가 없이 농인만 관람할 경우에 불이 났을 때 청인은 안내방송을 듣고 대비할 수 있지만, 청각장애인은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움. 청각장애인이 문화시설에서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진동문자 기기(커피점에서 주문할 때 기다리면 진동소리 보고 커피 가져오는 것)를 비치하면 좋을 것 같음. 농아인들은 진동에 민감함.
- 대형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위급 상황을 알리는 경광등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 청각장애인도 위험을 인지할 수 있어 대처하는데 도움이 됨. 앞으로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경광등 설치가 필요함. 또한 앞으로 경광등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을 문자로 보여주는 전광판 설치가 필요함. 전광판이 있다면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농인이 보고 이해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함.

3.2.2.6 만족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

- 만족한 점
 - 서울의 5대 궁궐에는 농인 문화관광해설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청인수어통역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청인수어통역사와 농인수어통역사가 있어 문화시설 이용에 도움이 됨.
- 개선해야 할 점
 - 농인문화해설사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무제도가 필요함. 청인 문화해설사 중 일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월 25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 사람이 많음. 따라서 농인 문화해설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관람객 관리, 농문화해설사 교육과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하면 농문화해설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문화 예술 정보 제공의 평등성을 보장하며, 장애인 일자리도 확보하는 의미가 있음. 또한 청각장애인도 사회 기여의 의미가 있는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제 한국은 디지털의 시대, 정보화 시대, 멀티미디어의 시대이기에 청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문화정보 앱이나 QR코드를 이용하는 수어영상 또는 문자로 된 설명, 문화 콘텐츠 영상시청 지원, '비주폰'과 같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지원된다면 청각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의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3.2.3 독일의 농인 문화시설 정보 접근 환경

미국은 농인을 위한 수어통역 또는 수어 정보 제공을 소수언어에 대한 지원의 측면이 아니라 장애인인권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측면에서 보고 있다. 즉, 농인을 위한 수어 제공은 농인이 인간으로서 가능성과 접근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인권 기반의 접근방법이며, 농인의 언어 정체성을 보존하고 공공 서비스에서의 수어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Ball, 2011).

독일은 농인의 문화시설 정보 접근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문화시설 이용 방법을 수어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농인 방문자를 위하여 PDA와 같은 기기를 통해 수어 해설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수어 해설 동영상 제공 방법은 특정 공간으로 이동할 때 자동으로 수어 해설 동영상을 전환하는 방법과 사용자가 안내표지에 있는 해당 번호를 선택하여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독일의 대표적인 농인 문화정보 기관인 독일연방의회 의사당(Reichstag)과 베를린 호롤코스트 메모리얼(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을 중심으로 농인의 문화시설 정보 접근을 소개하였다.

가.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

- 연방의회 의사당 내부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의사당 건물 꼭대기에 유리로 된 돔 전망대를 무료 개방하고 있다. 관광객은 사전예약을 하면 입장이 가능하며 전망대 안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오디오기와 수어 해설 영상기기를 받아 관람할 수 있다.
- 수어 해설서비스 기기 신청 방법
안내데스크에 오디오 가이드 팻말이 있는데 여기에 농인을 뜻하는 T(Taub)알파벳과 듣지 못하는 귀모양의 파란색 마크와 독일수어를 뜻하는 DGS(Deutsch Gebärdensprache)가 수어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3-1> 오디오가이드 안내판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볼록판



<그림3-2> 농인을 상징하는 마크와 독일수어통역을 뜻하는 DGS

■ 수어 해설서비스 사용 방법

약 3미터씩 이동할 때마다 수어 해설 영상이 자동으로 다음 영상으로 전환되고, 영상이 전환될 때는 진동이 되어 전환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바닥 내부나 벽면에 센서가 있어 사용자가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특정 위치로 이동할 때마다 영상 기기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방법을 활용한다.

영상은 모두 2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상은 베를린 연방의회의사당에 대한 역사 설명을 시작으로 연방정부 청사와 독일 총리관저 등 주요건물들에 대한 수어 해설 영상이 담겨있다. 영상을 보는 중에도 정지하거나 다시 처음부터 보고 싶을 때 간단하게 화면을 클릭하여 조작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그림3-3> 수어 영상 해설 기기의 모습



<그림3-4> 베를린 타워와 그 앞의 국제무역센터, 베를린 돔(대성당)에 대한 수어 해설 동영상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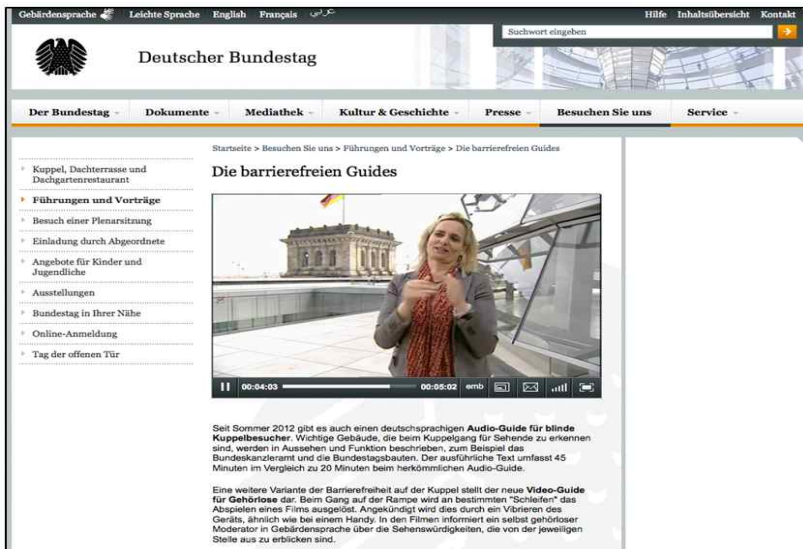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의사당을 방문하는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가이드는 2014년 8월에 실시되었다. <그림3-5>의 독일 연방의회 의사당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의 왼쪽에

Gebärdensprache(독일수어)를 클릭하면 <그림3-6>의 수어 영상이 있는 화면이 나온다. 상단의 큰 화면을 클릭하면 수어설명이 나오고 청각장애인은 의사당 방문 시 수어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3-5> 연방의회 의사당 홈페이지의 독일수어메뉴



<그림3-6> 연방의회 의사당 홈페이지의 배리어프리 가이드에 대한 홍보영상

나.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 내 수어 해설 서비스 이용

일반인 관람객은 오디오기기를 대여할 수 있으며 유료이다. 안내데스크 오른쪽 벽면에 오디오기기 대여에 대한 정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설 기기도 대여가 가능하며 무료로 제공된다. 수어 해설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보는 방식과 이미 저장되어있는 번호 목록에서 클릭하여 보는 방식이 있으며, 영상은 0번과 701번~ 719번 총20개로 구성되었다.



<그림3-7> 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 <그림3-8> 목록을 클릭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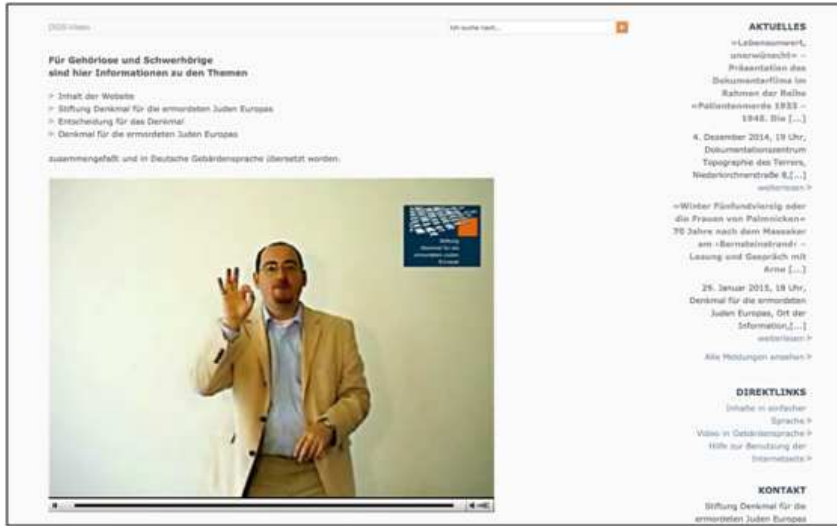


<그림3-9>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서 수어 해설 서비스를 받는 모습1



<그림3-10>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서 수어 해설 서비스를 받는 모습2

■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홈페이지 수어 안내 서비스



<그림3-11>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홈페이지 수어 안내 서비스

출처: <http://www.stiftung-denkmal.de/de/dgs-video.html#c519>

3.3 문화정보 수어 동영상 표본 제작 및 제작 지침 수립

3.3.1 문화정보 수어 동영상 표본 제작 및 제작 지침 FGI와 자문회의 분석 결과

초점집단 인터뷰 참여자로는 농인7명과 청인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으로부터 개방형 질문하여 인터뷰 질문을 진행하였으며. ‘수어해설 동영상 제작 방식’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부터 산출된 대표적인 의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3-38>와 같다.

<표3-38> 수어해설 동영상 제작 방식의 주요 내용

범 주	주요 내용
수어해설동영상 제작방법과 제작방식	크로마키 방법, 수어해설. 수어해설+자막, TV뉴스방식의 캡슐안 수어해설. 농인의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된 수어해설동영상 제작의 필요성
수어해설동영상 자막방식	자막 크기와 자막 위치 고려사항

범 주	주요 내용
동영상화면 수어해설가 크기	전체화면에 수어통역사의 크기가 작으면 불편함
동영상 배경화면 색상	기존 파란색 배경 외에 다른 색상들
해당 화면과 수어해설가 동시 배치 시 수어해설가의 크기	수어해설가의 크기(예, 한국농아방송I-DBN)
해당 화면과 수어해설가 동시 배치 시 수어해설가의 위치	오른쪽 / 왼쪽/ 화면 가운데 / 기타
수어해설가의 의상	수어해설가에 맞는 의상의 색상과 문화시설에 맞는 의상고려의 필요성
수어해설가의 자격 기준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한국수어와 한국어 문해능력에 능통한 자. 풍부한 표현력으로 시각적인 설명에 능통한 자. 농인 또는 청인

3.3.1.1. 수어해설 동영상 제작 방식

FGI와 자문회의 시 수어해설 동영상 제작 방식에 대한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크로마키 기법으로 하여 화면 전체가 배경으로 사용되고 수어해설가가 동시에 배경화면 안에서 해설하는 방법
- 화면과 수어해설가를 50:50 비율로 하여 자막도 함께 삽입
- 자막 없이 수어해설로만 보면 이해가 어려움. 수어해설과 자막 같이 삽입
- 한국어 문해력이 부족한 농인을 위해 요약된 자막 삽입 보다는 한국수어로 해설하면서 자막은 100% 삽입
- 화면에 전체배경을 깔고 캡슐 안에서 수어해설 할 경우 캡슐의 크기를 기존보다 크게 늘려서 제작
- 배경이 움직이는 화면으로 제작하는 방식
- 움직이는 배경과 수어해설도 동시에 움직이면 집중이 어려움에 따라 화면에 해당 문화시설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 배경을 깔아주고 수어로 해설하는 방식

- 화면에 자료와 수어해설가를 동시에 나타나게 하여 해당 문화시설의 자료를 먼저 보여준 후 수어로 설명하는 방식

FGI 참여자들이 희망하는 수어해설동영상에 대한 의견을 크게 나누어보면 배경이 나오는 화면 안에서 수어해설가가 해설하는 방법, 화면과 수어해설가를 50:50 크기로 하여 자막도 함께 삽입, 수어해설과 자막이 동시에 실시, 해당 문화시설의 자료를 먼저 보여준 후 수어해설이 나오는 방식 등으로 파악되었다.

농인들 대부분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구경만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녀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농인이 박물관에 방문하였을 때 관람순서 이해를 위해 시대별로 순서대로 수어해설로 설명과 함께 그 시대의 자료사진도 함께 삽입되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문화시설에 농인이 희망하는 수어해설동영상이 갖추어지면 농인들의 관심이 증가되어 문화시설 이용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농인참여자들은 다수는 그동안 수화통역이 나오는 TV뉴스를 많이 접하면서 수화통역이 나오는 캡슐의 크기가 작아서 볼 때 불편하고 답답해왔음을 나타내면서 수어해설동영상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될 경우에는 화면 안에 수화 캡슐의 크기를 기존보다 크게 늘린 크기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배경이 움직이는 화면으로 제작될 경우에는 수어해설가의 손동작도 계속 움직이게 되므로 집중이 어려워 동시에 움직이는 것 보다는 화면 안에서 주로 수어해설가가 해설하면서 배경사진이나 그림을 상단에 작게 들어가게 하는 방식과 자료사진이 먼저 전체 화면으로 나온 후 자료사진화면이 사라지고 수어해설가가 전체화면으로 나와서 설명하는 번갈아가면서 진행되는 방식으로 제작했다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러한 방식의 동영상으로 제작할 경우 자료사진과 수어해설에도 집중이 되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의 분석 방법을 토대로 한 수어해설 동영상 제작 지침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효율적인 화면 구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소개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의 특성과 문화해설의 난이도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제작한다. 이에 따라 농인이 선호하는 수어해설동영상 구성 유형을 7가지로 나누어서 제작하되 그 구성은 아래와 같다.

- ① 화면에 수어해설가와 자료 사진을 50:50 비율로 분할하여 제작
- ② 수어해설가를 화면에 크게 제시하고 자료 사진은 상단에 작게 삽입된 구성하여 제작
- ③ 수어해설가가 설명을 한 후 수어해설가는 사라지고 자료 사진이 전체 화면으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제작
- ④ 수어해설가가 실제 문화시설에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제작
- ⑤ 실제 문화시설을 배경으로 하여 수어해설가를 크로마키 기법으로 삽입된 구

성으로 제작

- ⑥ 수어해설가가 화면에 크게 제시되고 자료 사진은 상단에 작게 삽입되고 화면 하단에 수어해설 전체 내용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제작
- ⑦ 수어해설가가 설명을 한 후 수어해설가는 사라지고(페이드 아웃) 자료 사진이 전체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하단에 수어해설 요약 자막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제작.

3.3.1.2 수어해설 동영상 자막방식

FGI와 자문회의 시 수어해설 동영상 자막 삽입 방식에 대한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자막 없이 수어로만 보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 수어해설동영상과 자막을 동시에 볼 수 있게 제작.
- 한국수어로 진행되는 수어해설 동영상에도 간추려 요약된 자막이 아닌 자막을 100% 삽입.
- 한국수어로 단어가 없는 외래어나 고어(古語) 또는 전문용어가 나올 경우 수어해설가가 지문자로 표현과 동시에 배경화면의 상단에 단어를 자막으로도 삽입하여 안내.
- 화면 안에서 수어해설가가 중심을 이루고 자료사진은 적당하게 하면서 아랫부분을 자막을 삽입하는 방식.(예: 한국농아방송(I-DBN))
- 수어해설가와 자료화면의 그림 또는 사진과 자막이 겹치지 않도록 제작.
- 문화시설에 설치되는 수어해설동영상 화면의 크기가 작을 경우 자막크기도 작아 보는 것이 힘들. 이러한 경우 자막은 넣지 않음.

농인참여자 다수가 자막이 없이 수어해설만으로는 전문용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자막을 요약된 자막이 아닌 수어해설 내용과 똑같이 100% 그대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어 문해력이 부족한 농인을 위해서는 중요한 단어만 간추려서 자막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연구진의 질문에 참여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경우에도 자막을 요약하여 간추리지 않고 100% 그대로 제공하는 동시에 문해력이 부족한 농인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로 표현을 했으면 한다고 하였다. 아직까지 공인 수어 어휘로 표현하지 못한 과학용어, 외래어나 고어(古語) 등 전문용어가 나올 경우에는 수어해설가가 지문자로 표현할 때 동시에 배경화면 상단에 추가로 그 단어에 대한 자막도 같이 안내를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외에도 참여자들은 수어해설가가 차지하는 화면의 면적을 크게 차지하고 자료사진이나 그림을 필요에 따라 상단에 적당한 크기로 넣어주는 방식이 좋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상의 자막 삽입 방법에 대한 수어 해설 동영상 제작 지침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수어해설과 자막이 일치되는 정확한 작업을 위해 한국수어를 이해하는 경력자가 작업하도록 한다.
- ② 수어해설과 동시에 자막도 함께 제공한다.
- ③ 두 가지 표본(한국수어로 해설, 유사체계수어로 해설)에 삽입되는 자막은 같은 내용의 자막으로 삽입한다.
- ④ 수어해설가의 해설과 자막이 최대한 일치되고 있는지 수어해설을 보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 ⑤ 수어해설가의 해설과 자막 간에 소요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장이나 의미단위로 조절하여 해설내용에 맞추어 자막을 처리한다.

3.3.1.3 동영상화면 수어해설가 크기

FGI와 자문회의 시 동영상 화면 수어해설가 크기에 대한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화면에 배경과 수어통역사의 비율을 50:50으로 나눔.
- 화면에서 수어해설가가 차지하는 면적을 크게 하고 자료사진이나 그림은 작게 제작
- 수어통역사의 크기는 수화통역사가 서 있는 전체 모습 또는 상반신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기에 편함.

농인참여자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자주 접하는 수어동영상들 중에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제작하는 매주 간추린 뉴스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농아방송(I-DBN)’과 같은 방식의 수어영상 해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과 수어해설가가 동시에 들어가는 동영상의 경우 수어통역사의 크기는 화면의 절반정도 차지하는 크기로 진행되는 방식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TV뉴스의 예를 보면 앵커가 화면 중심을 차지하면서 상단에 자료화면이 작게 나오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작하면 수어해설가의 해설에도 집중하기에 좋다는 의견과 함께 수어해설가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면에 크게 들어가는 것으로 하여 자료 사진은 상단에 작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동영상 화면전체에서 수화통역사가 서서 해설하는 전체 모습 또는 화면전체에 수화통역사가 상반신이 나오게 하여 해설하는 모습으로 크게 나왔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상의 수어 해설가 화면 크기에 대한 결과에 따른 동영상 제작 지침을 다음과 같다.

- ① 화면에 수어해설가와 자료 사진을 50:50으로 나눔.
- ② 수어해설가를 화면에 크게 제시하고 자료 사진은 상단에 작게 삽입하여 수어

- 해설가의 동작 안에 겹치지 않게 하여 제작
- ③ 수어해설가의 전신이 화면에 나오는 방식으로 하여 해설하는 모습으로 제작.
 - ④ 화면에 수어해설가의 크기를 TV뉴스에서 아나운서가 크게 나와 진행하는 모습과 같이 제작.

3.3.1.1. 수어해설 동영상 제작 방식

FGI와 자문회의 시 수어해설 동영상 제작 방식에 대한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크로마키 기법으로 하여 화면 전체가 배경으로 사용되고 수어해설가가 동시에 배경화면 안에서 해설하는 방법
- 화면과 수어해설가를 50:50 비율로 하여 자막도 함께 삽입
- 자막 없이 수어해설로만 보면 이해가 어려움. 수어해설과 자막 같이 삽입
- 한국어 문해력이 부족한 농인을 위해 요약된 자막삽입 보다는 한국수어로 해설하면서 자막은 100% 삽입
- 화면에 전체배경을 깔고 캡슐 안에서 수어해설 할 경우 캡슐의 크기를 기존보다 크게 늘려서 제작
- 배경이 움직이는 화면으로 제작하는 방식
- 움직이는 배경과 수어해설도 동시에 움직이면 집중이 어려움에 따라 화면에 해당 문화시설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 배경을 깔아주고 수어로 해설하는 방식
- 화면에 자료와 수어해설가를 동시에 나타나게 하여 해당 문화시설의 자료를 먼저 보여준 후 수어로 설명하는 방식

FGI 참여자들이 희망하는 수어해설동영상에 대한 의견을 크게 나누어보면 배경이 나오는 화면 안에서 수어해설가가 해설하는 방법, 화면과 수어해설가를 50:50 크기로 하여 자막도 함께 삽입, 수어해설과 자막이 동시에 실시, 해당 문화시설의 자료를 먼저 보여준 후 수어해설이 나오는 방식 등으로 파악되었다.

농인들 대부분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구경만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녀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농인이 박물관에 방문하였을 때 관람순서 이해를 위해 시대별로 순서대로 수어해설로 설명과 함께 그 시대의 자료사진도 함께 삽입되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문화시설에 농인이 희망하는 수어해설동영상이 갖추어지면 농인들의 관심이 증가되어 문화시설 이용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농인참여자들은 다수는 그동안 수화통역이 나오는 TV뉴스를 많이 접하면서 수화통역이 나오는 캡슐의 크기가 작아서 볼 때 불편하고 답답해왔음을 나타내면서 수어해설동영상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될 경우에는 화

면 안에 수화 캡슐의 크기를 기존보다 크게 늘린 크기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배경이 움직이는 화면으로 제작될 경우에는 수어해설가의 손동작도 계속 움직이게 되므로 집중이 어려워 동시에 움직이는 것 보다는 화면 안에서 주로 수어해설가가 해설하면서 배경사진이나 그림을 상단에 작게 들어가게 하는 방식과 자료사진이 먼저 전체 화면으로 나온 후 자료사진화면이 사라지고 수어해설가가 전체화면으로 나와서 설명하는 번갈아가면서 진행되는 방식으로 제작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러한 방식의 동영상으로 제작할 경우 자료사진과 수어해설에도 집중이 되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상의 분석 방법을 토대로 한 수어 해설 동영상 제작 지침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효율적인 화면 구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소개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의 특성과 문화 해설의 난이도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제작한다. 이에 따라 농인이 선호하는 수어해설동영상 구성 유형을 7가지로 나누어서 제작하되 그 구성은 아래와 같다.

- ① 화면에 수어해설가와 자료 사진을 50:50 비율로 분할하여 제작
- ② 수어해설가를 화면에 크게 제시하고 자료 사진은 상단에 작게 삽입된 구성하여 제작
- ③ 수어해설가가 설명을 한 후 수어해설가는 사라지고 자료 사진이 전체 화면으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제작
- ④ 수어해설가가 실제 문화시설에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제작
- ⑤ 실제 문화시설을 배경으로 하여 수어해설가를 크로마키 기법으로 삽입된 구성으로 제작
- ⑥ 수어해설가가 화면에 크게 제시되고 자료 사진은 상단에 작게 삽입되고 화면 하단에 수어해설 전체 내용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제작
- ⑦ 수어해설가가 설명을 한 후 수어해설가는 사라지고(페이드 아웃) 자료 사진이 전체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하단에 수어해설 요약 자막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제작.

3.3.1.2 수어해설 동영상 자막방식

FGI와 자문회의 시 수어해설 동영상 자막 삽입 방식에 대한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자막 없이 수어로만 보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 수어해설동영상과 자막을 동시에 볼 수 있게 제작.
- 한국수어로 진행되는 수어해설 동영상에도 간추려 요약된 자막이 아닌 자막을 100% 삽입.

- 한국수어로 단어가 없는 외래어나 고어(古語) 또는 전문용어가 나올 경우 수어해설가가 지문자로 표현과 동시에 배경화면의 상단에 단어를 자막으로도 삽입하여 안내.
- 화면 안에서 수어해설가가 중심을 이루고 자료사진은 적당하게 하면서 아랫부분을 자막을 삽입하는 방식.(예: 한국농아방송(I-DBN))
- 수어해설가와 자료화면의 그림 또는 사진과 자막이 겹치지 않도록 제작.
- 문화시설에 설치되는 수어해설동영상 화면의 크기가 작을 경우 자막크기도 작아 보는 것이 힘들. 이러한 경우 자막은 넣지 않음.

농인참여자 다수가 자막이 없이 수어해설만으로는 전문용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자막을 요약된 자막이 아닌 수어해설 내용과 똑같이 100% 그대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어 문해력이 부족한 농인을 위해서는 중요한 단어만 간추려서 자막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연구진의 질문에 참여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경우에도 자막을 요약하여 간추리지 않고 100% 그대로 제공하는 동시에 문해력이 부족한 농인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로 표현을 했으면 한다고 하였다. 아직까지 공인 수어 어휘로 표현하지 못한 과학용어, 외래어나 고어(古語) 등 전문용어가 나올 경우에는 수어해설가가 지문자로 표현할 때 동시에 배경화면 상단에 추가로 그 단어에 대한 자막도 같이 안내를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외에도 참여자들은 수어해설가가 차지하는 화면의 면적을 크게 차지하고 자료사진이나 그림을 필요에 따라 상단에 적당한 크기로 넣어주는 방식이 좋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상의 자막 삽입 방법에 대한 수어 해설 동영상 제작 지침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수어해설과 자막이 일치되는 정확한 작업을 위해 한국수어를 이해하는 경력자가 작업하도록 한다.
- ② 수어해설과 동시에 자막도 함께 제공한다.
- ③ 두 가지 표본(한국수어로 해설, 유사체계수어로 해설)에 삽입되는 자막은 같은 내용의 자막으로 삽입한다.
- ④ 수어해설가의 해설과 자막이 최대한 일치되고 있는지 수어해설을 보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다.
- ⑤ 수어해설가의 해설과 자막 간에 소요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장이나 의미단위로 조절하여 해설내용에 맞추어 자막을 처리한다.

3.3.1.3 동영상화면 수어해설가 크기

FGI와 자문회의 시 동영상 화면 수어해설가 크기에 대한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화면에 배경과 수어통역사의 비율을 50:50으로 나눔.
- 화면에서 수어해설가가 차지하는 면적을 크게 하고 자료사진이나 그림은 작게 제작
- 수어통역사의 크기는 수화통역사가 서 있는 전체 모습 또는 상반신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기에 편함.

농인참여자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자주 접하는 수어동영상들 중에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제작하는 매주 간추린 뉴스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농아방송(I-DBN)’과 같은 방식의 수어영상 해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과 수어해설가가 동시에 들어가는 동영상의 경우 수어통역사의 크기는 화면의 절반정도 차지하는 크기로 진행되는 방식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TV뉴스의 예를 보면 앵커가 화면 중심을 차지하면서 상단에 자료화면이 작게 나오는 그러한 방식으로 제작하면 수어해설가의 해설에도 집중하기에 좋다는 의견과 함께 수어해설가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면에 크게 들어가는 것으로 하여 자료 사진은 상단에 작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동영상 화면전체에서 수화통역사가 서서 해설하는 전체 모습 또는 화면전체에 수화통역사가 상반신이 나오게 하여 해설하는 모습으로 크게 나왔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상의 수어 해설가 화면 크기에 대한 결과에 따른 동영상 제작 지침을 다음과 같다.

- ① 화면에 수어해설가와 자료 사진을 50:50으로 나눔.
- ② 수어해설가를 화면에 크게 제시하고 자료 사진은 상단에 작게 삽입하여 수어해설가의 동작 안에 겹치지 않게 하여 제작
- ③ 수어해설가의 전신이 화면에 나오는 방식으로 하여 해설하는 모습으로 제작.
- ④ 화면에 수어해설가의 크기를 TV뉴스에서 아나운서가 크게 나와 진행하는 모습과 같이 제작.

3.3.1.4 동영상 배경화면 색상

FGI와 자문회의 시 동영상 배경화면 색상에 대한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파란색 색상 보다 하늘색 또는 연녹색이 눈의 피로가 덜하고 편함.
- 진한 색상 보다 회색 계열의 배경색상
- 수어해설과의 피부색상과 비슷한 색상이나 흰색 배경색상은 피할 것.

주로 많이 쓰이는 파란색의 배경색상이 눈에 피로감을 준다는 의견과 파란색 보다는 하늘색이나 연녹색으로 하면 눈의 피로도 덜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진한 색상 보다는 연녹색과 하늘색으로 된 배경색상이 수어해설가의 해설에도 집중하기 편하다는 의견이었다. 이 외에 회색계열의 배경색상도 시각적으로 편한 느낌을 준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참여자들은 수어해설가의 피부색상과 비슷한 색상이나 흰색으로 된 배경색상은 피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이상의 동영상 배경화면 색상에 대한 동영상 제작 지침은 다음과 같다. 수어해설가의 수어해설모습이 잘 보이도록 영상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경색상을 수어해설가의 손과 얼굴표정이 잘 보일 수 있는 색상(연녹색, 하늘색, 회색 등)으로 제작한다. 단, 수어해설가의 피부색과 비슷한 색상이나 흰색은 배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손의 움직임이 배경 색상과 비슷하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3.3.1.5 해당 화면과 수어해설가 동시 배치 시 수어해설가의 크기

FGI와 자문회의 시 해당화면과 수어해설가 동시 배치 시 수어해설가의 크기에 대한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수어해설가의 크기는 TV뉴스의 앵커와 같은 크기
- 수어해설가를 화면에 크게 제시하여 수어해설가의 동작 안에 자막이 겹치지 않게 제작.

화면에 TV뉴스의 앵커처럼 수어해설가가 크게 들어가고 아랫부분에 자막을 삽입하는 방식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 때 자막의 크기는 ‘한국농아방송(I-DBN)’에서 나오는 자막크기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어해설가를 화면에 크게 제시하여 수어해설가의 동작 안에 자막이 겹치지 않게 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화시설에서 수어해설동영상 화면의 크기가 작을 경우 자막 글자크기도 작아지기 때문에 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막을 넣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어 해설가의 크기에 대한 동영상 제작 지침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어해설가를 화면에 크게 제시하고 자막은 아래에 삽입한다.

- ② 수어해설가를 화면에 크게 제시하고 수어해설가의 동작 안에 자막이 겹치지 않게 하여 제작한다.

3.3.1.6 해당 화면과 수어해설가 동시 배치 시 수어해설가의 위치

FGI와 자문회의 시 해당화면과 수어해설가 동시 배치 시 수어해설가의 위치에 대한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수어해설가의 위치는 오른쪽을 선호함.
- 배경과 수어해설가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오른쪽을 선호함.
- 경우에 따라 왼쪽에 위치하는 시도도 했으면 함.
- 배경과 수어해설가의 위치를 잘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게 제작하되 가독성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배치.

연구진이 배경과 수어해설가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에 대한 예시안을 보여주며 안내한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수어해설가가 화면의 오른쪽에 위치해서 보는 것이 편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농인을 위한 영상물이나 TV에서 수화통역이 나오는 위치를 보면 수어를 하는 사람의 위치가 주로 오른쪽으로 되어 오른쪽으로 보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 왼쪽으로 하면 어색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배경과 수어해설가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에 수어해설가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하면 좋다는 다수의 의견과 함께 왼쪽에 위치해서 해보는 것도 시도해봤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동영상에서 수어해설가 통역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배경과 함께 수어해설가의 위치를 잘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하고, 수어해설가의 위치는 주로 오른쪽에 위치하여 수어해설 하는 것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왼쪽에 위치해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독성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화면과 수어해설가 동시 배치 시 수어해설가의 위치에 대한 동영상 제작 지침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어해설가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왼쪽에 위치하여 제작한다.
- ② 배경과 수어해설가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 수어해설가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해서 제작한다.
- ③ 배경과 수어해설가의 위치를 배치할 때 효과적으로 배치하되 수어의 가독성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배치한다.

3.3.1.7 수어해설가의 의상

FGI와 자문회의 시 수어해설가의상에 대한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검정색 보다는 차분하고 어두운 색조의 의상을 선호함.
- 해당 문화시설의 성향에 맞는 의상으로 입었으면 함.
- 옷의 색상도 다양하게 했으면 함.
- 수어의 가독성을 방해하는 악세사리 착용하지 않기.
- 타이트하거나 노출이 과한 의상은 피할 것.

현란한 색상과 화려한 색상의 의상은 수화해설을 보는 농인의 시선집중을 분산시키고 눈의 피로감을 느끼게 하므로 해설가 의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검정색 보다는 단색조의 차분하고 어두운 색조의 의상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농인참여자들이 검정색 의상에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답변을 많이 보였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수화통역사들이 주로 검정색 의상을 많이 입고 통역하는 모습을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농인들은 검정색에 지루함과 식상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수어의 가독성을 방해하는 악세사리 착용 및 타이트하거나 노출이 과한 의상을 피하도록 하며, 문화시설에 관련된 수어해설동영상을 제작할 때 경복궁이나 박물관과 같은 역사와 관련된 문화시설의 경우 수어해설가가 한복 또는 개량한복을 입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해당 문화시설의 성향에 맞는 의상으로 입었으면 한다는 의견과 수어해설가의 의상색상과 의상스타일을 해당 문화시설의 성격에 맞는 의상으로 하여 옷의 색상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수어해설가의 의상에 대한 제작지침은 다음과 같다.

- ① 의상의 색깔은 수어해설가의 손과 얼굴표정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단색 계열의 다양한 색상으로 차분하고 어두운 색으로 한다.
- ② 화려하거나 시선을 분산시키는 무늬로 된 의상은 피한다.
- ③ 수어해설가의 몸과 손과 얼굴에 액세서리 착용은 수어의 가독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이트하거나 노출이 과한 의상은 피한다.
- ⑤ 경우에 따라 해당문화시설의 특성에 맞는 스타일의 의상으로 한다. (예: ‘경복궁’에 대한 수어해설을 할 때 의상은 한복이 적절함.)

3.3.1.8 수어해설가의 자격 기준

FGI와 자문회의 시 수어해설가의 자격 기준에 대한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 자신이 구연한 수어표현을 스스로 감수가 가능한 능력을 갖춘 자
- 한국수어와 한국어 문해 능력에 능통한 자.
- 한국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여 수어로 해설하는 표현에 능통한 자.
- 비수지 기호나 제스처, 풍부한 표현력으로 시각적 설명에 능통한 자.
- 청인일 경우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와 표현력에 능통한 자.

수어해설 동영상 제작을 위해 수어해설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에 대해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한국수어와 한국어 문해력에 능통한 자, 풍부한 표현력으로 시각적인 설명에 능통한 자 중 어떠한 기준을 갖춘 수어해설가를 선호하는지 참여자들에게 질문한 결과 한국수어로 풍부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시각적인 설명에 능통한 수어해설가를 선호한다는 공통된 의견으로 나왔다.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해당 문화시설에 대한 관련지식을 갖추지 못한 것 보다는 한국수어와 한국어 문해 능력의 능통함도 갖추고 함께 표현은 물론 시각적인 설명을 풍부한 설명이 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위와 같은 기준을 갖춘 청인일 경우에도 수어해설가로 해도 상관없는지에 대한 연구진의 질문에 참여자들은 농인이건 청인이건 상관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면서 청인이 한국수어와 표현력이 능통하면 수어해설가로도 좋다는 결론이 있었다.

수어해설가의 자격 기준에 대한 제작지침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어해설가는 반드시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이어야 한다.
- ② 수어 번역 및 구연은 농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한다.
- ③ 수어해설가는 자신이 구연한 수어표현을 자기 스스로 감수가 가능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
- ④ 수어해설가의 완벽한 이해를 통해 해설하는 전달에 정확성을 더하게 함에 따라 한국수어와 한국어 문해 능력에도 능통해야 한다.
- ⑤ 수어해설가는 한국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여 수어로 해설하는 표현에 능통해야 한다.
- ⑥ 수어해설가는 비수지 기호나 제스처, 그리고 풍부한 표현력으로 시각적인 설명에도 능통해야 한다.
- ⑦ 수어해설가는 해당 문화시설의 시나리오를 제공받기 전에 대상 문화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해를 하여야 한다.

⑧ 수어해설가가 청인일 경우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와 표현력에 능통해야 한다.

이상의 수어 해설 동영상 표본 제작 지침을 정리하면 다음 <표3-39>과 같다.

<표3-39> 수어 해설 동영상 표본 제작 지침

범 주	제작지침
주요내용	
수어해설동영상 제작방법과 제작방식	① 화면에 수어해설가와 자료 사진을 50:50으로 나뉘어 구성하여 제작 ② 수어해설가를 화면에 크게 제시하고 자료 사진은 상단에 작게 삽입된 구성하여 제작 ③ 수어해설가가 설명을 한 후 수어해설가는 사라지고 자료 사진이 전체 화면으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제작
크로마키 방법, 수어해설. 수어해설+자막, TV뉴스방식의 캡슐안 수화해설. 농인의 요구에 맞는 방식으로 된 수어해설동영상 제작의 필요성	④ 수어해설가가 실제 문화시설에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제작 ⑤ 실제 문화시설을 배경으로 하여 수어해설가를 크로마키 기법으로 삽입된 구성으로 제작 ⑥ 수어해설가가 화면에 크게 제시되고 자료 사진은 상단에 작게 삽입되고 화면 하단에 수어해설 전체 내용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제작 ⑦ 수어해설가가 설명을 한 후 수어해설가는 사라지고 자료 사진이 전체 화면으로 제시되는 방식, 이때 수어해설의 중요 내용만 요약하여 자막을 제공하는 구성하여 제작.
수어해설동영상 자막방식	① 수어해설과 자막이 일치되는 정확한 작업을 위해 한국수어를 이해하는 경력자가 작업. ② 수어해설과 동시에 자막도 함께 제공.
자막 크기와 자막 위치 고려사항	③ 두 가지 표본(한국수어로 해설, 유사체계수어로 해설)에 삽입되는 자막은 같은 내용의 자막 삽입. ④ 수어해설가의 해설과 자막이 최대한 일치되고 있는지 수어해설을 보면서 확인. ⑤ 수어해설가의 해설과 자막 간에 소요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장이나 의미단위로 조절하여 해설내용에 맞추어 자막처리.

범 주	제작지침
주요내용	
동영상화면 수어해설가 크기	① 화면에 수어해설가와 자료 사진을 50:50으로 나눔.
전체화면에 수어통역사의 크기가 작으면 불편함	② 수어해설가를 화면에 크게 제시하고 자료 사진은 상단에 작게 삽입하여 수어해설가의 동작 안에 겹치지 않게 하여 제작 ③ 수어해설가의 전신이 화면에 나오는 방식으로 하여 해설하는 모습으로 제작. ④ 화면에 수어해설가의 크기를 TV뉴스에서 아나운서가 크게 나와 진행하는 모습과 같이 제작
동영상 바탕 배경화면 색상	① 수어해설가의 수어해설모습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함.
기존 파란색 배경 외에 다른 색상들	② 배경색상을 수어해설가의 손과 얼굴표정이 잘 보일 수 있는 색상(연녹색, 하늘색, 회색 등)으로 제작. ③ 수어해설가의 피부색과 비슷한 색상이나 흰색은 사용하지 않음
배경과 수어해설가 동시에 들어갈 때 수어해설가의 크기	① 화면에 수어해설가와 자료 사진을 50:50으로 나눔.
수어해설가의 크기(예, 한국농아방송I-DBN)	② 수어해설가를 화면에 크게 제시하고 자료 사진은 상단에 작게 삽입하여 수어해설가의 동작 안에 겹치지 않게 하여 제작 ③ 수어해설가의 전신이 화면에 나오는 방식으로 하여 해설하는 모습으로 제작. ④ 화면에 수어해설가의 크기를 TV뉴스에서 아나운서가 크게 나와 진행하는 모습과 같이 제작.
배경과 수어해설가 동시에 들어갈 때 수어해설가 위치	① 배경과 함께 수어해설가의 위치를 잘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제작
오른쪽 / 왼쪽/ 화면 가운데 / 기타	② 경우에 따라 왼쪽에 위치.

범 주	제작지침
주요내용	
배경 수어해설가 자막을 동시 제작하는 경우 자막과 수어해설가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어해설가를 화면에 크게 제시하고 자막은 아래에 삽입하되 적당한 크기로. ② 수어해설가를 화면에 크게 제시하고 수어해설가의 동작 안에 자막이 겹치지 않게 하여 제작.
자막의 크기와 수어해설가의 위치에 대한 고려사항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수어해설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어해설가와 배경화면이 동시에 움직이며 진행되는 방식으로 제작. ② 수어해설가가 설명을 한 후 수어해설가는 사라지고 자료 사진이 전체 화면으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제작 ③ TV뉴스에서 기상캐스터가 ‘일기예보’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작
화면과 수어해설가가 동시에 움직이며 진행, 수어해설 후 화면으로 보여주는 방식, TV뉴스 진행화면의 예	
수어해설가의 의상	
수어해설가에 맞는 의상의 색상과 문화시설에 맞는 의 상고려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단색 계열의 다양한 색상으로 차분하고 어두운 색 ② 화려하거나 시선을 분산시키는 무늬로 된 의상은 피함 ③ 액세서리 착용은 수어의 가독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착용하지 않음. ④ 타이트하거나 노출이 과한 의상은 피한다. ⑤ 해당문화시설의 성향에 맞는 스타일의 의상
수어해설가의 기준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한국수어와 한국어 문해능력에 능통한 자. 풍부한 표현력으로 시각적인 설명에 능통한 자. 농인 또는 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②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구사함. ③ 수어표현에 스스로 감수 가능한 능력 갖추 ④ 한국수어와 한국어 문해 능력에도 능통. ⑤ 한국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여 수어로 해설하는 표현에 능통. ⑥ 비수지기호나 제스처어, 그리고 풍부한 표현력으로 시각적인 설명에도 능통 ⑦ 해당 문화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해 ⑧ 청인일 경우농인의 언어인 한국수어와 표현력에 능통해야함.

3.3.2 수어 해설 동영상 표본 제작

수어해설동영상 표본 제작을 위해 연구진이 회의를 거쳐 농인 이용 빈도 및 욕구가 높은 문화시설로 선정된 ‘경복궁’,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시립미술관’ 4곳의 문화시설에 대한 기관 소개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2분 분량으로 최종 결정한 후 표본1, 표본2로 나누어 촬영하여 8편의 영상을 완성하였다.

<표3-40> 수어 방식에 따른 동영상 제작

수어 방식	대상	수행 계획
표본 1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및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시나리오 완성 - 한국수어에 능숙한 농인 당사자를 모델로 섭외 - 연구진이 촬영 전반을 검수하며 촬영 진행 - 자막 삽입 및 편집 작업 - 검수 후 완료
표본 2	유사 수어체계를 사용하는 농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및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시나리오 완성 - 유사수어체계에 능숙한 모델 섭외 - 연구진이 촬영 전반을 검수하며 촬영 진행 - 자막 삽입 및 편집 작업 - 검수 후 완료

농인에게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식은 농인이 한글의 영향을 받아 한국수어 고유의 특성이 나온 자연스러운 영상을 촬영하는데 제약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없이 현장에서 현재 역사문화해설사로 근무하고 있는 농인의 해설을 촬영하여 한국수어로 자연스럽게 농인의 생동감 있는 이야기 구성 방식이 반영된 수어 해설 동영상을 만들고자 하였다.

농인의 이용 빈도가 높고 실제로 역사문화해설사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으로 ‘덕수궁’을 선정하였으며, 이곳에서 농역사 문화해설사로 근무하고 있는 농인 모델을 섭외하였다. 또한 농인에게 최대한의 문화정보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편집방법을 알아보고자 동일한 영상을 7가지의 편집 방법으로 나누어 7개의 영상을 제작하였다. 자세한 동영상의 편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3-41> 편집 방법에 따른 동영상 제작

순번	편집 방법
1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data-bbox="290 917 1163 952">수어모델과 자료사진이 화면의 50:50비율로 나누어져 화면에 동시에 나옴</p>
2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data-bbox="290 1514 1122 1549">수어모델이 화면에 크게 들어가며 자료 사진은 상단에 작게 들어감</p>

순번

편집 방법




3



수어모델이 설명을 한 후 수어모델은 사라지고, 자료사진이 전체화면으로 나옴

순번	편집 방법
4	 <p data-bbox="294 797 1160 832">수어모델이 실제 문화기관에 가서 촬영하여 수어해설 동영상을 촬영함</p>
5	 <p data-bbox="294 1371 1160 1483">실제 문화 기관을 촬영하고, 수어모델은 스튜디오 안에서 해설 내용을 촬영함. 이후에 크로마키 기법으로 실제 문화 기관을 촬영한 배경에 수어모델을 삽입함.</p>

순번	편집 방법
6	<div data-bbox="294 285 1163 774">  <p data-bbox="353 707 1104 736">1897년(고종 34년) 고종황제 재위 시 경운궁은 궁궐로서의 규모와 격식을 갖추게 되었다</p> </div> <p data-bbox="294 797 1163 871">수어모델이 화면에 크게 들어가며 자료사진은 상단에 작게 들어감. 또한 화면의 하단에는 수어해설의 전체 내용을 자막으로 삽입</p>
7	<div data-bbox="294 904 1163 1387">  </div>

순번	편집 방법
	 <p data-bbox="293 794 1159 909">수어모델이 설명을 한 후 수어모델은 사라지고, 자료 사진이 전체화면으로 나옵니다. 또한 화면 하단에 수어해설의 내용 중 중요내용만 요약하여 자막을 삽입</p>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표본1, 표본2에 따른 영상 8편, 동영상 편집 방법에 따른 7편 총 15편의 영상을 제작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4.1 결론

첫째, 농인의 문화시설 이용 실태 및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문화시설 방문 빈도

농인들은 최근 1년간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종교시설(청인)은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박물관, 유적지, 체육시설, 유명 관광지, 영화관(한국영화 상영), 영화관(외국영화 상영), 동물원/식물원은 1-3회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종교시설(농인)의 경우, 10회 이상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농인들이 농인 종교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화시설을 거의 방문하지 않거나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특히 도서관과 미술관, 공연장, 청인 종교시설과 같은 문화시설은 방문한 경우가 드물었고, 유명 관광지, 유적지, 영화관, 체육시설, 박물관, 동물원/식물원과 같이 여행이나 여가생활 관련 문화시설은 이용 경험이 있었으나 이 경우도 1-3회 수준의 낮은 이용 실태를 보였다. 농인들이 현재 거의 모든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문화시설별 필요한 지원

박물관과 미술관, 유적지, 체육시설, 유명 관광지, 공연장, 동물원/식물원, 청인 종교시설, 농인 종교시설에는 농인 수어해설가(통역사) 배치와 수화 통역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도서관의 경우, 수화 통역사 배치와 수어 동영상 제공이 필요하다고 많이 응답하였고,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의 경우 수화 통역사 배치와 문자 전광판 제공이 필요하다고 많이 응답하였다. 또한 외국영화 상영 영화관의 경우, 쉬운 글 등 대체텍스트 제공과 문자 전광판 제공이 필요하다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농인들은 대부분의 문화시설에서 농인 수어해설가(통역사)나 수화 통역사와 같은 인적 서비스를 통해 문화 정보를 제공 받기를 선호하였다. 예산 등의 이유로 수어 동영상 서비스로 대체할 수도 있겠으나, 일방적인 정보 제공보다는 양방향 의사소통 가능한 서비스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시설에 따라 선호하는 지원 서비스가 다를 수 있기에 문화시설 특성에 따라 농인들에게 적

합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 문화시설 이용 시 농인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50대의 경우 모르는 편이다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거주지에 관계없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모르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 언어가 구어 중심인 경우 모르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농인들은 현재 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농인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했다.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추가 홍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전 농인을 위한 서비스 있는지 여부 확인 방법

10대는 가족, 친구, 지인을 통해 알아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은 알아보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녀 모두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읍면군이 현재 거주지인 경우, 알아보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지역인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농아인협회에 문의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 언어에 관계 없이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농인들은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전 문화시설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홈페이지 접근 환경과 탑재 정보를 보다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농인에게 필요한 정보(예, 수화통역, 쉬운 글, 문자 통역/속기 등)의 적절한 제공 여부

대부분의 연령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0대의 경우 보통이다, 40대의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성은 그렇지 않다, 남성은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별시나 광역시, 읍면군이 현재 거주지인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학력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언어에 관계없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농인들은 농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절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앞으로 모든 문화시설에서 농인들의 정보접근을 위해 수화통역 및 쉬운 글, 문자 통역/속기 등의 정보접근 서비스를 전문 인력을 통해서나 홈페이지, QR코드 등을 통해 수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 농인에게 필요한 정보접근기기(예, 영상전화기, 문자 전광판 등)의 적절한 제공 여부

농인에게 필요한 정보접근기기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10대의 경우 그렇다, 40대의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성의 경우 보통이다,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소도시의 경우 그렇다, 다른 지역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력에 따라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 언어가 수어 중심이거나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구어 중심인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농인들은 정보접근기기 등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앞으로 모든 문화시설에서 영상전화기와 문자 전광판 등의 설치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문화시설의 홈페이지 온라인 정보접근 환경(예, 수어동영상, 쉬운 글 등)의 적절성 여부

문화시설 홈페이지에서 농인을 위한 온라인 정보접근 환경이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가 묻은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연령별로는 10대의 경우 그렇다, 20대는 그렇지 않다, 30-40대는 보통이다, 50대 이상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성은 보통이다 여성은 그렇지 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거주지가 특별시나 광역시인 경우 보통이다, 중소도시는 그렇다, 읍면군인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경우, 그렇다,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 언어가 구어 중심인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농민들은 문화시설의 홈페이지 온라 접근 환경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앞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문화시설에 관한 정보와 이용 방법, 문화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도록 수어 동영상, 쉬운 글 등을 제공하여 농민을 위한 정보접근 환경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기존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기존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만족도를 어떠한지 물어본 결과, 대체로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는 만족한다, 20-40대는 보통이다, 50대 이상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녀 모두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거주지가 읍면군인 경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지역의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른 경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 언어에 관계 없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농민들은 기존 문화시설을 이용하면서 만족도가 높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농민들의 문화시설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수화통역사가 배치된 문화시설 이용 경험 여부

수화통역사가 배치된 문화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와 40대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다른 연령대는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성별과 현재 거주지에 관계없이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최종 학력에 따라서는 무학, 중학교 졸업, 대학 재학인 경우 이용 경험이 있다

는 응답이 더 많았고, 다른 경우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농인들을 위해 수화 통역사를 배치하고 농인 문화해설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 문화시설이 있으나, 농인들이 아직까지 이용 경험이 많지 않았다. 앞으로 더 많은 문화시설에 농인 문화해설사 혹은 수화 통역사 배치가 필요할 것이다.

· 문화시설 배치 수화통역사 서비스의 불편한 점

문화시설에 배치된 수화통역사를 통해 정보접근 서비스를 제공 받았을 때, 대체로 사람이 많아 수어를 잘 보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사람이 많아 수어를 잘 보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40대의 경우, 수화통역사가 하는 수어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성별에 관계없이 사람이 많아 수어를 잘 보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거주지가 특별시나 광역시, 중소도시인 경우, 사람이 많아 수어를 잘 보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읍면군의 경우 수화통역사가 하는 수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많아 수어를 잘 보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무학 응답자들들의 경우, 수화통역사가 하는 수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수어 중심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사람이 많아 수어를 잘 보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구어 중심으로 의사소통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수화통역사가 하는 수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부 문화시설에서 수화통역 서비스나 문화해설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수화를 보기 어렵거나 수화통역사의 수화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기존 문화 해설 및 수화 통역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농인 수어해설가가 문화시설을 수어로 설명할 때 적절한 해설 방법

농인 수어해설가 문화시설을 수어로 설명할 때는 연령, 성별, 현재 거주지, 최종 학력,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한국수어로 해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농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수어로 문화시설의 문화정보들을 해설 받기를

원하였다. 농인을 위해 수어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농인 및 청인 통역사(해설사) 교육과 수어 동영상에 제작에서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농인을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더 자주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

응답자들은 문화시설에서 농인을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아래 문화시설 모두 앞으로 더 자주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앞으로 더 자주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높은 문화시설은 유명 관광지,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박물관, 체육시설, 유적지,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공연장, 동물원/식물원, 미술관, 농인을 위한 종교시설, 도서관, 청인 종교시설 순이었다.

농인들은 모든 문화시설에서 농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정보접근 환경이 마련된다면, 모든 문화시설을 더 자주 이용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유명 관광지,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박물관, 체육시설, 유적지,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공연장과 같이 여행 및 여가생활 관련 문화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겠다고 하였다.

·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을 3개만 고르도록 했을 때, 1순위로 선택한 문화시설은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유명 관광지, 체육시설,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유적지, 도서관, 외국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기타문화시설, 청인 종교시설, 동물원/식물원, 농인 종교시설 순이었다.

농인들은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보고 싶다고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장애인영화제를 통해 보고 싶은 한국영화를 한글 자막과 수화통역으로 볼 수 있을 뿐, 평상시 한국영화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농인들의 요구가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외에도 농인들은 여행이나 여가생활 관련 문화시설들에 대한 이용 욕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문화시설을 농인들이 항상 자유롭게 이용하고 빈번하게 이용하는 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문화시설 접근 환경 및 정보접근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고른 결과를 3가지 선택한 다중선택 결과로 처리한 결과, 유명 관광지, 박물관,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유적지, 미술관, 도서관, 외국영화 상영 영화관, 동물원/식물원, 청인 종교시설, 농인 종교시설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 성별, 현재 거주지별, 최종 학력, 사용 학력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연령의 경우, 10대는 체육시설, 20대는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 30대는 박물관, 40대와 50대 이상은 유명 관광지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녀 모두 성별에 관계없이 유명 관광지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거주지의 경우,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 중소도시와 읍면군의 경우 유명 관광지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유명 관광지,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 대학 재학 중인 경우 유명 관광지, 대학 졸업인 경우 박물관과 유명 관광지를 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 언어에 따서는 수어 중심인 경우 유명 관광지, 구어 중심인 경우 공연장,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하는 경우 유명 관광지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다고 우선순위를 두어 답한 응답들 중 1순위 응답 빈도에 3배, 2순위 응답 빈도에 2배, 3순위 응답 빈도에 1배의 가중치를 두어 합산하고 다중응답 처리한 결과,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문화시설은 유명 관광지,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 박물관, 체육시설, 공연장, 유적지, 미술관, 도서관, 외국영화 상영 영화관, 동물원/식물원, 청인 종교시설, 농인 종교시설 순이었다.

이를 연령별, 성별, 현재 거주지별, 최종 학력, 사용 학력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10대와 20대의 경우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을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30대는 박물관, 40대와 50대 이상은 유명 관광지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경우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을, 여성의 경우 유명 관광지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거주지에 따라, 특별시나 광역시는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을, 다른 지역의 경우 유명 관광지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유명 관광지를, 중학교 졸업의 경우 체육시설,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을, 대학 재학 중인 경우 유명 관광지를, 대학 졸업인 경우 박물관을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 언어에 따라서는 구어 중심인 경우 공연장, 수어 중심이거나 수어와 구어 모두 사용하는 경우 유명 관광지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4-1> 농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

	1순위	3가지 다중 선택	1~3순위별 가중치
1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	유명 관광지	유명 관광지
2	유명 관광지	박물관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
3	체육시설	한국영화 상영 영화관	박물관
4	박물관	공연장	체육시설
5	공연장	체육시설	공연장
6	미술관	유적지	유적지
7	유적지	미술관	미술관
8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9	외국영화 상영 영화관	외국영화 상영 영화관	외국영화 상영 영화관
10	청인 종교시설	동물원/식물원	동물원/식물원
11	동물원/식물원	청인 종교시설	청인 종교시설
12	농인 종교시설	농인 종교시설	농인 종교시설

·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원 정보를 얻는 방법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원 정보를 어떻게 얻기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체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0-30대는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40대 이상은 농아인협회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녀 모두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 거주지 관계없이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농아인협회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는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농인들은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관련 정보와 문화정보를 문화시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얻기를 바라고 있다. 앞으로 모든 문화시설의 홈페이지에 농

인을 위한 수어 동영상 및 쉬운 글 등의 정보접근 서비스를 통해 문화시설 관련 정보와 문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초점집단 인터뷰를 통해서 농인들이 이용하는 문화시설과 이용하지 못하는 문화시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문화시설 중 영화관이 농인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외국영화에 한글자막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한국 영화를 관람할때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막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면해설 제공서비스가 같이 제공되는 경우 난청인들은 많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농인들은 주로 외국영화를 관람하지만 한국영화에 자막제공이 늘어난다면 농인들의 한국영화 관람이 많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미국에서 사용되는 개인자막시스템이 한국에서도 시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은 단체로 가면 수화통역사와 사전에 약속을 하여 수화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박물관을 방문하게 될 경우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 받기 어려워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극과 뮤지컬은 자막 제공과 수화통역사 배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일 이용하기 힘든 문화시설로 나타났다. 관광시설도 농인의 정보 접근이 많이 어려워서 이용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농인을 대상으로 수어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농인들의 이용이 많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농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런 도서관 서비스가 농아인협회 내에서 시행되어 농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어해설동영상에 관해서는 수화통역사(또는 수어해설가)와 수어해설동영상의 역할이 달라서 두개 다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어해설동영상은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방식으로 질문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방식을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수화통역사 (또는 수어해설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수어해설동영상 제작시 수어해설 능력이 뛰어난 농인통역사가 수어모델로 참여하여 질 높은 수어해설 동영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이 있었다.

초점집단 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어 기반의 정보 접근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농사회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수어 기반 정보 접근 환경이 구축도 중요하지만 정보 접근에 대한 홍보 역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영화 자막제공이 더 늘어난다면 농인들의 한국영화 관람이 많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영화 자막제공 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영화 화면해설 제공 서비스가 분리되어 상영되면 농인들의 불편함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도서관은 농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접근성이 좋아야 더 많은 농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초점집단 인터뷰 참여자들은 문화시설에 수어해설사가 배치되는 것이 최선이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차선으로 수어 해설 동영상 설치도 좋다고 하였

다. 하지만 수어해설 동영상 설치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주요 문화시설의 시설접근성, 정당한 편의 제공, 웹 정보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성 정보를 텍스트로 전달하는 전광판 설치와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기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홈페이지에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관한 내용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에서 농인을 위한 정보접근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지금까지 요청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농인이 문화시설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문화시설 대상 인식 개선과 홍보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농인 문화시설 체험단을 운영한 결과 문화시설 농인 문화해설사 제도에 대한 홍보와 농인 문화해설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어 중심 언어생활, 구화 중심 언어생활, 필담 중심 언어생활 등 언어적 환경이 다양한 농인에게 적합한 문화정보 형태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언어생활에 특화된 포맷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3가지 언어생활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히 조화된 수어 해설 동영상 제작이 전체 농인에게 효율적인 문화정보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영상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여 편집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수어 해설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효율적인 화면 구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소개하고자 하는 문화시설의 특성과 문화 해설의 난이도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농인이 선호하는 해설 화면 구성 유형을 크게 7가지로 파악하였다.

가장 선호하는 순으로, 1) 수어 모델과 자료 사진이 절반으로 나뉘는 구성(수어 전개가 시원하며 자료 제시도 집중하기 좋음), 2) 수어 모델이 화면에 크게 제시되고 자료 사진은 상단에 작게 삽입된 구성(수어 모델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스토리텔링 전개하기 좋음), 3) 수어모델 단독 해설 진행 후 자료 전체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구성(추상적 해설 전개 후 자료의 세부사항을 관찰하기 좋음, 역방향도 가능함) 4) 수어 모델이 실제 문화기관에서 촬영하는 구성(현장감 다큐 진행 느낌 살리기 좋음) 5) 실제 문화 시설을 배경으로 하고 수어 모델은 크로마키 기법으로 삽입된 구성(배경을 부각하기 좋음), 6) 수어 모델이 화면에 크게 제시되고 자료 사진은 상단에 작게 삽입,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제공하는 구성(스토리텔링에 자막을 덧붙임으로써 전문용어 설명하기 용이함), 7) 수어 모델의 해설 진행 후 바로 전체 자료 사진으로 전환하면서 자막을 삽입하는 구성(추상적 해설, 세부적인 자료 제시, 연관 전문용어 풀이 등 제시하기 좋음) 하는 식으로 파악되었다.

4.2 정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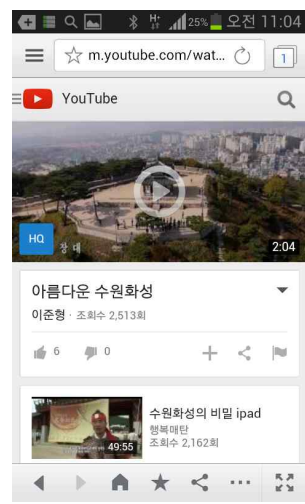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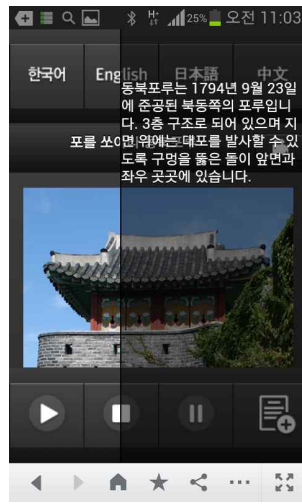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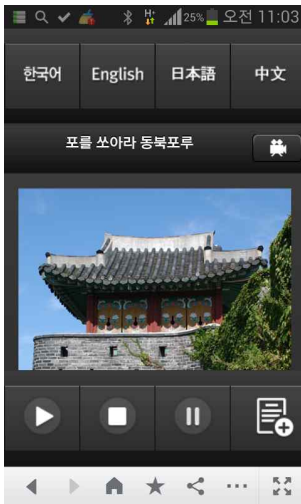
첫째, 농인의 문화 정보 접근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문화시설 운영 책임자 및 담당자의 농인 친화적인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농인을 위한 시설이나 편의 제공의 어려움 발생 원인은 과도한 재정 투입 때문이 아니라 농인을 위한 정보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지금까지 요청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농인의 문화 정보 접근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문화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과 청각장애인 관련 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문화시설에 수어통역사가 항상 상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한두 명 수어통역사로는 각자 다른 문화 시설 관람을 희망하는 농인이 몰릴 경우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시설에 배치된 수어통역사는 안내 또는 편의 제공이나 급한 용무 중심으로 통역서비스에 전념하고, 농인 이용자가 스스로 이용 또는 관람하고 싶어하는 요소마다 QR 코드로 연결되는 수어 해설 영상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인 문화 시설 향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농인 이용자가 수어 해설 동영상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 농인 이용자는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농인 이용자를 위해서 QR코드 읽어서 재생 가능한 단말기가 항상 대역할 수 있도록 안내소마다 구비되어야 한다(QR은 'Quick Response'의 약자로 '빠른 응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존 바코드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구성하여 눈에 띄기 쉬운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문화시설에서의 수어 기반 문화 정보 접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QR코드를 활용하여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수어 해설 동영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사업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 시도별 농인을 위한 영상자막제작센터 설립
각 지역 농아인협회 등과 협력하여 문화시설에서 농인을 위한 수어 동영상 제작 및 배포, 농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화 및 한글 자막 제작, 영상 편집, 문화정보 업데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의 설립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접근 환경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 문화시설 홈페이지에 농인을 위한 시설 안내 및 문화정보 수어 동영상 탑재
- 문화시설 홈페이지에 농인 전용 팩스번호와 이메일, 문자 수신 번호, SNS(카톡, 네이버 등) 아이디 병기
- 문화시설 전시공간이나 전시물마다 수어동영상 제시(QR코드나 키호스크, 별도 디스플레이 활용)
- 문화시설 안내 창구에 수화해설 가능 문화해설사나 직원 배치(농인/청인 수화해설가, 수화통역사, 수화 가능 직원 등)

- 문화시설 안내 창구에서 수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청기기 대여(PDA, 스마트폰 등)
- 기존 수화해설가 배치 문화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서울 고궁, 국립중앙박물관 등)
- 대표 문화시설 내 농인/청인 수화 문화해설사 배치
- 각 지역 농아인협회 및 수화통역센터와 연계한 농인을 위한 문화시설 탐방 프로그램 개발
-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시설 이용 및 서비스 안내 책자 제작(1년마다 주기적으로, 수어 동영상 포함)
- 농인을 위한 수어 동영상 제작 지침 및 표본 제작•배포
- 농인을 위한 문화시설 정보접근환경 실태 조사 실시(3년 마다) 후 문화시설 운영 평가에 반영
- 농인 문화시설 체험단 구성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
- 농인을 위한 문화시설 수어동영상 제공 법제화

장애인복지법 중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또는 수어 동영상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 또는 수어 동영상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와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④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

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어도서와 수어동영상 등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수어동영상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 영화관 등 문화시설별 농인정보접근환경 전수조사
- 농인 전용 도서관 및 영화관, 역사관(Deaf history) 건립
- 농인 전용 문화센터(연극, 뮤지컬, 문화행사 등) 건립
- 농인 문화 전문인력 양성(문화해설사, 영상편집, 수화모델, 수어 촬영, 농인을 위한 수어 및 한글 스트립트 작성)
- KBS 내 농인 방송국 설립
- 농인을 위한 쉬운 한국어 서비스 제공
- 농인을 위한 쉬운 한글(Easy Text) 서비스 제공

4.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이 연구에서는 농인의 문화 정보 접근 환경을 문화시설 정보 접근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농인의 문화 정보 접근은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농인의 정체성과 삶의 질, 수어 시(KSL poetry)와 같은 수어 문학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농인의 문화 정보 접근의 영역을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의 수어 해설 동영상에서 수어 유형은 한국수어(KSL)와 유사수어 체계(Signed Korean)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원래 의미의 한국의 수어는 한국수어이므로 수어 해설 동영상의 수어는 한국수어가 적절하나 유사수어 체계에 익숙한 농인의 요구가 있어서 두 가지 수어 유형 모두 제시하였다. 향후에 한국수어와 유사수어 체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연구와 한국수어의 언어학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농인의 문화시설 정보 접근을 위하여 현실적이고 유용한 방법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어 해설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스마트기기의 실제 작동 방법을 공학적인 측면과 실제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실제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등 부처별 협력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농인을 위한 수어 동영상 제작 지침 개발 연구(Signing Book & Video for Deaf Person)
- 문화시설 안내 및 문화정보 수어 동영상 제작●배포
- 문화시설 연계 농인을 위한 영상자막제작센터 운영 방안
- 농인을 위한 수어 문화해설사 양성 과정 개발
- 농인을 위한 문화시설 이용 및 서비스 가이드북 제작
- 문화시설 농인정보접근환경 체크리스트 개발 및 적용
- 농인 전문 문화센터 운영 방안
- 농인을 위한 정보접근 서비스(수어, 통역, 쉬운 한글, 한국말 등) 제공 지침 개발

참고문헌

- 강남대학교 (2012).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델 개발. 강남대학교.
- 강창욱, 원성욱, 김호연, 이정자 (2012).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델 개발**. 국립장애인도서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2013).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모델 개발. 국립장애인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07a).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국립장애인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07b).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 제정 연구. 국립장애인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12). **2011년 전국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국립중앙도서관.
- 김선주 (2008). **농아인의 정보접근이 자립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김철현 (2012). **청각장애인 역사문화관광에서의 제약요인과 선택요인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류재욱 (2003).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정보화 실태에 관한 연구: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조혜전, 정연경 (2012). 국내 공공도서관의 청각장애인 서비스 지침 개선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43(2), 223-244.
- 허일 (2010). 한국수화 연구방법 현황과 과제. **제12회 한국수화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홍성은 (2010). 수화언어학의 유도자료와 그 사용. **제12회 한국수화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Ball, A. R. (2011). Equal accessibility for sign language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ase Western Reserv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3(3), 759-798.
- Norton, M. J. (1992). Effective bibliographic instruction for deaf and hearing-impaired college students. *Library Trends*, 41(1), 118-150.
- Sandler, W. & Lillo-Martin, D. (2006). *Sign Language and Linguistic Universals*. Cambridge University.
- Supalla, T. (1982). *Structure and acquisition of verbs of motion and location in American Sign Languag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Sutton-Spence, R., & Woll, B. (1999). *The Linguistics of British Sign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vette, J., Vincent de Paul, R., & Elaine, A. (1996a). Deaf people and

libraries: Should there be special considerations? Part 1: traditional services. *New Library World*, 97.1125, 12–21.

Yvette, J., Vincent de Paul, R., & Elaine, A. (1996b). Deaf people and libraries—should there be special consideration? Part 2: materi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New Library World*, 97.1126, 13.

Zwitsersloot, I. (2003). *Classifying hand configurations in Nederlandse Gebarentaal (Sign Language of the Netherland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Utrecht.

<Abstract>

A study on sign language–based cultural information access support for the Deaf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sign language based access to cultural information and its environmental support for signing deaf people. This research has three aims.

The first aim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deaf people concerning their cultural life. How does the cultural life of deaf people look like? What kind of cultural facility are they using? How often do they use it? How high is the degree of satisfaction referring to the special service offered for deaf people? And are there any other kind of needs, which should be provided? These questions and more were asked in form of a survey with 400 deaf persons and in form of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9 deaf and hearing persons.

The second aim was to investigate the service for deaf people in public cultural facilities. In order to get an overview of the offered services, the homepage of the cultural facilities were inspected and the person in charge was called and asked to answer a set of questions concerning the facility's accessibility for deaf people. Besides, a team of four field workers visited a number of major national cultural institutions in order to check the accessibility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eaf. For an insight abroad the Building of the National Parlia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Reichstag Building) in Berlin and the 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also located in Berlin has been inspected and introduced by a deaf field worker.

The third aim was the production of 15 sign language video samples and the formulation of guidelines making such sign language videos. The sign language videos introduce a number of different settings such as the size of the sign language moderator, subtitles, background of the moderator, and so on. The video samples as well as the guidelines will serve as reference material when cultural facilities produce sign language videos containing information about their facility for deaf visitors.

At last this study ends with the discussion of the results and a proposal, which is suggested in order to guarantee deaf people the right to cultural information access for the future.

Key words: sign language, deaf, access of culture, cultural facilities, sign language moderator

부록

1. 설문지

농인 문화정보 접근 환경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은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가 진행하는 ‘수어기반 문화정보 접근환경지원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농인들의 문화시설 이용과 욕구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은 수어에 기반한 문화정보 접근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이 본 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응답해주신 설문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책임자 : 한국농아인협회장 변승일 드림

문의 연락처 (이현화): 메일: lhh1127@hanmail.net

휴대폰: 010-5699-1877

국립국어원 ·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I. 응답자 특성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1. 나이

1-19	20-29	30-39	40-49	50-

2. 성별 ① 남 ② 여

3. 현재 거주지

특별시 · 광역시	중소 도시	읍 · 면 · 군

4. 최종 학력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이상

5. 나는

- ① 수어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농인이다.
- ② 구어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농인이다.
- ③ 수어와 구어를 모두 사용하는 농인이다.

II. 문화시설 이용 현황과 개선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 주십시오.)

6. 최근 1년간 아래 문화시설을 어느 정도 방문하셨습니다?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① 박물관					
② 도서관					
③ 미술관					
④ 유적지					
⑤ 체육시설 (운동 경기장, 스포츠 센터 등)					

	없음	1-3회	4-6회	7-9회	10회 이상
⑥ 유명 관광지					
⑦ 공연장					
⑧ 영화관: 한국영화 상영					
⑨ 영화관: 외국영화 상영					
⑩ 동물원 · 식물원					
⑪ 종교시설: 청인 단체					
⑫ 종교시설: 농인 단체					
⑬ 기타:					

7. 아래 문화시설에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은지 시설별로 2가지씩 ✓ 표시해 주십시오.

	농인 수어 해설가 배치	수어 통역사 배치	수어 동영상 제공	쉬운 글 등 대체 텍스트 제공	문자 전광판 제공	홈페이지에 필요 정보 제공	영상 전화기 등 정보 접근 기기 제공	농인 전용 연락처 예: 문자, 카카오톡	장애인 전담 직원 배치
① 박물관									
② 도서관									
③ 미술관									
④ 유적지									

	농인 수어 해설가 배치	수어 통역사 배치	수어 동영상 제공	쉬운 글 등 대체 텍스트 제공	문자 전광판 제공	홈페이지에 필요 정보 제공	영상 전화기 등 정보 접근 기기 제공	농인 전용 연락처 예: 문자, 카카오톡	장애인 전담직원 배치
⑤ 체육시설 (운동경기장, 스포츠 센터 등)									
⑥ 유명 관광지									
⑦ 공연장									
⑧ 영화관: 한국영화 상영									
⑨ 영화관: 외국영화 상영									
⑩ 동물원 · 식물원									
⑪ 종교시설: 청인단체									
⑫ 종교시설: 농인단체									
⑬ 기타:									

8. 그 외에 농인을 위한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적어주십시오.

9. 위와 같은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농인을 위한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아주 잘 알고 있다	아는 편이다	보통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10. 위와 같은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농인을 위한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어떻게 알아보고 있습니까?

- ① 알아보지 않고 그냥 간다.
- ②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본다.
- ③ 농아인협회에 문의한다.
- ④ 가족, 친구, 지인을 통해 알아본다.
- ⑤ 기타: _____

11. 위와 같은 문화시설이 농인에게 필요한 정보(예: 수어통역, 쉬운 글, 문자통역/속기 등)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위와 같은 문화시설이 농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접근 기기(예: 영상전화기, 문자전광판 등)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3. 위와 같은 문화시설의 홈페이지가 농인을 위한 온라인 정보접근 환경(예: 수어 동영상, 쉬운 글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4. 위와 같은 문화시설을 이용하신 후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5.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는 문화시설을 방문하여 수어통역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16. 문화시설에 배치되어있는 수어통역사로부터 통역을 제공받을 때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사람이 많아 수어를 잘 보기 어렵다.
- ② 설명이 너무 빠르다.
- ③ 수어통역사가 하는 수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④ 기타: _____

17. 농인수어해설가가 문화시설을 수어로 설명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설명하기 원하십니까?

- ① 한국수어로 해설
- ② 유사수어체계(문장식 수어)로 해설
- ③ 기타: _____

18. 귀하께서는 문화시설에서 농인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면 어떤 문화시설을 더 자주 이용하고 싶은지 문화시설별로 표시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자주 이용하고 싶다	앞으로 더 자주 이용 할 생각 없다
① 박물관		
② 도서관		
③ 미술관		
④ 유적지		

	앞으로 더 자주 이용하고 싶다	앞으로 더 자주 이용 할 생각 없다
⑤ 체육시설(운동경기장, 스포츠 센터 등)		
⑥ 유명 관광지		
⑦ 공연장		
⑧ 영화관: 한국영화 상영		
⑨ 영화관: 외국영화 상영		
⑩ 동물원 · 식물원		
⑪ 종교시설: 청년단체		
⑫ 종교시설: 농인단체		
⑬ 기타:		

19. 18번 문항의 13개 시설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싶은 문화시설을 3개만 골라 원하는 순서대로 써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20.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지원정보를 어떻게 얻기 원하십니까?

- ① 방문하고자 하는 문화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 ② 농아인협회를 통해
- ③ 수어통역사나 통신중계서비스(TRS)를 통해
- ④ 기타: _____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설문지 동영상(CD 수록)

<붙임 2> 설문조사 질문지 수어 동영상(예시)



7. 아래 문화시설에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은지 시설별로 2가지씩 ✓ 표를 해 주십시오.

- ① 박물관
- ② 도서관
- ③ 미술관
- ④ 유적지
- ⑤ 체육시설 (운동경기장 스포츠 센터 등)
- ⑥ 유명 관광지
- ⑦ 공연장
- ⑧ 영화관 : 한국영화 상영
- ⑨ 영화관 : 외국영화 상영
- ⑩ 동물원, 식물원
- ⑪ 종교시설 : 청인단체
- ⑫ 종교시설 : 농인단체
- ⑬ 기타



농인 수어 해설가 배치 / 수화 통역사 배치

3. 문화시설 수어기반 정보접근 환경 조사표

기관명 : _____

항목	점검사항	예	아니 오	참고사항
시 설 접 근 성	비상벨 설비 주변에 점 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설치 여부			
	비상경보등 제공하지 않은 이유			<input type="checkbox"/> 지금까지 요청 받은 적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비용이 많이 들어서 <input type="checkbox"/> 필요성을 못 느껴서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몰라서(또 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음성 정보 전광판 활용 텍스트 제공 여부			
	전광판 제공하지 않은 이유			<input type="checkbox"/> 지금까지 요청 받은 적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비용이 많이 들어서 <input type="checkbox"/> 필요성을 못 느껴서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몰라서(또 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정 당 한 편 의 제 공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 기(<u>보청기</u> , 화상전화기 등)나 수어통역, 쉬운 글 등 <u>대체텍스트</u> 제공 여부			<input type="checkbox"/> 화상전화기 활용(110콜센터 포함, TRS 등) <input type="checkbox"/> 수어통역사(또는 수어해설사) 근무 <input type="checkbox"/> 인근 수어통역센터에 수어통역사 요청 <input type="checkbox"/> 수어해설 영상 제공 <input type="checkbox"/> 쉬운 글 등 대체텍스트 제공 <input type="checkbox"/> 문자통역, 속기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기가 실제 작동함		
	상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조인력 (필답 등) 제공 여부		보조인력의 종류:
	장애인 전담직원 배치 여부		
	상기 서비스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input type="checkbox"/> 지금까지 요청 받은 적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비용이 많이 들어서 <input type="checkbox"/> 필요성을 못 느껴서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몰라서(또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웹 정보 제공	홈페이지에 장애인 시설 활용 관련 정보 제공 여부		
	상기 서비스 제공하지 않는 이유		<input type="checkbox"/> 지금까지 요청 받은 적이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비용이 많이 들어서 <input type="checkbox"/> 필요성을 못 느껴서 <input type="checkbox"/>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몰라서(또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4. 농인 방문체험단 면담 질문지

1. 귀 기관에 청각장애인이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방문합니까?
2. 귀 기관에 청각장애인이 1년 동안 몇 명 정도 방문합니까?
3. 귀 기관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4. 귀 기관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예, 수어 통역, 요약 안내문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5. 귀 기관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기(예, 영상 전화기, 문자전광판 등)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6. 귀 기관에서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적절한 온라인 정보 접근 환경(예, 청각장애인 이용 안내, 수어동영상, 요약 안내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7. 청각장애인이 귀 기관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 가장 큰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8. 청각장애인이 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9. 귀 기관에서 청각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0. 귀 기관에서 청각장애인이 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동영상으로 된 해설안내를 설치할 생각이 있습니까?

5. 농인 문화시설 체험단 방문 체험 보고서

1. 방문 전 정보수집 방법

1) 경북궁

- 경북궁뿐만 아니라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종묘, 북촌, 정동돌담길에 시청각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으며, 농인 관람객과 농학생들이 만족해하고 있음.
- 아직도 홍보 부족으로 농해설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농인들 많음.
- 농인이 문화해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에 예약신청 해야 되며, 늦어도 3일전 예약신청 해야 됨.
- 외국인의 경우에 어쩔 수 없는 일정 때문에 하루 전에 신청하면 해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농인입장에서는 예약하려면 종로구청홈페이지 방문해서 가입하고 또 농문화 해설 신청방법을 찾아서 신청해야 되는데, 종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절차 복잡해서 농인의 문화해설 신청이 많지 않음. 젊은 농인이라면 신청이 쉽겠지만 50, 60대 이상 농인들은 컴퓨터 사용이 쉽지 않음.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겠는데 보통 신청이 귀찮고 복잡해서 잘 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문화해설 서비스를 받기에 어려움이 있음. 단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이 혼자 신청해서 문화해설 서비스 받기가 어려움. 따라서 농인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문화시설에서 농인문화해설사가 상주하여 수시로 문화해설을 하면 사전 신청 없이도 농인에게 문화재 해설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문화시설은 상주 농인 문화해설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에서 정규직이나 계약직 농인문화해설사를 채용하면 경북궁뿐만 아니라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종묘, 북촌, 정동돌담길 등을 농인문화해설사가 다니면서 통역을 할 수 있음. 청인처럼 예약 없이 농인들도 바로 문화해설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음. 이전에 제주도에서 농인 관광해설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는데 농인 관광객이 별로 없어 불과 몇 달 만에 폐지되었음. 서울시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5대 궁궐이 있어 앞으로 농인 관광객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문화생활의 증진을 위하여 농인문화해설 서비스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함.
- 하지만 농인 해설사의 신분은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당 활동을 해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다른 일이 있을 경우에 문화해설을 못할 수도 있음.

2) 국립중앙박물관

- 홈페이지에 수어 전시 해설에 대한 안내가 있음. 전화예약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수어로 전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3) 국립공주박물관

- 홈페이지에 장애인 대상 관람 안내 내용이 없음.

4) 국립중앙도서관

- 홈페이지에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가 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안내되어 있음.

5) 국립현대미술관

- 홈페이지에 장애인을 위한 관람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2. 이동방법

- 청각장애인은 신체적 불편이 없어 거리이동에 문제없습니다.
- 공주박물관은 차가용 있으면 갈 수 있지만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찾아가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치나 표시판이 잘 안 보이고 버스도 시간을 몰라 불편함.
- 국립중앙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교통이 불편한 경우가 있음. 따라서 집근처 가까운 도서관마다 수어해설사가 배치되어 청각장애인의 시민행복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 주면 좋겠음.

3. 관람경비

- 고궁과 박물관 등 문화시설 입장료는 무료임.
- 궁궐에는 입장할 때 단체일 경우에 장애인입장권 얻으려면 한 사람씩 장애인증 보여줘야 입장권 받는 게 번거로움. 관광과에서 허가 받아 궁궐관리인에게 장애인해설사증 보여주면 무료입장을 할 수 있는데, 새로 온 관리인이 모를 경우에 가끔 다툼이 있음.
- 문화시설 입구에 지하철 매표소처럼 장애인복지카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으면 관리인 확인 없이 자유롭게 입장을 할 수 있어 편리할 것 같음.



4. 관람 편의 - 문화시설 내 정보수집, 의사소통지원, 지원기기

1) 경복궁

- 종로구청에서 운영하는 농인 문화해설사 제도를 통해 미리 신청하면 문화해설을 받아볼 수 있음.
- 농인을 위한 별도의 관람 편의기기는 구비되어 있지 않음.

2)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 대표 박물관답게 청인 수어통역사가 상주하고 있어 농인이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해도 언제든지 문화해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농인을 위한 별도의 관람 편의기기는 구비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수어통역사의 수어 문화해설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수어로 문화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수어 능력이 필요하며, 어려운 유물과 역사를 농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현재 청인수어통역사의 수어 문화해설 능력은 높지 않아 보임. 따라서 수어통역사의 문화해설 능력을 평가하고 향상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든 서울을 관광하는 내국인이든 가장 많이 찾는 곳인 만큼 관람의 편의를 위해서 농인 수어해설사가 해설하여 자랑스러운 5,000년 역사의 궁지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하면 좋겠음.

3) 국립공주박물관

- 농인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나 관련 편의기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음.
- 박물관에 들어가면 눈에 띄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안내 데스크가 있는

데 청각장애인관람객을 위한 수어통역사가 없고 청각장애인 관람자를 위한 배려가 없어 안타까웠음. 국립공주박물관의 모든 영상이 영어 자막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농인을 위한 자막이나 수어영상이 없어 대충대충 보고 나오는데 관람의 의미가 거의 없었음.



- 공주처럼 같은 도시의 경우에는 농인 관람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공주시수어통역센터의 수어통역사를 활용하여 농인이 사전에 신청하면 수어통역사가 문화해설을 해주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공주처럼 작은 규모의 도시의 경우 수어통역사나 농문화해설사가 상주하여 근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 사진처럼 앱 또는 QR코드를 이용하여 영상 또는 문자로 된 설명을 제공해 주면 좋겠음. 청각장애들이 더 좋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면 좋겠음.



4) 국립중앙도서관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청인수어통역사와 농인수어통역사가 상주해 있어 농인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편임.
- 다만 아직까지도 홍보 부족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서비스를 모르는 농인이 많음.
-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식과 위급상황을 문자로 알리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음.
-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서비스
 - ① 수어대면낭독 독서프로그램 : 수어 낭독 프로그램
 - ② 청각장애인 읽기 프로그램 : 농인 특히 농 어르신을 대상으로 책을 읽고 소감을 나누는 프로그램, 청각장애인이 주 1회 도서관을 방문하여 수어영상도서, 문자도서를 함께 읽고, 이야기하면서 책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제공함. 도서관 이용교육을 통한 자기 주도적인 독서 생활화를 돕는 참 좋은 서비스임. 개인적인 생각은 주 1회보다 매일(월~금) 방문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음. 청각장애인이 원하는 날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겠음. 가고 싶은 날 갔을 때 수어해설사가 비번일 경우에 헛걸음하게 되고 실망할 수 있음. 날짜 맞춰서 가는 게 번거로움.
- 청각장애인은 소리에 부주의하기 때문에 수어할 때 나는 소리나 걸을 때 나는 소리, 책을 넘길 때 나는 소리 등에 민감하지 않아 소음을 낼 때 이용자의 눈총을 받을 수 있음. 청각장애인도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좋겠음.



5) 국립현대미술관

- 청각장애인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회화나 조형물에 관심이 많아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함.
-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의 의도나 의미를 설명해 주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작품 설명은 없었음.
- 대구미술관은 현재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전시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어

수어통역사가 청각장애 관람객들에게 전시된 작품을 수어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국립현대미술관과 대구미술관을 비교하면 국립현대미술관은 화려한데 실속은 없음.
- 청각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다양하게 지원하면 좋겠음.
-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앱이나 QR코드를 이용하여 영상 또는 문자로 된 설명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앱이나 QR코드를 사용할 줄 모르는 청각장애인에게 수어영상 등 수어안내표시판을 설치하면 좋겠음. 현재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공주박물관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설치된 시설도 연계성이 매우 부족함.
- 청각장애인에게는 문화 콘텐츠 영상시청 지원, 청각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좋겠음.
-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청각장애인을 위해 '비주폰'을 준비해두면 영상으로 수어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필요한 기기를 지원하면 좋겠음.
- 국내에 장애인의 문화욕구와 권리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함. 비장애인과 동등한 장애인의 문화권에 대한 우리의 법적 뒷받침은 거의 선진국 수준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장애인 문화생활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등을 지원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면 좋겠음.

5. 위급상황 발생시-대피 안내

-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궁궐에는 관람하기 전 위급상황을 인지하는 법, 대피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음.
- 전에 농아인을 위해 경복궁에서 문화해설을 할 때, 안내 방송으로 문 닫을 시간이 다되어간다고 방송을 하였으나, 농인은 들을 수 없으니 계속 해설을 했었는데 관리인이 화내면서 손짓으로 나가라고 하였을 때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거칠게 소리 지르며 손짓하는 태도가 불쾌했음.
-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도 해설사가 없이 농인만 관람할 경우에 불이 났을 때 청인은 안내방송을 듣고 대비할 수 있지만, 청각장애인은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움. 청각장애인이 문화시설에서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진동문자 기기(커피점에서 주문할 때 기다리면 진동소리 보고 커피 가져오는 것)를 비치하면 좋을 것 같음. 농아인들은 진동에 민감함.
- 대형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위급 상황을 알리는 경광등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 청각장애인도 위험을 인지할 수 있어 대피하는데 도움이 됨. 앞으로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은 경광등 설치가 필요함. 또한 앞으로 경광등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을 문자로 보여주는 전광판 설치가 필요함. 전광판이 있다면 구

- 체적인 위험 상황을 농인이 보고 이해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함.
- 농인 방문객을 위해 위급 상황 발생 시 목걸이형 알람기기의 비치 필요함.

6. 만족한 점, 개선해야 할 점

1) 만족한 점

- 서울의 5대 궁궐에는 농인 문화관광해설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청인수어통역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청인수어통역사와 농인수어통역사가 있어 문화시설 이용에 도움이 됨.

2) 개선해야 할 점

(1) 경복궁

- 수문장 교대식 방송해설 가능한 PDA 등 장비 비치 필요
- 광화문광장 충무공, 세종 전시관 관람시설 내 PDA 상시 점검 필요
(조사2014.10.10금요일 PDA고장으로 사용 못함)
- 경복궁 매표소에 농인 해설사 홍보 광고 필요(예: 전광판)
- 위급 상황 알람기기 비치(예: 목걸이형)
- 경복궁은 대한민국 대표 관람지인 만큼 농인해설사 상시 배치 필요
- 궁궐의 농인 문화해설사들은 현재 문화해설 신청이 있을 때만 가서 해설해주고 하루 3만원을 받고 있음. 문화해설을 한 다음에는 해설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야 해설을 한 것이 인정이 되는데 가끔 사진 찍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음.
- 농인문화해설사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무제도가 필요함. 이전에 농인문화해설사 지위와 관련하여 정규직화를 희망하여 서울시장님 만날 기회가 있었음. 농인문화해설사를 정규직화 하거나 정규직이 어려우면 계약직화 해 주기를 요구하려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이 문제를 시장님과 논의하지 못하였음. 청인문화해설사 중 일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월 25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 사람이 많음. 따라서 농인문화해설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관람객 관리, 농문화해설사 교육과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하면 농문화해설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문화 예술 정보 제공의 평등성을 보장하며, 장애인 일자리도 확보하는 의미가 있음. 또한 청각장애인도 사회 기여의 의미가 있는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농인 문화해설사에게 청인 문화해설사와 동등한 대우를 해 주면 좋겠음. 특히 청각장애인들은 가장 불편한 의사소통 또는 정보전달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공연관람, 전시시설, 공공시설 등 의사소통과 정보습득에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정보통신의 접근성 보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함.
- 이제 한국은 디지털의 시대, 정보화 시대, 멀티미디어의 시대이기에 청각장애인

들에게 필요한 문화정보 앱이나 QR코드를 이용하는 수어영상 또는 문자로 된 설명, 문화 콘텐츠 영상시청 지원, '비주폰'과 같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지원된다면 청각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의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2) 국립중앙박물관

- 박물관 홈페이지 수어해설 동영상 필요
- 농인수어해설사 운영 요망(국립중앙박물관은 농인도슨트 교육을 양성하고 방치함)
- 대표적 특정적 유물에는 수어 동영상이 상영되는 해설 기기 설치 필요
- 관람 중 위급상황 발생 시 알람기기 비치 필요(예: 목걸이형)

(3) 국립공주박물관

- 지방 국립박물관은 수어통역사나 농인문화해설사가 없어 정보접근이 상당히 어려움.
- 국립공주 박물관의 특정 테마에 영상해설이 상영되고 있지만 한국어 음성, 영어 자막이 상영되어 공주 박물관을 관람하는 농인은 어떠한 해설도 볼 수 없음. 상영되는 화면에 수어 통역을 삽입하든지 별도의 수어 해설영상이 필요함.

(4) 국립중앙도서관

- 책이 필요할 때 방문해서 빌리는 과정과 절차가 아주 까다로움
- 농인 수어동영상 자료와 농인관련 자료 미비

(5)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은 수어통역사나 농인문화해설사가 없어 정보접근이 상당히 어려움.
- 수어해설사와 농인 수어해설사 양성 필요
- 각 작품의 도해와 해설 카탈로그이나 영상 PDA 단말기 비치 필요

6. 자문회의 내용

◎ 1차 자문위원회 회의

1차	일 시	2014년 8월 11일(월)
	장 소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내 회의실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위원 • 자문위원1(농인) • 자문위원2(농인) • 자문위원3(농인) • 자문위원4(청인) • 자문위원5(청인) • 자문위원6(농인) • 자문위원7(청인) • 연구원 • 공동연구원: 허일, 안영희, 이미혜 • 보조연구원: 오진영
회의 안건	• 연구 방향 자문 및 설문지 문항 검토	

1) 문화시설 이용 시 농인이 겪는 불편함

- 한국영화에 대한 농인의 수요는 크지만 제한적으로만 관람할 수 있어 농인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명화전시회에 갔을 때, 청인들은 큐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며 명화를 감상했지만, 농인들은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음.
-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농인이라면 욕구도 없을 것으로 판단됨. 연구의 방향에 이를 고려해야 함.

2) 문화시설 별 이용 욕구

가. 영화, 뮤지컬

- 한국영화에 자막 삽입이 의무화 되어야 함. 이것은 농인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청인에게도 유용한 서비스 임.
- 영화에 수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막, 수어 삽입은 관람자의 한글에 대한 지식 정도와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의 유무, 경험치 등을 반영

해야 함(사투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등)

- 한국영화, 외국영화 모두 자막만으로는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수어 해설이 필요한 때가 있음.
- 뮤지컬을 볼 때 자막이 좌우로 제공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방해가 됨. 극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함(외국에서는 개인 판넬을 통해 자막서비스를 제공함)

나. 고궁, 박물관

- 서울시에서 문화해설사 프로그램이 진행중인데, 농인에게 맞춤형 해설을 해 줌으로써 향후 농인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이번에 농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지를 경주로 선정한 이유는 수어해설사(청인)가 있기 때문임.
- 청인들이 오디오 가이드로 해설을 듣는 것처럼 농인들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기기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기기를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함.
- 극장과 도서관은 별도의 서비스를 진행하더라도, 그 외의 문화 시설에서는 농인에게 수어 동영상보다 직접적인 수어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음. 이는 수어로 현장감있게, 방문자 수준에 맞추어 해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외에도 농인의 일자리 창출 측면으로도 좋음.

3) 수어 동영상 제작

- 수어 동영상의 길이와 수어 용어의 난이도에 따라 이용률이 달라질 것임.
- 수어 동영상보다는 수어 가능자를 해설사로 배치하는 것이 농인에게 유용함.
- 우선순위가 높게 나온 시설은 수어 해설사를 배치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수어 동영상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새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만 적용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작된 수어 동영상에도 수어와 자막을 삽입해야 함.
- 부분적으로 수어와 자막이 삽입되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전체 내용을 자막, 수어로 전달해야 함.

4) 기타

- 장애인 전용관 같은 문화시설의 설립.
- 농인이 문화적인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로서 문화권이 제공되는 것이 당연함을 알리는 캠페인을 강원도에서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어느 곳이든 청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라면 농인에게도 같은 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2차 자문위원회 회의

1차	일 시	2014년 12월 1일(월)
	방 법	서면 회의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위원 • 권석현(대구농아인협회 수성구지부 지부장) • 박정현(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 손현희(춘천계성학교 교사) • 안석준(더 싸인 대표) • 원대연(강원도농아인협회 사무국장) • 이은영(서울시 농역사문화해설사) • 함혜원(서울농아교회 부목사)
	회의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해설 표본 영상의 편집 방법 중에 우선순위 선정 • 적합한 수어 영상 편집 방법 논의

1) 수어해설 표본 영상의 편집 방법(7가지) 중에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	7	1
4	6	7
7	6	5
5	1	
6	7	1
4	5	1
5	4	7

2) 수어해설 표본 영상의 편집 방법(7가지)의 장·단점

편집 방법	장점	단점	비고
1	- 무난한 방법	- 자막이 없음	

		- 수어해설과 문화시설 자료,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받 아들여야 하는 어려움.	
2	- 1번과 동일함. - 1번과 다른 점은 수어해설과 자료사진이 차지하는 공간의 면적차이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만으로 봤을 때는 1번이 더 나은 방법으로 생각됨.		
3	- 수어, 문화시설 자 료를 따로 볼 수 있어서 정보습득 력을 높일 수 있음.	- 자막이 없음 - 무엇에 대해 설명할 것인지 에 대한 사전정보가 제공되 지 않아 수어해설을 듣는 동안 이해도를 떨어뜨릴 수 있음.	수어해설을 하 기 전에 문화시 설에 대한 사진 자료를 잠시 보 여주고 수어해 설을 시작하는 것이 좋음 사진자료(잠시) → 수어해설 → 사진자료
4	- 현장감이 있어서 제시방법으로는 가 장 좋은 방법이라 고 생각됨.	- 제작시 예산이 많이 소요 됨. - 자막이 없음.	
5	- 4번의 대안으로 판 단됨. 현장감을 줄 수 있음.	- 자막이 없음.	크로마키에 수 어 해설이 묻히 지 않도록 잘 처리해야 함
6	- 전체내용이 자막으 로 나오므로 수어 를 통한 정보습득 보다 자막이 더 편 한 농인들에게 유 용함.	- 한꺼번에 3가지 정보(수어 해설, 그림자료, 자막)를 받 아들여야 하는데서 오는 부 담감 및 집중력 저하.	
7	- 수어 따로, 문화시 설 자료를 따로 볼 수 있어서 한 가지 에 집중하여 정보	- 무엇에 대해 설명할 것인지 에 대한 사전정보가 제공되 지 않아 수어해설을 듣는 동안 이해도를 떨어뜨릴 수	수어해설을 하 기 전에 문화시 설에 대한 사진 자료를 잠시 보

	습득력을 높일 수 있음. - 자막이 있어서 수 어를 모르는 농인 도 유용함. - 중요내용만 자막처 리 하므로 중요 내 용 숙지에 용이함.	있음.	여주고 수어해 설을 시작하는 것이 좋음 사진자료(잠시) → 수어해설 → 사진자료
--	---	-----	---

3) 7가지 편집 방법 외에 추가되길 바라는 편집 방법

- 4번(실제 문화시설에 가서 촬영하는 방법)의 방법에 자막이 추가 되길 바람.
- 4번의 방법으로 촬영하는 것이 제일 좋으나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길 바람.
 - 전체배경은 실제 장소로 하고, 오른쪽 화면에는 소개하고자 하는 것(유물, 유적 등), 왼쪽 화면에는 수어모델, 그리고 화면 하단에는 전체 내용 자막 이렇게 4가지가 조화롭게 이뤄지는 편집방법
- 4,5,번의 방법이 제일 좋으나 1,2,3,6,7번의 방법으로 제작을 한다면 수어 해설이 아닌 자료사진을 먼저 제시한 이후에 수어 해설을 하는 것이 좋음, 또한 요약 자막을 삽입하는 것이 좋음
- 6번과 7번의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함. 예를 들어 6번 방식 으로 스틸사진 하나만 두고 설명을 마친 후 7번 방식으로 그 설명에 맞는 참고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
- 해설 내용에 관련된 부가적인 정보의 설명을 위해 해설 중간에 관련 자막 또는 애니메이션 삽입을 하는 것이 좋겠음
- 어떠한 제작 방식이라도 자막은 반드시 삽입되어야 함



- 위와 같이 기본 영상을 약간 작게하여 배경과 영상의 경계선에 인물을 배치하면 영상도 잘 보이고 수어도 잘 보임

◎ 3차 자문위원회 회의

1차	일 시	2014년 12월 5일(금)
	장 소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내 회의실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위원 • 박정현(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 안석준(더 싸인 대표) • 원태연(강원도농아인협회 사무국장) • 이은영(서울시 농역사문화해설사) • 함혜원(서울농아교회 부목사) • 관계자 • 강미영(문화체육관광부) • 김아영(국립국어원) • 김두식(국립국어원) • 연구진 • 공동연구원: 최상배, 안영희, 홍성은 • 보조연구원: 오진영, 이현화
회의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해설 표본 영상 검토 • 결과보고서 검토 	

1) 연구 전반에 대한 자문

- 연구에서 전제로 한 문화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기술 할 것.
- 현재 연구는 문화의 폭이 너무 좁게 설정되어있음. 문화를 크게 보자면 역사나 가치를 공유하는 것도 의미할 수 있으며, 여가, 스포츠 등 어떤 즐거움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이 연구는 문화 중에서도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 듯 하며, 시설을 모두 다룬 것도 아닌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이것을 문화라 하는 것이 우려되며 너무 좁은 느낌이라 제목을 바꾸어야 할 것임. 또한 동적 문화는 배제한 채, 정적 문화만을 다룬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좁은 범위의 문화 시설을 의미하기에, 제언에서 문화 전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는 것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계획과 예산안을 부록에 첨부할 것.
- 농인의 문화향유권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국립국

어원에서 진행 할 수 있는 언어 정책적 측면의 제언을 해줄 것.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 문화시설 중에서 우선 작업하여야 하는 시설의 순위와 소요 예산을 반드시 넣을 것.

- 청인의 문화를 농인에게 전달하는 것만이 아닌, 농인의 문화를 청인에게 알려주는 것도 연구에 포함되어야 함.

2) 수어 해설 동영상 제작 방법

- 7가지 동영상 편집 방법 중에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최선의 방법을 제안해 주길 바람.
- 화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영상을 오른쪽에 약간의 여백이 남도록 삽입하고, 영상과 배경의 경계선에 수어자를 배치하면 영상, 수어자 모두 잘 보임.
- 사람은 심리적으로 왼쪽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함. 따라서 중요한 사진을 영상의 왼쪽에 배치하고, 수어자를 오른쪽에 배치한다면 사진을 보고 그에 따른 설명을 볼 수 있어서 정보습득에 도움이 됨.
- 자막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음.
- 수어 해설 동영상 제작에 앞서, 문화 관련 용어들을 어떻게 수어로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3) 한국수어와 유사수어체계

- 한국수어와 유사수어체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한국수어의 습득 및 제작 상황 등 여러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수어 동영상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함. 유사수어체계로 해설을 들어야 할 만큼 한국수어 실력이 안되는 농인들은 대개 문해력이 높으므로 유사수어체계가 아닌 자막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 됨.

7. 초점집단인터뷰(FGI) 전사 내용

일 시	2014년 9월 22일 오전 10시~12시
장 소	(사)한국농아인협회
참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1 (농인) • 참여자2 (농인) • 참여자3 (농인) • 참여자4 (농인) • 참여자5 (농인) • 참여자6 (농인) • 참여자7 (농인) • 참여자8 (청인) • 참여자9 (청인) ● 연구진1 (농인) • 연구진2 (청인) • 연구진3 (청인) • 보조연구원1 (청인) • 수어통역사1 (청인) • 수어통역사2 (청인) • 문자통역사1 (청인) • 문자통역사2 (청인)

연구진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인의 문화 정보 접근과 관련된 조사를 해서 수어를 통해 농인에게 문화정보 시설에 대한 접근이 더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연구진들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 연구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편안하게 말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농인의 입장에서 원하는 방향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저희도 연구에 참고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 특별한 소개는 생략하고요. 시간에 비해 질문이 많지만, 진솔한 답변해주시고요. 질문지를 미리 드렸는데, 그것을 읽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문화시설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인데 농인들이 주로 어떠한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자2,7: 영화, 아마 농인들이 영화를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참여자7: 영화 보러 많이들 모여서 가요. 한국영화에 자막을 띄워주면서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참여자5: 20대 ~ 30대 청년들은 DVD방, 비디오방에 가요. 거기는 자막이 있는 영상물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농인들 2인~4인이 함께 이용합니다. 연극, 뮤지컬은 농인들이 이용하기 제일 힘든 문화시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대부분 음성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농인들에게는 지겹고 방문하기도 꺼려집니다. 뮤지컬도 노래와 음성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농인들이 특별히 갈 기회가 없습니다. 3~4년 전부터 시작된 음성언어 없이 몸의 움직임으로 연출하는 난타, 점프, 비빔밥이라는 공연에 초청되어 갔는데 농인들에게 딱 맞는 공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언어가 아닌 행동으로 하는 것이어서 농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이와 같은 공연이 많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한 축제에 초대되어 갔는데 난타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음성언어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니다, 난타는 동작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라는 말을 듣고 긴가민가한 마음을 가지고 가보았습니다. 실제로 보니 난타는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공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연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연극에 초청되어 간 적이 있는데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어통역사가 있으니 청인 관객들에게 방해가 되었고, 무대와 수어통역을 번갈아 보려니까 많이 불편했습니다. 공연에 자막을 띄우는 것의 문제는 장비 등을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제가 박물관에 자녀들과 같이 갔는데, 기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 하는 아이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고 싶지만 QR코드와 같은 접근 장치가 없어서 설명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하자."라며 돌아보았는데 농인의 접근권을 막아 놓은 것 같아 너무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QR코드가 많이 확대되고 농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통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자7: 단체로 갈 때는 수어통역사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구경하고 싶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연구진3: 아까 말씀하셨던 영화 외에 제일 많이 방문하는 문화시설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영화관인데 두 번째는요?

참여자7: 두 번째는 박물관이지만, 박물관 또는 전시관에 많이 방문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곳들은 단체로 가면 수어통역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으로 가면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진1: 영화, 박물관 말고 또 다른 곳은요?

참여자2: 저는 뮤지컬을 자주 보러갑니다. 통역은 당연히 없지만 음악을 듣는 것이 좋아서 갑니다.

참여자9: 농인들이 가끔 미술관에 갑니다. 가끔 와서 "혹시 통역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면 "혹시 통역이 필요하다면 신청하셔도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미술관에 전화를 해 물어보니 농인이 오지만 꼭 통역을 요청하지는 않고 그냥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미술관은 공원 안에 있어서 물리적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연구진1: 미술관, 박물관 또 뮤지컬 영화 외 다른 것은요?

참여자2: 관광시설, 예를 들면 경복궁, 생태공원과 같은 시설물에는 농인을 위한 가이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구경하는데요. 외국인에게는 그에 맞는 언어로 설명하고 해설을 제공하는데, 한국 농인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곳에 적절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참여자7: 맞습니다. 맞아요.

참여자8: 대계 농아인협회나 지부, 센터의 프로그램으로 1년에 2~3번 정도 단체로 관광을 가는데, 박물관에 가게 될 경우 수어통역사가 직접 수어통역을 해줍니다. 하지만 농인이 개인적으로는 문화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7: 이에 대해 공감합니다.

참여자4: 저는 미술작품을 관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술관에 갔을 때 청인들은 그림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내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가 글로 나와 있지 않고, 단지 제목만 적혀 있어서 농인은 짐작으로만 작품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참여자2: 청인들에게는 감성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정보들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인들이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어 해설 등으로 더 많은 작품의 해설을 제공한다면 농인이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며 정서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농인의 정서적, 미적 감각을 자극 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으로 농인들의 예술이 발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문화시설에 수어해설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진1: 도서관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얘기해주세요.

참여자2: 도서관은 어디든지 있지만 통역을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농아인협회나 시·도 협회 안에 농인전용도서관을 만들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구진3: 농인들이 도서관에 많이 가나요?

참여자1,4: 농인 중 일부가 도서관에 가는 것 같아요.

참여자2: 미국 갈로렛 대학교에 가 보니까, 농인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인 중심의 책이 아닌 농인과 관련된 자료, 관련 서적, 그리고 청인들의 책이 농인들에게 유익하다면 그것을 번역하여 둔 책 등이 있었는데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농아방송에는 수어 동화 등 여러 자료가 있는데 그런 자료를 모아서 배치해두고 그것을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잘 갖춰놓으면 좋을텐데 한국에는 그런 것이 없지요. 농인 전용 도서관이 농아인협회 가까이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1: 그러한 곳이라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참여자2: 그런데 농인들이 자주 이용하나요?

참여자5: 농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어통역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여자2: 물론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지만 농인들은 농아인협회에 많이 오기 때문에 협회내에 도서관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인과 도서관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농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농인들이 협회에 왔다가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접할 수 있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1,7: 협회와 도서관이 가까이 있으면 이동하기도 편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3,7: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4: 하지만 농인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참여자9: 농아인협회 가까이 있는 도서관에서 농인관련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자5: 얼마 전에 제가 책과 관련된 강연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 책들을 읽다가 서초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는 청인 수어통역사가 한명 있고, 농인 직원이 한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농인에게 책을 설명하고 읽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서관이 너무 멀어서 농인들이 그곳에 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자2님의 말대로 하면 좋을 듯합니다.

저는 농아인협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끔 농인들이 와서 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수어동화(DV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장소가 좁기 때문에 농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협회에 방문한 농인들이 통역 서비스를 받고, 담소를 나누고 그냥 돌아갑니다. 이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른 분의 말씀처럼 협회와 도서관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인들을 위해서 주민센터 안에 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것처럼 농인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자2: 지부나 협회에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부터 시작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연구진3: 현재는 국립중앙도서관을 포함한 전국에 5곳을 정해 곧 시작합니다. 아마 9월부터 시작 했을 겁니다.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시작 될 예정입니다. 농인들이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실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연구진1: 그럼 지금 제가 여쭙보고 싶은게 청인 수어통역사, 농통역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수어해설 동영상과 관련된 거예요. 도서관에 접근할 때 ‘안내문 안에 수어를 넣으면 좋은지?’에 대해 좋은 생각 있으면 답해주세요.

참여자2: 농인 부부의 자녀 ‘코다’에게 부모님이 동화책을 읽어 줄 수 없죠. 그렇

다면 농부모의 자녀에게 누가 읽어줄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전문 수어통역사에게 맡기면 통역사가 음성언어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모님들은 다른 책을 읽고요.

연구진3: 현재 그 프로그램을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대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10~1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농 통역사 1명, 청인 통역사 1명 있습니다. 수어로 책을 읽어줍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책 제목을 미리 알려주면 수어통역사가 준비해서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책을 읽어줍니다.

참여자9: 대부분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안내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해당 버튼을 누르면 시설에 대해 안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어통역이나 수어콘텐츠가 함께 있어서, 농인이 많이 가든 안가든 상관없이, 언제든 농인이 갔을 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가고 안가는 게 중요 한 게 아니라, 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2: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 하죠. 박물관 안에 QR코드를 고정 시켜서 설치하고, 스마트폰 어플을 하나 만들어 그것과 연동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해당 구역을 지나갈 때 QR코드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이 자동으로 뜨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이나 여러 시설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7: 좋은 아이디어지만, 젊은세대는 스마트폰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괜찮으나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여자3: 사람이 직접 수어로 해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2: 물론 어르신의 경우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만, 문화시설은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합니다. 어르신의 경우는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1: 방법을 모르시는 어르신들께 QR코드를 교육 하면 됩니다. QR코드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참여자7: 교육으로 가능하겠네요.

참여자5: 청년들은 QR코드를 사용하겠지만, 어르신을 위해서는 수어통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만이 아니라 공주박물관, 부산박물관 등 전국에 수어통역

사를 배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1: 그러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듯합니다. 수어통역사는 협회를 통해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3: 아니요. 수어통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참여자2: 스마트폰과 연계한 QR코드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통역사까지 배치한다면 재정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QR코드를 교육하고 이를 연습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4,7: 맞습니다.

참여자1: 재정이 절약됩니다.

연구진2: 지금 QR코드를 말씀하셨고, 노인분들을 위해 수어통역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두 개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QR코드는 혼자서 언제든지 접근 할 수 있는 것인데,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끌 수 있고, 그냥 지나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있어 좋고요. 그리고 수어통역사가 있다면 노인들만 아니라도 모든 농인에게 참 좋겠죠. 가이드처럼 자세히 질문도 하고요. QR코드와 수어통역사 둘 다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두개 다 하기는 아무래도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만 골라야한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참여자1,5: 수어통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진2: 이것은 차례대로 물어볼게요. 거수로 하겠습니다. QR코드, 수어통역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수어통역 원하는 분은 손들어주세요.

연구진2,3: 수어통역 7명, QR코드 2명 아니, 3명이네요.

연구진2: 수어통역 6명.

참여자3,5: 2개 다 하면 좋겠습니다.

참여자2: 먼저 QR코드를 실행해 보고 효과가 없다면, 그 다음에 수어통역사를 배

치하면 좋겠습니다.

참여자9: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수어통역을 고르겠지만, 보통 박물관이나 미술관가면 조그마한 화면이 다 있어요. 저는 그것에 수어해설을 넣어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꼭 QR코드가 아니어도 가능하잖아요.

참여자3: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참여자4: 맞습니다.

참여자5: 좋습니다.

참여자2: 맞습니다. 그래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화면에 수어해설을 삽입해도 괜찮습니다. 수어통역사 인력은 부족합니다. QR코드는 전국적으로 한 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4: 말씀대로 화면에 넣으면 좋을 듯합니다.

연구진3: 박물관이나 전시회에 가면 청인들이 귀에 이어폰을 끼고 다니면서 해설 듣는 게 있어요. 혼자 자유롭게 사용가능해요. 그것처럼 농인들도 QR코드가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으로 가이드 내용을 받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나에게 맞춰서 사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참여자1,2,4: 그거 괜찮겠네요. 전국에서 가능하겠어요.

참여자5: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수어통역사, 수어해설사가 직접 해설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여기 계시는 선생님이 문화해설사 양성 교육을 받고 나서, 수어로 해설해주는 곳에 농인회원들과 같이 갔는데, 그 곳의 역사에 대해서 다 해설을 해주셨습니다. 내용 이해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어동영상과 수어통역사 또는 수어해설사가 같이 배치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2: 참여자5님 말씀대로 하자면 차라리 참여자3님 같은 농인통역사의 해설을 촬영해서 넣으면 어떨까요?

참여자1: 물론, 전국에 통역사를 배치를 하면 예산적인 부분에서 무리가 됩니다.

참여자3: 광화문 지하에 수어 영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인이 설명한 영상을 봐도 20%정도만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수어해설사나 통역사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참여자7: 직접 해야 생동감이 있습니다.

참여자2: 농통역사를 모델로 영상을 촬영해서 넣으면 될 것입니다.

참여자3: 농통역사가 촬영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 정도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참여자2: 연구진들이 유능한 농통역사를 뽑아서 촬영하면 좋은 동영상 나올 것입니다.

연구진3: 현실적으로는 수어통역 배치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참여자6: 수어통역사를 직접 배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영상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저의 관심분야가 예술인데, 미국의 박물관, 미술관, 전시회를 가보면 대부분의 곳에서 수어통역과 자막을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50개 주가 있고 넓다 보니 주별로 특성이 다르고, 지방정부마다 특성이나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고 놀란 게 있는데, 텍사스 주는 정부 예산이 부족하지만 따로 개인이 회사를 설립했고, 그 회사가 농인이 문화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또 박물관과 연계를 해서 농인을 위한 영상을 어떻게 제작할 건지 서로 함께 연구, 회의를 하고 담당 직원을 관련 행사에 파견합니다. 행사는 매달 있는데 행사의 주제가 정해지면, 예를 들어 주제가 '1980년대의 역사'라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수어통역사가 수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합니다.

대부분의 농인은 어디를 방문해서 그냥 구경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농인을 위해서 관련 역사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농인들이 어떤 내용을 보고 궁금해 할 테고,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어 영상, 수어 콘텐츠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농인이 처음 박물관에 방문하였을 때 관람 순서 등을 잘 모르니까 역사의 시간에 따라서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야 쉽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어 영상 안에 자막으로 몇 년도 내용인지를 안내하고 더불어 그 시대의 책이나 장소 사진이 삽입되면 더 확실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제작이 수어영상을 이

해하는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참여자3: 그런 식의 영상이 광화문지하에 있습니다. 영상을 다운받아 수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참여자2: 연도별, 해당연도의 자료 등을 넣어서 수어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수어 영상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연구진2: 근데 사실은요, 청인들도 글만 있으면 물어 볼 수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어가거든요. 물어보고 싶으면 가이드를 신청하든지 안내데스크에 가서 “이것이 너무 궁금하다. 관련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해서 참고문헌을 받거나 책을 사든지 합니다. 이런 과정은 청인도 똑같기 때문에 농인만의 제약이 아닙니다.

참여자3: 맞습니다.

연구진1: 자 여러 제안들 고맙습니다.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문화시설에 대해서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영화라고 답해주셨어요.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물어 보고 싶는데 국내영화와 해외 영화 둘 중에 제일 많이 보러 가는 것이 무엇인지요?

참여자3,5: 외국영화를 주로 봅니다.

연구진1: 왜죠?

참여자3: 자막 때문입니다.

참여자5: 100% 자막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한국영화를 보러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우리말’로 되어있는 영화는 제가 2시간 동안 참고 있다가 다 끝난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외국영화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외국영화를 보러 많이 갑니다.

연구진3: 그러면 중앙회가 사업하고 있는 자막영화만 보고 자막 없는 한국 영화는 전혀 보러 안가겠네요?

일동: 맞아요. 안가요.

참여자9 : 자막 없어도 가는 농인들이 있어요. 그림만 보고도 이해할 수 있다고 굳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연구진3: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여자3: 100%는 아닙니다.

연구진3: 그림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가요? 본인의 경험들이니까.

참여자2: 저는 농인이지만 한국영화 봐요. 느낌으로 앞뒤 내용이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수어통역사에게 물어보면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여자2: 50%정도는 느낌으로 파악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참여자1,4,7: 맞습니다.

참여자1: 저도 비슷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진3: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외국영화를 몇 번 보세요?

참여자2,3,5: 많아요.

참여자2: 예전에도 한국영화에 농인을 위한 자막을 삽입해 상영하곤 했었는데 그때가 좋았습니다. 요즘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같이 나오는데 이게 별로예요. 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언젠는 제가 농인들에게 확인해 보고 싶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농인만을 위한 자막영화와 요즘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 동시에 나오는 영화 중에 뭐가 좋으냐고 물어보면 예전에 농인만을 위한 자막영화가 더 낫다고 대답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자막과 배경음악의 진동을 함께 느끼며 실감나게 감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농인들도 예전에 느끼던 그 웅장함 같은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소리를 통해 자극을 받고 진동도 느끼며 불안한 상황, 넘어지면서 나는 소리 등을 느낄 수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해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음악적 효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농인을 위한 자막삽입영화, 맹인을 위한 화면해설영화를 따로 상영 하면 좋겠습니다.

참여자3: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화면 해설과 배경음악이 같이 나오면 영화를 제대로 느낄 수 없고 머리가 아픕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여자2: 화면 해설 영화를 보고 나오면 귀가 ‘멍~’합니다. 화면 해설로 인해 영화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로 하면 좋겠습니다.

연구진3: 그 부분은 건의중인데 쉽지가 않아요. 약간의 청력이 있는 분들이 불편하겠군요.

참여자5: 한국문화 관광 사업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한국영화에 외국어를 자막으로 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영화에 한국어자막을 넣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농인에게는 자막을 삽입한 몇몇의 영화만 단체로 가서 관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사에서 가끔씩 외국어로 자막을 넣어 주더라고요. 영화제작사가 중국이나 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외국어로 자막을 띄워 주는 것을 볼 때 저는 장애인이라 차별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참여자2: 이해합니다. 제가 해외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영화가 보고 싶어 제 아내랑 영화관에 갔는데요. 매표소에서 제가 농인임을 밝히고 “농인을 위한 서비스가 있냐?”고 물어보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놀라며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니 아무것도 없는 유리판을 주며 의자에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했어요. 그 유리판을 화면과 맞추니 영화관 뒤에 있는 영사기에서 자막만 따로 쏘아 유리판에 자막이 보이도록 하더라고요. 영화 화면과 맞출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 합니다. 영어로 본인만 보게끔 쏘주더라고요.

참여자3: 그럼 화면과 맞지 않고 위아래로 쳐다봐야 합니까?

연구진3: 본인만 볼 수 있게 뒤에서 자막을 쏘 줍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화면에 자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만 볼 수 있는 판이 있습니다. 키 조절이 됩니다. 스탠드처럼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영화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여자2: 그것처럼 한국에서도 특별히 농인을 위해서 따로 상영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높이도 본인에 맞게끔 조절을 해서 극장의 영상과 자막을 개인별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합니

다.

참여자4,7: 그거 좋습니다.

참여자7: 화면에 맞추어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진2: 그것은 특히 청인들에게 방해가 안돼서 인기가 있을 거 같아요. 청인들 중에는 화면 밑에 자막이 있어서 싫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농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까지 다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극마다 극장마다 그런 것이 있고 10개 20개정도 준비한다면, 어쨌든 농인들이 한꺼번에 몇 백 명이 오지 않을 테니 기계 장치 몇 개 하고,, 신청비용은 따로 받지 않지요?

참여자2: 비싸지 않습니다. 쌉니다. 자막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자1,5: 맞아요. 맞아.

참여자3: 그렇게 된다면 영화 상영회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언제 영화하나?’하고 기다리는 것도 힘든 일인데 행여라도 그날 다른 일과 겹치면 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참여자7: 맞아요. 일시간과 겹치면 영화를 볼 수가 없지요.

연구진2: 하지만 그 시스템이 일반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일반화 된다면 편리할 것 같네요. 너무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불편한 점은 전혀 못 느끼셨어요? 오히려 ‘너무 좋다’는 의견이시네요.

참여자2: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이용했습니다. 편합니다.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진2: 개인용자막이라고 말해 볼게요. 농인으로써는 개인용자막이 일반 우리가 아는 자막보다 더 좋게 느껴졌나요?

참여자2: 그렇지 않을까요?

참여자1,3: 안 봤으니 모르겠습니다.

참여자2: 영화화면이 아니라 따로 자막이 뜨는 개인용이라 좋습니다.

참여자5: 부부가 영화를 보러 갈 때도 시간 선택의 제한이 있었는데, 유리관이 있다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장치를 활용해서 볼 수 있게 되니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더 넓은 영역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2: 그 장치는 투명이라서 영화 자막을 가리지 않습니다.

참여자3: 괜찮네요. 시간이 없어서 영화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는데..

연구진3: 10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게 수용되지 않고 있네요.

참여자5: 중앙회에서 영화상영회를 할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인만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설문조사를 지켜봤는데 불편사항에 '자막이 없는 것이 낫다'고 설문을 작성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안 좋아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리관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자막을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청인들은 한국어 자막이 방해가 되고, 소리로만 들으면 된다고 하지만, 농인으로서 '자막이 없는 게 낫다'는 설문 내용을 보니 불쾌했습니다.

참여자2: 그런면에서 개인용 유리관 자막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유리관이 있다면 어디서든 쉽게 자막을 볼 수 있습니다. 4D 영화도 유리관을 가지고 가서 설치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지금의 자막영화는 제한적입니다.

참여자5: 영화가 시작할 때 광고 있잖아요. 자막이 없어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소리 없이 전광판에 광고가 나오고 화면에 여러 단어들 나오는데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의 광고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중에 짧은 자막이 나오는 것을 보고 뒤늦게 이해하게 됩니다. 광고도 자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인에게도 어떤 광고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일동: 맞아요

연구진3: 그러면 지금은 농인을 위해서 수어영상도 없고 QR코드도 없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만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방문할 것 같아요?

참여자1,2,5: 네 그렇죠. 관심이 많아질 것입니다.

참여자5: 수어 기반의 정보 접근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관심이 많아질 것입니다.

참여자7: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실제 가고 싶어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참여자2: 농인들이 많이 가기 위해서는 농아인 협회가 홍보를 많이 해서 동기부여를 해줘야합니다.

연구진2: 아까 한국영화, 외국영화 중에 외국영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자막이 항상 있으니까'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 없이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영화가 항상 자막이 있다면 아마 똑같이 외국 영화처럼 가시겠죠?

참여자1,3,4,7: 맞습니다.

참여자2: 지금까지 외국 영화 많이 봤는데 한국영화를 보러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궁금한 하기도 하고 한국문화나 정서라든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 같아요..

연구진2: 이제 박물관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지요.

연구진3: 네, 우리 지금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정리를 하자면 3가지네요.
'1. 수어통역사 배치, 2. QR코드를 스마트 폰으로 읽어 수어 동영상 보기, 3.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수어 동영상 보기' 이렇게 3가지로 정리가 되네요.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만 고르자면, 사실 모두 기능이 달라서 고르기가 애매합니다만 예산상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면 어떻게 정할까요?

참여자3,7: 1번 수어통역사 배치가 좋아요.

참여자2,4,5: 2번 QR코드가 좋아요.

참여자1,6,9: 3번 모니터에서 돌아가는 수어동영상이 좋습니다.

연구진3: 비슷비슷하네요. 참여자가 9분이라..

참여자7: 3개 다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선택된 대로 따라야겠지요.

참여자2: 1번이 2명이니까, 2번과 3번 중에 선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자1: 1번 수어통역을 배치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될 것 같아요. 1번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QR코드도 괜찮지만 3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에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운영이 잘 된다면, 그다음 QR코드로 확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어통역사도 배치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구진1: 자 정리됐습니다. 문화시설에 대해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수어해설 동영상 제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질문 1. 문화시설 이용하는 농인들을 위해서 수어해설동영상을 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면 좋습니까?'

참여자3: TV뉴스를 보면 크로마키 기술로 화면 전체가 배경으로 사용되고 수어통역사가 서서 통역하는데 화면에 크게 나옵니다. 그렇게 수어 동영상을 제작하면 좋겠습니다.

참여자1: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연구진3: 그러면 기존에 청인을 위한 해설 동영상이 있는데, 여기에 수어통역을 넣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그림 놓고 수어 해설을 넣는 게 좋은지? 어떤 게 좋을까요?

참여자5: 예를 들면 청인을 위해 박물관의 역사를 설명을 할 때 그 영상에 절반을 나눠서 자막도 나오고 수어도 나오고 두 가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1,7: 좋습니다.

참여자5: 자막 없이 수어로만 하면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수어와 자막을 같이 보면 이해가 쉽죠. 뉴스의 화면처럼 작은 동그라미 안의 수어만 보고 있으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참여자2: 수어만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진3: 그럼 궁금한 게 자막을 소리 나오는 대로 100% 다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중요한 뼈대만 간추려서 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아요? 100% 소리 그대로, 아니면 요약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참여자1,2,3,4,5: 음성이 나오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자막이 나오는 게 좋은 것 같

아요.

연구진3: 요즘엔 대부분 문장 능력 좋으신데, 만약에 내가 문장력이 부족한 농인 이라면 100%가 좋을지, 아니면 중요한 단어만 뽑아서 하는 게 좋을까요?

참여자2: 제 생각에는 문장력이 문제가 아니라 농인 대부분의 수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막은 100% 그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참여자3: 자막은 100%하고 통역사가 한국수어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수어를 문자대로 하지 말고요.

참여자1: 자막은 100% 하고 수어도 있으니까, 사람들은 수어를 보거나 자막을 보면 됩니다.

연구진2: 아까 크로마키 기법 얘기하셨는데, 저는 청인이지만 개인적으로 배경이 얼룩덜룩 바뀌니까 너무 수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구분이 잘 안돼서 오히려 배경을 따로 만드는 게 저는 편했는데 농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자3: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참여자4: 복잡하면 좋지 않습니다. 수어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경이 얼룩덜룩 하지 않고 화면이 깨끗하면 좋습니다.

참여자7: 반으로 나누는 게 좋은 듯해요.

참여자5: KBS 보면 동그란 화면으로 뒤에 파란 배경이 있지요. jtbc인가? 거기엔 배경 없이 크로마키 기술로 하는데 눈으로 보기에 좋습니다. 뒤에 배경이 있으면 오히려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눈이 아픕니다.

연구진3: 만약에 수어가 들어가는 원이 크다면 어떠시겠어요? 지금은 원이 작아요.

참여자5: 원이 크다면 좋습니다. 작으면 보기 힘들죠. 원이 커지면 괜찮습니다. 뒤에 배경이 크면 큰 게 좋습니다. 작아서 문제였죠.

참여자5: 화면이 크다면 뒤에 배경은 단색으로 하늘색, 청색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연구진3: 그러면 그 뒤에 배경화면을 청인하고 똑같이 하면 좋을지 아니면 농인에

게 필요한대로 맞추는 게 좋을지? 어떤 게 좋아요?

참여자7: 배경이 있는 게 좋은데요.

참여자4,7: 설명은 똑같이 하고 사람만 크로마키 기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구진3: 배경은 똑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꼭 배경이 필요해요?? 문화정보
해설할 때, 수어만 하든가 아니면 배경 화면이 필요한지요

참여자3,7: 배경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배경이 있어야 돼요.

참여자2: 간단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참여자3: 농인분들 배경이 없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연구진3: 예를 들어서 어떤 경복궁을 수어로 설명한다면 궁 안에 건물 많아요. 왕
이 잠자는 곳이 있고 왕비가 자는 곳이 있고 이런걸 설명 할 때 그림을 넣는 것
과 넣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이 좋으신가요?

일동: 그림과 같이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수어와 함께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진1: 그러면 묻고 싶은데, 배경 있으면 좋겠다하는데 배경은 움직이는 게 좋은
지? 수어도 움직이잖아요? 동시에 수어와 화면이 같이 움직이나요? 아니면 수어
할 때는 그림이 멈춰야 하나요?

참여자1,3: 동시에 움직이면 눈이 피곤할 듯 해요.

참여자2,7: 동시에 움직이는 게 더 나아요.

참여자2: 예를 들면 요즘 뉴스를 보면 앵커 위쪽에 조그마한 자료화면 나오죠? 그
것처럼 문화 설명할 때는 뒷배경이 깨끗하게 한 색깔로 하고, 앵커 위쪽에 조그
맣게 자료화면이 나오면 수어를 보면서 자료그림과 함께 볼 수 있고, 수어도 깔
끔하게 나옵니다. 뒤 배경이 움직이면 복잡하기 때문에 뉴스처럼 하면 어떨까
요?

참여자1,7: 그거 좋습니다.

참여자2: 뒤 배경이 움직이면 수어통역사를 보는데 눈이 피곤하니까 그것 말고 뉴스처럼 뒤 배경을 깨끗하게 하고 수어통역사의 위쪽에 자료화면이 있으니 도움이 되고 눈에 편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7: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이 작아요. 느낌에 그림이 작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참여자2: 그림을 조금 더 크게 만들면 됩니다.

연구진2: 제가 조금 생각했던 거와 다른 답이 나왔어요. 저는 해외에서 살다왔는데, 해외에서는 수어동영상을 만들 때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피합니다. 수어자가 수어를 하면, 그 뒤에 배경 자료를 보여줘요. 근데 그것을 동영상으로는 안보여주고 그림으로만 보여 줍니다. 동영상을 보여줄 때는 동영상과 수어자의 수어가 같이 나오는 것을 피하지요. 둘 중에 하나만 나와요. “잠시 화면 보겠습니다.” 하면 수어자는 기다렸다가 동영상 먼저보고 동영상이 끝나면 그 다음에 수어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만하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참여자3,7: 그거 괜찮겠네요.

참여자2: 문화와 관련 된 것이라면 사진처럼 그림 배경만 간단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수어도 움직이고 영상도 같이 움직이면 수어를 잘 보지 않고 배경이 궁금해서 배경에만 집중하고 눈이 두 개를 동시에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7: 참여자2님의 말도 맞습니다만,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시범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것을 평가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1,2,5: 일단 평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9: 영화나 뉴스가 아니고 만약에 박물관이라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작은 화면이 있는데, 그것으로 수어를 보면서 다닐 건데 그러면 보통 핸드폰 크기정도인 데요. 수어통역사가 나오고 그 뒤에 배경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면 화면이 크지 않아요. 작아요. 여기에다 넣을 때 수어통역만 봐도 복잡하기 때문에 화면이 크면 좋잖아요.

참여자2,5: 박물관일 경우 큰 화면이라고 생각했는데 화면이 크지 않다면 단색으로 가는 것이 좋지요.

참여자7: 박물관이나 그런 곳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본다고 한다면 수어를 크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5: 박물관을 예로 들면 역사적인 물건 중에 대포라 한다면 대포그림을 누르면 화면이 바뀌면서 수어로 관련 설명이 나오면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림을 누르면 자동으로 수어가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7: 박물관 안에도 이미 텔레비전 화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는 배경을 보여 줘도 좋습니다.

연구진2: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인데 독일에서 수어 동영상 만들 때, 수어가 없어서 지문자로 하는 것 있잖아요. 지문자를 하는 단어를..

연구진2: 제가 시나리오를 얘기해줄게요. 배경은 깨끗해요. 배경은 아주 깨끗해요. 자료 없어요. 아나운서처럼 수어를 하는 농인이 있어서 수어로 진행하다가 예를 들어 '경복궁'이 나왔는데, 만약 어려운 단어라면 수어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지문자로 표현하는데 독일은 그런 단어를 컴퓨터로 수어통역사 옆에다 글씨를 찍어줘요. 그런 기술이 조금 있어요. 요즘은 그런 다양한 기술이 가능하잖아요. 편집 같은 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수어를 하다가 지문자가 나올 때 지문자 옆에 단어가 한글로 살짝 들어갔다 지문자가 끝나면 싹 빠져요. 그런 기술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자1: 아주 좋습니다.

연구진2: 왜냐하면 이게 시각적인 것이고, 지문자는 속도가 빨라서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단어라는 것은 한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가,나,다,라' 이게 아니라 통문자로 보여지니까 그런 것들을 살짝 살짝 삽입하면 훨씬 편해진다는 평가를 독일에서 받았어요. 한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하게 느껴질까요?

참여자1: 아주 좋습니다.

참여자2: 제 생각에는 지문자를 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지문자 필요 없이 자막을 넣으면, 자막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문자나 단어자막이나 똑같습니다. 굳이 지문자가 쓸 필요가 있나요? 지문자를 그냥 자막으로 넣으면 편하게 빨리 빨리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문자하고 수어하고 지문자하고 수어하면 말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늦어지죠.

참여자4,7: 맞습니다.

연구진2: 독일에서도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술이 있어요. 수어를 하다가 지문자를 안 쓰고, 지문자 대신 단어를 화면에 나오게 해요. 그리고 손으로 그 단어를 가리키죠, 그리고 다시 수어하다가 다시 단어를 가리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영상 안에서는 편하지만 이 단어를 모니터 없이 말로 한다면 수어가 없어서 똑같이 해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 다시 지문자를 어차피 사용하니까 그러면 동영상 안에서도 사용하자. 아니면 농인들이 국제수어를 할 때 수어를 모르거나 없으니까 “저는 이 수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새로 도입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작은 규모에서만 가능하니까요.

화면에서 단어를 보여주고 손으로 가리키고 아니면, 수어를 할 때, 수어자 방향으로 화살표가 와요. 그런데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보여드려야 하는데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런 작은 것들이 시각적인 정보를 확실히 더 확확 들어오게 하거든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을 청인들이 동그라미 치거나, 마커를 해주는 것처럼 그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어가 없으니까 지문자를 할 때 포인트를 넣어 주는 것입니다. 화살표가 나오면 살짝 멈췄다가 다시 수어를 계속 하고, 그럼 이게 조금 더 구성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테크닉이 좋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는 쉬운 정보가 아니에요. 역사 내용을 담은 것 자체가 어려워서 구조를 잘해줘야 전달이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걸 빨리 개발해서 보여줘야 되지요.

참여자5: 옛날 고어가 나오거나 영어 단어나, 화학이나 과학용어가 나오면 지문자와 동시에 단어가 표시되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어가 없는 단어는 지문자와 자막을 동시에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문자와 수어의 배열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1,3,7: 좋습니다.

참여자2: 연구진2님이 말한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어 보고 싶은데, 수어통역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단어가 통역이 가능하신가요?

참여자9: 저희는 지문자를 쓰지만 농인이 봤을 때 모른다고 해요.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청인들도 모르는 단어가 많아요. 그러나 뉴스나 TV보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농인들도 모르지만 지문자를 보고 그 뜻을 알아 가면 좋겠어요. ‘농인들이 모를 거야.’ 하고 쉬운 표현으로 바뀌하면

농인들은 그 단어를 계속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단어는 모르더라도 쓰면 좋겠어요.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1,3: 맞아요.

참여자2: 제 생각은 농인이 용어나 단어를 지문자로 쓰는데, 그 뜻을 풀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냥 지문자로 쓰고 넘어가니까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문자와 단어가 자막으로 나오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참여자3: 예를 들면 ‘슈퍼문’이라는 단어가 ‘큰 달’을 뜻하는데 만약에 자막이 나오면 ‘큰 달’이라고 알려주는 거지요.

연구진3: 교육 자료에는 있습니다.

참여자9: 어떤 뉴스나 이런 문화해설을 하는데 통역할 때 특정 단어를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혼자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참여자2: 특정 단어에 대한 해설을 한 후 계속 말을 이어가는 것, 그렇게 안 될까요?

참여자7: 맞습니다. 단어는 혼자 공부해야 합니다.

연구진3: 우리도 얼마 전에 스위스 가서 회의할 때 보니, 우리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통역 내용에 법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선택의정서’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 찾아봤어요. 찾아봐서 보고 공부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배우면서 하는 겁니다.

연구진1: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질문을 할게요. 동영상의 바탕화면이 되는 배경색상으로 좋은 색깔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여자7: 초록색이요. 파란색은 눈이 아픕니다. 초록색 약한 초록색 좋을 듯합니다.

참여자1,3: 하늘색이요.

참여자4: 흰색. 흰색화면이 좋을 것 같은데.

참여자2: 파란색이요.

참여자5: 초록색이요.

연구진3: TV에서는 계속, 파랑색만 나오는데 초록색이 편안해요. 약간 연녹색이요. 예전에 조사해봤었는데요. 눈이 피로하지 않은 색이 연녹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참여자2: 진한 파랑색이 좋아요.

참여자3: 진한 색깔은 옷을 입을 때 비슷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나뭇잎 색깔과 같은 약한 색이 좋아요. 어두우면 검정 옷을 입기가 불가능해요.

참여자6: 배경은 회색계통, 너무 어둡지 않는 흰색 검정색이 섞인 회색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2: 참여자4님 말대로 흰색 배경으로 한다면 손이 몸 쪽에서는 괜찮지만, 몸이 아닌 바탕쪽으로 손이 나가면 손과 색깔 구분이 희미할 것 같아요. 손이 안 보이고 손이 바깥으로 나가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흰색 말고, 파랑색이 약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참여자7: 맞습니다.

참여자7: 제가 SBS의 뉴스를 보니 흰색바탕이더라고요. 그 때 눈이 많이 아팠어요. KBS는 파랑색이에요. 뉴스는 대부분 파랑색이죠. 그것보다 저는 초록색계열이 편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참여자4: 초록색 괜찮습니다. 연하게 하면 좋겠어요.

참여자2: 뉴스처럼 파랑색? 먼저 농인들에게 물어봐야 할 거 같아요. 사람마다 시각적인 면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을 다 다르게 말하니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여자5: 영상의 배경 색을 다르게 해서 촬영 해봤으면 해요. 그 후에 뽑았으면 좋겠어요.

참여자4: 의상은 통역사는 기본적으로 어두운색을 입어야 합니다. 흰색 말고 기본적으로 까만색이 좋습니다.

참여자2: 배경은 보통 초록색 파랑색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참여자1: 그냥 인터넷에 올려서 다수가 원하는 의견을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2,5: 파랑색과 초록색을 인터넷에서 1번~4번까지 보기를 줘서 설문조사 하면 될 듯합니다.

참여자1,7: 맞습니다. 인터넷에 올려 조사하면 됩니다. 의견이 많은 쪽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진3: 10번, 의상 질문이 나오네요. 아까 의상 색깔 뭐라고 하셨죠?

참여자3: 어두운 색이요.

참여자7: 늘 어두운 색만 입으니 좀 지겨운 느낌도 들어요. 자연스러운 색이 좋아요. 배경을 옷에 따라 바꾸면 어떨까요?

참여자2: 얼마 전에 수어통역사가 서 있는데 “왜 검정색을 입나요?” 하고 질문을 했는데 협회에서 정한 대로 수어통역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 검은색을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만 했으면 해요. 너무 지겹습니다.

참여자7: 검은색 답답해 보입니다. 볼 때 답답해 보입니다.

참여자5: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진3: 규정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수어통역사들이 활동할 때.. 아프리카 사람은 흰옷입고해요. 수어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농인들이 보통 알록달록한 건 싫어해요. 눈이 피곤하다고 싫어하시더라고요. 색깔 단색인 것을 선호해요. 화려하지 않은 것, 어두운계통의 색깔이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2: 알록달록한 색은 말고요. 깨끗하고 좀 어두우면 좋겠습니다. 검은색은 지겹습니다.

참여자7: 알록달록한 색 말고 단색으로 된 게 좋습니다.

연구진3: 아니면 문화시설의 성격에 맞게 옷도 색깔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

참여자1,2,7: 좋습니다.

연구진3: 농인들은 눈으로 보니까, 똑같으면 지겹죠. 좀 다양한 것을 원하죠. 해당 문화시설의 성향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지요.

참여자5: 박물관에서는 한복도 괜찮습니다. 그 주위환경에 따라 박물관이면 한복 입고 통역해도 괜찮을 듯 해요. 그 분위기에 맞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늘 검은 옷만 입으면 별론데 한복을 입으면 정서에도 맞고요. 박물관이나 뉴스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바꿔 입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7: 문화의 성격에 맞춰서 옷을 입으면 좋겠네요. 한복 좋습니다.

참여자3: 개량한복 좋아요.

참여자2: 그러면 그 상황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옷이 까맣기만 하면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연구진1: 박물관 미술관 그 분위기에 맞게 옷도 배경도 알아서 바꿔주는 거를 말하는 것이지요?

참여자1,2,7: 좋습니다.

참여자3: 그거 좋습니다. 일본을 설명하면 일본 옷을 입고 박물관에서 설명해주면 좋겠네요.

참여자2: 왜냐하면 의상에 따라 수어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까만 옷을 입으면 분위기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참여자9: 생각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어통역하면 한복을 입는 것도 좋지만, 색깔 한복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연구진3: 농인 의견이니까 하나보다는 상황에 맞추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3: 편집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어가 중요하죠.

참여자2: 분위기에 맞게 하면 농인들이 감정적으로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뮤

지컬을 할 때 뮤지컬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데 그 분위기를 빨리 느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어를 잘 하면 뭐든 만족합니다.

연구진1: 다음 질문입니다. 6번 자료와 수어해설가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 수어통역사의 크기는 자료는 작게 하고 수어통역사를 크게 할까요? 아니면 반반 아니면? 자료사진을 크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참여자2,7: 한국 농아방송을 보는데 그 비슷한 분위기로 했으면 해요. 수어가 조금 크고, 뉴스처럼, 밑에 자막이 뜨고요.

참여자3: 통역사가 더 앞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연구진2: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겹치지 않는 게 좋죠?? 분리 반,반 나눠서요.

참여자3,7: 맞아요.

연구진1: 7번 보시면 배경이 있고, 수어해설가가 수어를 할 때 위치가 수어 해설가의 왼쪽, 오른쪽, 중간 등 수어해설가의 위치는 어느 쪽이 좋을까요?

참여자4,5: 오른쪽이요.

연구진3: TV는 지금 대부분 오른쪽이에요.

참여자7: 오른쪽입니까? 상관없을 듯합니다.

참여자2: 수어통역 아니 뉴스를 볼 때 수어가 하나로만 표현돼서 애매해요. 확실하게 구분해서 좌, 우로 몸을 움직여가며 거기에 상황에 맞게끔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화면을 보면 2개를 설치해서, 두 사람에게 대해 설명할 때, 첫 번째 사람은 오른쪽 카메라를 보며 수어로 설명하고, 두 번째 사람에게 대해 설명할 때는 왼쪽 카메라를 보면서 해야 카메라가 하나면 사람에게 대한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참여자7: 그거 좋은데요.

연구진2: 저는 독일에서만 TV를 보다가 한국에서 TV를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게 사회자가 이렇게 한 카메라만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카메라를 향하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각도를 바꿔서 카메라를 보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지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예요. 특별한 내용적인 면이 아니더라도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니 세련되어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참여자2: 카메라 2대를 설치하는 것은 지루한 것도 이유가 되지만, 한 사람을 설명할 때 그리고 그와 다른 사람을 설명할 때 사람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여자7: 예를 들면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움직일 때 남자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자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몸의 위치가 반대편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한 통역사가 맡은 사람이 두 명이지요.

참여자2: 통역사는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통역사가 말을 할 때와 예를 들면 영상에서 말을 할 때 몸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원중계를 한다고 하면 영상에서 기자가 “안녕하세요.”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이 “네, 그런 상황이군요. 아, 그렇군요.” 대답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역사 한 사람이 통역하게 되면 기자 역할을 맡아서 해설할 때는 왼쪽카메라를 보면서 해설을 하고요,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의 말을 해설할 때는 오른쪽 방향 카메라를 보면서 통역을 하겠지요.

참여자9: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만 합니다.

참여자2: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뉴스가 아니라 인터뷰할 때도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앞만 보고 하면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 쪽 위치로 방향을 바꿔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건지 확실히 구별해서 누가 말하는 것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참여자7: 맞는 말입니다.

참여자9: 에피소드를 설명할 때만 구별하고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2: 보통 일반적인 설명만 할 때는 앞만 보고 통역해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설명할 때는 중앙이 좋은데, 필요할 때는 역할을 전환해줬으면 합니다.

연구진3: 지금 수어통역 위치가, TV처럼 오른쪽이 좋아요? 왼쪽, 가운데, 어디가 좋아요?

참여자3,4,5: 오른쪽이요.

참여자2: 참여자3씨가 방송하는 것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왼쪽 아닌가요? 오른쪽에 자료사진이 나오구요.

참여자3: 아니요. 오른쪽입니다. 예시안에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여자7: 수어뉴스방송의 방식과 비슷하게 하면 좋겠네요.

참여자7: 왼쪽 오른쪽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시험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왼쪽도 해 보고 문제가 안 되면 괜찮지요. 물론 대부분 오른쪽입니다만.

연구진2: 처음에 혼자 통역 할 때는 중간에서 하다가, 자료화면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옮겨지는 거죠?

연구진3: 방송국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본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콘텐츠기술로 하는 거죠.

참여자2,3: 기술로 하는거죠. 맞아요.

연구진3: 자막의 크기를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화면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게 변수죠.

연구진2: 자막이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으면 빼야 되고요.

참여자9: 화면이 노트북정도냐 아니면 화면이 작으면 좀 어려워요. 변수가 많아요.

참여자5: 박물관에 가보면 유물이 있을 때 대포, 화살, 칼이 있으면 대포에 대해 자료화면이 났다가 수어가 나와요. 자료화면은 뒤로 가고요. 유물 자료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 수어해설이 등장하듯이 그런식으로 되면 좋겠어요. 대포그림이 나온 후 수어설명, 화살그림이 나온 후 수어설명, 칼 그림이 나온 후 수어설명 그런 식으로 하면 확실해서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3,7: 맞아요.

연구진3: (예시안) 2번을 원하는 거지요. 그림을 정지시키고 나오고..

참여자5: 네 맞습니다. 자료화면이 나온 후에 수어해설이 되는 방식을 이어가면 됩니다.

참여자9: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할 거란 것을 미리 ‘설명 시작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5: 사각형 그림 자료 보다는 전체 그림에서 해당 그림만 나오게 잘라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각 그림으로 하는 것은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보다 그 그림만 잘라져서 따로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그림이 나온 후 수어해설로 바뀌는 거를 말합니다.

참여자9: 예를 들자면 여기 그림이 여러 가지 있다면 원하는 그림을 눌렀을 때 그 그림이 뜨고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인데, 선택해서 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거죠.

참여자2: 제가 잘은 모르지만 미국 ASL로 설명된 자료들을 자주 봅니다. 제가 어느 정도 ASL을 아는데 ASL 자료들을 보면 효과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경이 완전히 파란색 화면인데 그 앞에서 수어를 하다가 앞에 있는 텔레비전 화면 방향에 맞춰서 손짓을 하면 실제로는 없지만 자막이라던 그림 자료들이 나타나고 바뀝니다. 그림이 나타나면 그 그림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날씨 예보를 할 때 어떤 지역을 손으로 가리키죠. 그것처럼 그림 자료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수어로 해설합니다. 지시하면 화면이 뜨고 그 화면의 방향에 맞춰서 수어로 해설하는 방식이 좋을 듯합니다. 그거 아주 좋고 편해 보였습니다.

참여자3: 편집이 힘들 것 같아요.

참여자2: 가끔 TV에 보면 역사와 관련된 화면에 시뮬레이션 같은 거 나오잖아요.

연구진1: 11번 대해 논의해봅시다.

참여자3: 농인! 청인이 아니라 농인이요. 농인이 설명을 잘 합니다.

연구자2: 11번 수어해설가의 기준은 뭐가 좋으세요? 예를 들면

‘1. 한국수어를 제일 먼저, 한국수어만 하며 자란 사람(농인), 2. 한국수어, 한국어 문장력 가지고 있는 이중문화에 익숙한 사람(농인과 청인), 3. 수어 발표력 풍부해서 시각적 설명에 능통한 사람(농인과 청인), 4. 그 외 기타’

참여자2,4,5,7: 3번이요.

참여자3: 경험이 많은 사람이요.

연구진3: 3번이 많은 것 같네요. 표현력이 풍부하면 청인이든지 농인이든지 상관없습니까?

참여자2,4,5: 청인이 수어와 표정이 완벽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연구진2: 다 같은 의견입니까? 공감하십니까?

참여자4: 좋습니다. 청인도 상관없습니다.

참여자2: 왜냐하면 3번이 유익한 이유는 한국수어를 잘 한다면 보기에 괜찮지만 표정까지 겸하여 봐야 이해가 됩니다. 관련 지식이 별로 없는 농인에게는 3번이 2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 풍부한 설명이 됩니다.

참여자4,5: 맞습니다.

연구진3: 현재 여러분들이 영화, 박물관, 고궁도 갔을 때 농인의 입장에서 이용도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정도인가요? 100점부터 0점까지로 나눈다면 농인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주세요.

참여자3: 10점? 0점이요. 별로예요.

참여자2: 20점? 물건이 신기해서 보는 것만으로 30점정도요. 깊이 알지 못해요.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참여자1,7: 20점이요

참여자4: 저는 방문했을 때 수어통역을 잘 보지 않아서 뭐라 말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수어통역을 잘 보지 않았네요. 그냥 자막만 봤어요.

참여자4: 화면으로 된 수어해설이 없기 때문에 0점인 것 같습니다.

참여자7: 맞습니다. 다른 농인들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박물관, 전시회 등에 가면 설명이 있긴 하지만 깊이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통역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자막으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게 점수로 20점정도 되겠네요.

연구진3: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네요.

참여자3,5: 저는 0점입니다.

참여자5: 저는 문장력이 어느정도 됩니다.하지만 저와 함께 간 친구들은 문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같이 가보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루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문장이다 보니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원래 1시간 구경해야 할 곳이지만 돌아보면 10분 20분이면 다 봅니다.

참여자2,7: 맞습니다.

연구진2: 자, 점수가 아주 낮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게, 내용이 어렵고 내가 접근이 힘들어서 점수를 낮게 줬는지, 아니면 내가 농인으로써 접근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서 점수를 낮게 줬는지 그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저희도 박물관 가면은 어렵거든요.

우리 청인도 대충 보고, 학교에서 시키니까 학생들은 마지못해 가고 공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용이 어렵고 조금 지루합니다. 이 역사이야기가요. 저희가 너무 자극적인 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박물관에 가서 “재밌어.”하는 청인은 거의 없어요. 그걸 생각하시고 내가 농인이기 때문에 ‘청인보다 접근성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것은 너무 아니다.’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지요? 아니면 “나는 가면 내용도 너무 어워서 1년에 한번밖에 안가고 재미없어.”라고 하는 것인지 구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자2: 예를 들면 경복궁을 가면 안내가이드가 있죠? 따라가 보면 말로 해설을 하죠. 그러면 청인들은 이해도 되고, 재미도 있죠. 말을 들으면서 감정으로 느끼고 역사도 알게되는데, 자막만 보면 듣는 것과 다르죠. 청인도 마찬가지로 일거예요. 그냥 지루해서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관광안내가이드가 중요합니다. 해설사가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 농인들 중 역사 관련된 경우라면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서울 농학교 역사 선생님이신 ‘장진권’선생님이 국어, 역사를 잘 아는데, 풍부한 표현력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농인들이 신기해하고 그 설명에 빠져듭니다. 눈빛이 살아납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서, 역사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수어로 해설을 하면 효과가 클 거고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참여자1: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부산농아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청인 선생님들

중에 음성언어로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제가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 가서 참여자3 선생님의 안내를 받았어요, 제가 그 수어에 빠져들어 너무나 신기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때 '수어를 잘하는 농인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2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참여자7: 그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에서만 하는게 아니고요. 덕수궁에서 수어해설도 하고 안내도 받을 수 있어 좋지만 그 외에 경주라든지 그런 곳은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참여자1: 전국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경주에는 없습니다.

참여자2: QR코드를 만들어 수어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참여자1: 누르면 화면에 뜨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여자2: 그것도 괜찮고요. 예로 들었던 3가지 중에서,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연구진3: 참여자3님, 사람들이 평균 1년에 몇 번 정도 문화해설을 이용합니까?

참여자3: 1년에 10번 정도 문화해설을 이용합니다. 홍보가 부족합니다.

참여자7: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여자1: 보통 몇 명이 함께 합니까?

참여자3: 보통 5명입니다.

연구진3: 그런데 시설이 서울시가 담당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거 말고 종로구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담당하는 곳은 덕수궁이요. 종로는 구경할 곳이 많으니까요.

참여자3: 종로가 먼저 시작했고, 서울시가 그 다음입니다.

연구진3: 그러면 지금 문화시설에 가서 편한 것은 하나도 없나요? 농인들 입장에

서요.

참여자2: 없습니다. 농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문화시설에는 하나도 없지요?

일동: 그렇죠.

연구진1: 불편한 것은 없나요? 갈 수 없는 환경이라서 스트레스를 받나요?

참여자5: 많아요.

참여자2: 불편한 것은 너무 많아요. 제가 유명한 뮤지컬에 관심이 많습니다. ‘캣츠’ 아시죠?

일동: 예 알아요. ‘캣츠’ 유명하죠.

참여자2: 매력적이고 스케일도 크지만 수어통역이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환상적인 무대에 통역이 없으니 보기가 어렵지요.

연구진3: 요즘 외국에서 오는 그런 작품에는 자막을 띄워주지 않나요?

참여자9: ‘나비부인’이라는 뮤지컬을 봤는데 양쪽으로 띄워줍니다. 다 외국어니까. 자막을 띄워주더라고요.

연구진3: 영어로 할 경우는 자막을 띄워줍니다. 그런데 눈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화면하고 너무 멀리 분리되어 있어요. 무대는 중앙인데 자막은 너무 멀어서 자막을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무대하고 자막이 너무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참여자4,7: 맞습니다. 피곤해요.

참여자3: 자막을 띄워주는데 피곤하더라고요. 자막이 무대 위쪽에 있어서 목도 힘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보았는데 쓰러질 뻔 했어요. ‘명성황후’를 기대하고 가 봤는데 목이 너무 아팠어요.

참여자7: 저는 수어통역 있는 것을 봤는데 무대를 보다가 수어통역 보다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참여자5: 문화시설에는 영화, 연극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있죠? 제가 놀란 것이

있었는데요. 대만에 농민들과 가서, 역사와 관련된 곳에 갔는데 키가 크신 분이 표를 확인하시는데 “저는 농민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더니 누군가를 부르더라고요. 잠시 후에 수어통역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어통역 서비스를 받았고요. 그리고 피자 가게에 가서도 “저는 농민입니다.”라고 했더니 또 누군가를 부르더라고요. 바로 수어통역사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만에는 수어통역센터가 없습니다. 협회 역할을 하는 곳이 많지 않고 2군데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관광 시설에 수어통역이 배치되어 있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도 이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기차, 버스터미널에 같은 곳에서 농민에게 교육을 시켜 배치하면 질문하는 농민에게 출발하는 버스 시간도 알려 주고 하면서 티켓도 파는 거죠. 문화시설이나 영화관, 백화점에서 농민이 일할 수 있고요.

참여자3: 롯데백화점에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롯데백화점입니다.

참여자7: 어디에 있습니까? 노원구에 있습니다.

참여자5: 지금 한국에서는 롯데백화점 한 곳에만 있습니다. 농민 수어해설사를 역사박물관, 경제박물관, 고속기차, 버스터미널 등 많은 곳이 아니더라도 그런 곳에 통역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해설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현장에 배치하면 좋을 듯합니다.

연구진3: 직원으로써 일도 하고 수어통역도 합니까?

참여자5: 예 맞습니다. 일도하고 통역도 합니다. 2개를 담당합니다. 대만에서는 관광을 하는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여자1: 그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어해설을 잘하면 월급도 좀 더 주고요. 괜찮을 듯합니다.

참여자3: 일도하고 통역도하고.. 롯데백화점에 적합하네요. 편리할 것 같아요.

연구진3: 대만의 경우는 직원이 수어를 배워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통역 전문가는 아닌 듯 하네요.

참여자2: 우리나라에 수어통역사 시험 합격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수어통역사 자격증 쓰지 않고 뭐하나요? 일도 하고 통역도 하는 일에 배치되면 좋을 듯합니다.

참여자3,7: 맞아요. 많습니다.

참여자2: 부산 성모병원에는 수어통역사가 있더라고요.

참여자3: 연세대도 있어요.

참여자2: 캐나다 공항에는 수어통역사가 있어요. 제가 청인과 대화가 안 되니까 연락을 해서 통역사를 부르더라고요. 수어통역사가 ASL로 설명해주는데 너무 편했어요. ASL로 대화할 수 있었어요.

참여자7: 제주도 공항에도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안내 표지판이 있었는데 가보니 없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여자5: 인천공항에도 있는데요.

연구진3: 그곳은 항공사 직원이 배워서, 안내하는 사람이 배워서 하고 있어서 좀 통역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참여자1: 맞습니다.

참여자2: 캐나다 공항에 계신 분은 완벽한 수어를 구사했습니다. 캐나다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연구진3: 앞으로 수어법이 제정이 되면 농인들이 문화시설에서, 농인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참여자5: 제가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요. 옛날 고3, 19세부터 지금까지 꿈꿔온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농문화센터를 세우는 것입니다. 연극, 영상, 영화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 그런 곳이 세워져서 운영을 하다가 문을 닫았어요. 문화센터가 세워져서 연극, 영화 제작, 사진, 그림, 취미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있고, 농인들이 일을 마치고 저녁에 모여서 배우고 만들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청인들은 전국적으로 그런 곳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 연극도 하고 그러는데, 농인은 문화접근권이 너무 부족하고 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고 농인이 청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배우고자 하는데 쉽지 않아요. 예전에 연극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 청인반에 들어갔는데 음성언어로 하는 강의라서 제

가 그곳에서 배울 수 없어 저만 왕따가 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대도시에, 예를 들면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경주 하나 이렇게 세우면 농인들이 가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농인들이 집에만 있습니다. 문화 접근권이 멀기 때문이겠죠.

참여자7: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재즈 반에 신청을 해서 농인 4사람과 함께 간적 있습니다. 재즈가 멋있어 보였고, 하고 싶어서 혼자서 못하고 몇 명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날 참석했는데, 시작하기 전 저희가 농인이라고 말했는데도 “알았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계속 음성언어로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따라갈 수가 없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첫 날에는 참았는데 계속 그러다보니 배울 수가 없어서 “저희와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수강료를 환불 받아 대신 수업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참여자3: 요즘 농인들 춤이나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진 듯합니다.

참여자2: 저도 같습니다. 농인문화센터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센터라 하면 다양한 분야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극, 뮤지컬 이런 것들로 여러 곳에서 공연하고 운영비를 벌어서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이 잘 되면 그 다음 다양한 것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뮤지컬을 한다면 농인들을 뽑아서 연습하고, 그 뮤지컬로 여러 곳에서 공연도 해서 배우들 월급도 주고 나머지로 센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듯합니다.

참여자3: 농인들이 연극 등에 관심 있지만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진1: 또 다른 제안 사항 있습니까?

참여자4: 그런 시설들을 세우려면 예산이 많아야 하는데 예산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2: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KBS에서 농인들을 위한 방송국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KBS의 지부처럼 운영비를 줘서 운영할 수 있게 하면 좋을 듯합니다.

연구진3: 채널권을 하나 따려면 천억, 이천억이 있어야 합니다. 채널을 하나 받기 위해서요. 요즘에 TV회사들이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케이블이라든지 종편이 다 마이너스에요. 왜냐면 방송이 광고로 살거든요. 광고비로 운영되는데, TV 광고

는 다 떨어지고 인터넷 광고가 수익을 다 가져가요.

참여자5: 제가 홍콩에서 시장에 갔는데 물건을 살 때 가게 주인들이 중국 수어를 다 하더라고요. 인사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숫자도 수어로 잘하고요. 알고 보니 홍콩에서는 매달 수어 광고를 한 두 개씩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수어를 TV를 통해 자주 보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어 사용하더라고요. 기억에 남고 쉽게 사용하고, 장사하는 곳곳마다 수어로 인사하는 것을 보면서 ‘TV 광고의 힘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자2: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0년대에 TV에서 수어교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5분정도 간단하게 수어를 가르치는 방송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연구진3: 예 맞습니다. 청음회관에서 했습니다.

참여자5: 그런걸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참여자4,5: 5분정도 하면 좋을 듯합니다.

참여자4: TV에서 우리말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수어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자1: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전국에 청인 학교에 모두 기본적으로 수어책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그 책을 가지고 수어를 가르치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농인들을 만나도 쉽게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고 농인과 사귄 수 있을 듯합니다. 전국에 배포할 책을 만드는 것 좋지 않을까요?

연구진3: 농인들이 청인을 만나면 수어를 많이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등 간단한 것을 많이 가르쳐야 합니다. 농인 스스로 많이 가르쳐 줘야 합니다.

참여자1: 청인들은 농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수어 교육 책을 배부하여 기본적인 것만 공부를 해서 졸업하면 사회에서 농인을 만났을 때 인사도 할 수 있고 더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에 수어책이 배포되면 좋을 듯합니다.

참여자3: 잡지나 주간지에 삽입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용실에서 잡지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1: 그거 괜찮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학교가 중요합니다. 그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자연스럽게 사회와 연결되어 중요합니다.

연구진3: 농인의 언어가 많이 확대되기 원하는 것이지요.

연구진1: 그러면 시간이 지체되어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 참석하여 주시고 좋은 제안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나눠드린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관련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구책임자 변승일

공동연구원 안영희, 이미혜, 최상배, 허일, 홍성은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37

인쇄일: 2014년 12월 10일

발행일: 2014년 12월 10일

인 쇄: 반석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수어 기반 문화 정보 접근 환경 지원 기초 조사’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